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0.txt

제목: 선병원, 몽골 국립 3병원 임직원 대상 서비스교육·견학 실시  
날짜: 2015120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536555  
ID: 01100701.2016010804253655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 <br/> <br/>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전선병원은 2일 몽골 국립 3병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 서비스 교육 및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r/> <br/>이날 프로그램은 몽골 국립 3병원 간호사 및 행정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은 대전선병원 대강당에서 친절 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절과 전화 응대, 표정 연습 등 병원 서비스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 후에는 선병원 이승구 국제의료원장이 수료증을 수여했다. <br/> <br/>또한 선병원재단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선치과병원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현존 최신의 첨단 암치료 장비인 래피드아크를 비롯한 PET-CT, MRI, 256Ch CT, 자동 유방 초음파 스캐너 등 장비와 1일 보철치료가 가능한 캐드캠(CAD/CAM) 디지털 시스템 등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견학했다. <br/> <br/>몽골 국립 3병원 동가마 간호부장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몽골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br/> <br/>선병원 이규은 경영총괄원장은 "선병원만의 차별화된 경영혁신을 토대로 향후 몽골 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림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사업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방문은 대전시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인 'K-FARM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선병원은 2012년부터 3년간 '한-몽골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에 선정돼 몽골 의료진 대상 척추·관절, 심장, 암분야 의료기술 연수와 지원부서 대상 행정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1.txt

제목: 노바티스, 국가 암 연구 사업에 약물 지원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248518  
ID: 01100701.201601080422485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노바티스는 국가 암 연구사업으로 선정된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유전자 지형 기반의 한국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를 위한 공익적 다기관 임상연구'에 노바티스 약물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 폐암 분과의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이 2015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로 선정된 바 있다. <br/> <br/>노바티스는 올해 1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개발?임상?시판 단계에 있는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을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에 지원하게 된다. <br/> <br/>노바티스가 지원하는 약물은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의 1세부연구로 추진되는 ‘우산형 임상시험(umbrella trial)’에 사용될 예정이다. <br/> <br/>'우산형 임상시험'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확보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표적치료를 제공하는 다기관 임상프로그램이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종양표지자(biomarker)를 발견하고 이에 맞는 표적치료제를 제공해 표적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br/> <br/>개발단계에 있는 약물부터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이 임상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된다. 시판 중인 ALK 억제제 세리티닙(ceritinib, 상품명: 자이카디아, Zykadia), BRAF억제제 다브라페닙(dabrafenib, 상품명: 타핀라, Tafinlar), MEK 억제제 트라메티닙(trametinib, 상품명: 멕키니스트, Mekinist) 외에도 임상단계에 있는 EGFR 억제제 EGF816(임상단계), C-Met 억제제 INC280(임상단계), 면역항암제 PDR001(임상단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br/> <br/>연구 총괄 및 1세부연구 책임자인 김상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비소세포폐암의 유전자 맞춤치료는 현재 폐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한국형 폐암 맞춤치료 지침의 임상근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임상에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가천대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가나다순)이 공동 참여한다. <br/> <br/>폐암 표적치료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유수 의료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에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다. <br/> <br/>마가렛 듀건(Margaret Dugan) 노바티스 글로벌 프로그램 헤드 수석부사장은 "노바티스는 유전체 분석 기반의 표적치료제에 대한 전문성과 긴밀한 의료계 파트너십을 통해 항암제 연구개발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암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2.txt

제목: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125383  
ID: 01100701.2016010804212538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홈페이지가 2015년 최우수 유무선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제12회 웹어워드 코리아' 종합의료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br/> <br/>올해 4월 개편한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br/> <br/>특히 부서별로 구축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메뉴를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방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도록 홈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였다. <br/> <br/>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br/> <br/>특히 올해 3월 인터라인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일반 웹페이지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모바일 부문에서도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암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속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웹어워드 코리아'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편한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3.txt

제목: 노바티스, 국가 암 연구 사업에 약물 지원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1181928016  
ID: 01100701.201512011819280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노바티스는 국가 암 연구사업으로 선정된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유전자 지형 기반의 한국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를 위한 공익적 다기관 임상연구'에 노바티스 약물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 폐암 분과의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이 2015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로 선정된 바 있다. <br/> <br/>노바티스는 올해 1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개발?임상?시판 단계에 있는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을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에 지원하게 된다. <br/> <br/>노바티스가 지원하는 약물은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의 1세부연구로 추진되는 ‘우산형 임상시험(umbrella trial)’에 사용될 예정이다. <br/> <br/>'우산형 임상시험'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확보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표적치료를 제공하는 다기관 임상프로그램이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종양표지자(biomarker)를 발견하고 이에 맞는 표적치료제를 제공해 표적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br/> <br/>개발단계에 있는 약물부터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이 임상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된다. 시판 중인 ALK 억제제 세리티닙(ceritinib, 상품명: 자이카디아, Zykadia), BRAF억제제 다브라페닙(dabrafenib, 상품명: 타핀라, Tafinlar), MEK 억제제 트라메티닙(trametinib, 상품명: 멕키니스트, Mekinist) 외에도 임상단계에 있는 EGFR 억제제 EGF816(임상단계), C-Met 억제제 INC280(임상단계), 면역항암제 PDR001(임상단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br/> <br/>연구 총괄 및 1세부연구 책임자인 김상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비소세포폐암의 유전자 맞춤치료는 현재 폐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한국형 폐암 맞춤치료 지침의 임상근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임상에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가천대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가나다순)이 공동 참여한다. <br/> <br/>폐암 표적치료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유수 의료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에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다. <br/> <br/>마가렛 듀건(Margaret Dugan) 노바티스 글로벌 프로그램 헤드 수석부사장은 "노바티스는 유전체 분석 기반의 표적치료제에 대한 전문성과 긴밀한 의료계 파트너십을 통해 항암제 연구개발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암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4.txt

제목: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1105342847  
ID: 01100701.20151201105342847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홈페이지가 2015년 최우수 유무선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제12회 웹어워드 코리아' 종합의료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br/> <br/>올해 4월 개편한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br/> <br/>특히 부서별로 구축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메뉴를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방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도록 홈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였다. <br/> <br/>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br/> <br/>특히 올해 3월 인터라인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일반 웹페이지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모바일 부문에서도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암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속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웹어워드 코리아'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편한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5.txt

제목: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30일 출범  
날짜: 20151129  
기자: 이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539039  
ID: 01100701.20160108041539039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각종 보험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30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br/> <br/>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다모아에서는 단독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6종이 등재돼 있다. 33개사 217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각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등재되는 상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br/> <br/> 보험다모아 메인화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제공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보험종목과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 및 보장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온라인 가입을 클릭해 해당 보험사 계약체결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br/> <br/>보험다모아 이용에 대해서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br/> <br/>생·손보협회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년 중 인터넷 포털에서 가격비교 정보를 검색·비교해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개인별 할인·할증요율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암이나 어린이보험은 보장범위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br/> <br/>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6.txt

제목: 과기한림원학술상에 최원용 포스텍 교수 선정  
날짜: 20151127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957555  
ID: 01100701.201601080409575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제14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학술상’ 수상자로 최원용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최 교수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광(光)촉매들을 개발하고 그 특성 및 반응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광촉매 환경·에너지 응용기술의 학문적 기초를 굳게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br/> <br/>특히 새로운 고도 산화기술을 개발하고, 얼음에서의 새로운 화학반응 현상을 규명해 환경화학 연구분야를 개척했다고 과기한림원은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br/> <br/>또 제14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공로상은 그동안 한림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유항 인하대 명예교수, 박규택 강원대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br/> <br/>제9회 덕명한림공학상은 유기반도체 소재의 표면유도 분자배향 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낸 조길원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br/> <br/>휠라코리아가 후원하는 제2회 FILA기초과학상 수상자로는 윤태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선정됐다. 윤 교수는 생체막 단백질의 단분자 연구, 단백질 수준에서 개인맞춤형 암 진단이라는 새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 <br/> <br/>제1회 환당한림의약학상은 간질환 치료 신약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며 중소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김상건 서울대 약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 상은 국산 천연물신약 제1호인 ’스티렌’을 개발한 환당 이은방 박사가 후원해 제정됐다. <br/> <br/>황온중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7.txt

제목: 제 4회 암치료법 '온열암 치료' 국제 학술대회 12월 5일 개최  
날짜: 2015112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613221  
ID: 01100701.2016010804061322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온열암연구회 포스터 <br/>국내외 온열암 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동안 온열암 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국제 온열암 치료 학술대회가 열린다. <br/> <br/>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주관하는 ‘제6회 대한온열암치료 학술대회’가 오는 12월 5일 정오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br/> <br/> ‘Oncothermia Treatment from Bench to Clinic’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SCI 학술지에서 발표된 온열암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와 임상시험의 경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br/> <br/> 이와 함께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송창원 교수가 '온열암 치료의 미래 전망'에 대한 강연과 함께 온열암 치료의 일반 분야, 기초연구 분야, 임상연구 분야에 대해 해외 연자 4명과 국내 연자 14명의 강연이 이어진다. <br/> <br/> 온열암치료는 암 발생 부위 및 전이부위에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자연사(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키는 치료법으로 ‘제4의 암치료법’으로 불리며 2007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br/> <br/> 다시 말해, 온열암치료는 바늘없이 고주파 전류를 몸안으로 몸밖에서 투과시키면 자동으로 암세포에만 열이 집적되어 집중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 <br/> <br/> 이로인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암으로 인한 통증경감의 효과가 크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온열암치료를 방사선요법 및 화학 요법과 병행해 치료하면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한편, 2010년 발족한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는 2016년부터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이 회장을 맡게 되며, 국내 연구를 비롯해 해외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8.txt

제목: 홍삼, 폐렴·패혈증에 예방효과...'세계 최초' 입증  
날짜: 2015112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602653  
ID: 01100701.201601080406026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 이상 되면서 면역기능이 약화되기 쉽다. 온도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사람 뿐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미생물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데 사용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여러 가지 질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호흡기 질환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만성 질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br/> <br/>대표적 호흡기 질환인 폐렴의 경우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가벼운 기침에서 시작하여 심각할 경우 패혈증이나 쇼크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패혈증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 질환으로, 패혈증으로 인한 입원율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전체 병원 사망률의 52%를 차지할 만큼 매우 심각한 질환이다.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모든 암환자 사망률보다도 높다. <br/> <br/>패혈증의 50% 이상은 폐렴에 의해 발생하며 폐렴의 원인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이중 주된 원인균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균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폐렴구균의 경우 코 등 호흡기관에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폐로 침투하여 폐렴을 일으키며 이는 곧 패혈증으로 연결된다. <br/> <br/>현재, 이렇게 치명적인 패혈증에 대한 예방법 및 치료제가 없어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동권 교수팀이 '홍삼의 폐렴구균 패혈증 예방효과(Korean Red Ginseng prevents pneumococcal sepsis in vivo by potentiating cell survival and diminishing inflammation)' 논문에서 홍삼이 면역기능을 조절하여 폐렴-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혀, 미국의 의학/과학 정보 사이트인 'Atlas of Science'에 비중 있게 소개되는 등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 폐렴-패혈증 동물실험을 통해 생존율, 체중 비교분석 <br/> <br/>이동권 교수팀은 실험군당 10-20마리의 실험동물(ICR :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Mice)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인후 감염으로 유발되는 폐렴-패혈증에 대한 홍삼의 예방효과를 관찰하였다. <br/> <br/>실험군은 홍삼농축액 100mg/kg을 15일간 투여한 후 폐렴구균을 투여한 그룹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후 폐렴구균을 투여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실험군을 대상으로 생존율 및 체중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br/> <br/>◇ 생존율과 체중증가 결과로 홍삼의 폐렴구균-패혈증 예방효과 확인 <br/> <br/>분석 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은 폐렴구균 감염으로 50%만 생존한 반면 홍삼투여군은 100% 생존하여, 생리식염수 투여군에 비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체중의 경우 생리식염수 투여군은 10% 증가에 그쳤으나, 홍삼투여군은 22%로 정상적인 증가를 보였다. 생존율과 체중의 감소 및 증가는 폐렴-패혈증의 대표적 임상 지표로써 이 결과는 홍삼 투여로 폐렴-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r/> <br/>또한 홍삼 투여군에서 폐 및 혈액에서의 폐렴구균 균 수가 99% 감소하여 홍삼 투여로 균 제거능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홍삼이 폐렴-패혈증 예방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br/> <br/>홍삼이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폐에서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염증의 정도를 염색 분석한 결과, 홍삼 투여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이 억제되어 폐의 염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br/> <br/>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동권 교수는 "이번 연구로 홍삼이 염증 억제, 균 제거율 증가로 결국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부터 정상 세포를 보호하여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며 "이 연구에 사용된 홍삼 용량은 임상시험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홍삼을 활용한 패혈증 예방법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이 논문은 지난 10월 유럽 Elsevier社에서 발행하는 SCI급 국제의학학술지로 대체의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화이토메디신(Phytomedicine)'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09.txt

제목: 1만명 유전자 분석 게놈 빅데이터 만든다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434361  
ID: 01100701.2016010804043436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한국인 게놈 빅데이터를 만드는 국내 최대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인에게 꼭 맞는 암, 심장병 등 질병치료 방법이 만들어진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늙는 무병장수, 웰 에이징(Well aging)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 <br/>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울산대, 울산대병원, 울산시 등은 ‘울산 1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의 게놈 표준정보를 분석, 가공해 게놈 빅데이터와 2·3차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창출하는 것이다. <br/> <br/>1만명 규모의 유전정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전엔 보건복지부에서 400명 규모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었다. <br/> <br/>울산과기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국인 유전자 표본의 정확성을 높이고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유전자는 울산시민 등 전 국민으로부터 무료로 기증받는다. 울산대병원에서 혈액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샘플을 모은다. 1호 기증자는 김기현 울산시장이다. <br/> <br/>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들이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DNA와 함께 유전정보의 전달에 관여하는 RNA, 단백질, 대사물질 등의 정보까지 분석한다. 인간의 생명에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이다. <br/> <br/>프로젝트 결과물인 유전정보는 맞춤의료의 원천기술로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관과 연구소, 기업들에게 빅데이터로 제공한다. 게놈 빅데이터는 맞춤의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한국인의 질병위험도를 예측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약을 만들어 치료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 <br/>프로젝트는 펀딩 등을 통해 300억원을 투입, 3년간 진행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 최고의 게놈기술 보유 그룹인 하버드 의대와 공식협약도 체결했다. 하버드 의대 조지 처치 교수의 주도로 세계에서 진행 중인 ‘개인게놈프로젝트’의 공동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br/> <br/>다음 달에는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펀드가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 컨소시엄(가칭)을 구성하고, 한국게놈산업기술센터, 게놈뱅크를 설립한다. 연구성과와 산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br/> <br/>참여기관들은 이 프로젝트 완료 후 유전정보 분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0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이후 참여자를 100만명, 1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br/> <br/>게놈을 활용한 맞춤의학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미국과 영국, 중국 등에서는 대형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2012년 기준 1경원으로 ICT(정보통신기술·3800조원)와 자동차(1800조원)를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리나라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8%(지난해 기준)다. <br/> <br/>김기현 울산시장은 “<span class='quot1'>게놈기술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 울산을 동아시아 게놈 산업화의 메카로 만들고, 게놈산업을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0.txt

제목: 같은 위암도 사람마다 치료효과 다른 이유?  
날짜: 2015112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307006  
ID: 01100701.201601080403070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진 왼쪽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위암센터 김성,이지연,김경미 교수 > <br/> 진행성 위암이 유전체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같은 위암인 것처럼 보여도 유전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치료법을 달리 적용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r/> <br/>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위암센터 김성(소화기외과)·이지연(혈액종양내과)·김경미(병리과) 교수 연구팀은 머크와 릴리 등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최근 진행성 위암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번 연구는 세계적 의학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 5월호에 게재됐다.(IF 27.36) <br/> <br/>  연구팀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받은 진행성 위암 환자 300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MSS/EMT, MSS/TP53(-), MSS/TP53(+), MSI)으로 분류됐다. <br/> <br/>  우선 MSS/EMT형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미만성 위암이 대표적인 예다. <br/> <br/>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미만성 위암은 암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거의 없어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다. <br/> <br/>  이번 연구에서도 다른 유형은 암 발생연령이 60대였던 데 반해 MSS/EMT형은평균 나이가 53세로 가장 젊었고, 생존기간도 72.2개월로 가장 짧았다. <br/> <br/>  반대로 유전자 복구시스템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MSI형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암의 진행이 느린 편으로 나타났다. MSI형의 경우 60% 가까이가 1~2기였으며, 평균 생존기간도 100.9개월로 가장 길다. <br/> <br/>  진행성 위암의 나머지 유형은 암 억제유전자로 꼽히는 TP53의 유무에 따라 갈렸다. TP53의 기능이 남아있는 MSS/TP53(+)형은 주로 장형위암이 많았고, PIK3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br/> <br/>  반면 전체 분석 대상 300명 가운데 107명(35.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MSS/TP53(-)형은 TP53의 기능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다. HER2를 비롯한 암유전자의 증폭을 주로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SS/TP53(+)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았다. <br/> <br/>  이에 따라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 치료시 유전체 형태에 따라 치료계획을 달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예후와 재발위험도가 다른 만큼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br/> <br/>  실제로 이들 환자의 재발률을 분석한 결과 MSS/EMT형의 경우 67.4%로 가장 높았으나 MSI형은 23.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br/> <br/>  이러한 분류는 암유전체국제연구팀(TCGA, The Cancer Genome Altas), 싱가포르 위암프로젝트 등이 보유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된 해외 위암환자 600명이상에 적용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br/> <br/>김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행성 위암이 유전형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 유형이 다르고 예후 및 재발위험도가 다름을  처음으로 보여준 중요한 결과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span class='quot0'>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차별화된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1.txt

제목: 정부차원의 첫 '담배 실험실' 25일 문열어, 성분· 중독 위해성 분석  
날짜: 201511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753999  
ID: 01100701.201601080357539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담배 중독성과 위해성 여부를 찾아내는 정부 차원의 실험실이 처음 문을 연다. <br/> <br/>24일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충북 오송의 본부 건물 내에 흡연폐해 실험실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흡연폐해 실험실은 담배의 성분 관련 실험을 하는 국가차원의 첫 실험실이다. 그동안 담배 실험실은  민간 차원에서 일부 대학의 부설 시설로만 있었다. <br/> <br/>당초 지난 8월 개소예정이었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문이 늦어졌다. <br/> <br/>흡연폐해 실험실은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연기표집장치, 스모킹 머신 등 실험 장비를 갖췄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질본은 이 실험실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도록 연구 역량을 키우는 한편 전세계의 비슷한 연구소들이 모인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연구소네트워크(TobLabNet)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br/> <br/>실험실은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첨가물 포함)과 연기 등의 배출물을 분석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 <br/> <br/>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분석한다. <br/> <br/>또 담배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한편,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나 먼지 같은 환경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br/> <br/>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br/> <br/>실험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금연 정책 수립과 담배회사 대상 소송의 증거 등으로 활용된다. <br/> <br/>미국의 경우 국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식품의약국(FDA)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담배의 첨가물을 조사하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2.txt

제목: 한미약품 다중표적 항암신약(포지오티닙), 유방암 美 2상 본격화  
날짜: 2015112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415377  
ID: 01100701.2016010803541537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올해 3월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社에 판권 이양된 한미약품의 다중표적 항암신약(Poziotinib, 이하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이 미국에서 본격화된다. <br/> <br/>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은 포지오티닙의 글로벌 판권(중국-한국 제외)을 확보한 스펙트럼社가 최근 미국 FDA에 유방암 환자 대상의 임상2상 승인을 신청했다고 00일 밝혔다. <br/> <br/> 이번 임상2상은 기존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투여용량 및 주기는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을 토대로 결정되며,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예방 치료제(prophylactic therapies)의 투약이 함께 진행된다. <br/> <br/>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과 공동 개발한 표적항암신약으로,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국내 2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임상 및 임상1상을 통해 기존 항암제 투여로 발생한 2차 내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br/> <br/>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포지오티닙은 유방암 뿐 아니라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중표적 항암신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미국에서의 2상은 포지오티닙의 상업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스펙트럼Rajesh C. Shrotriya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 2상은 포지오티닙의 미국 허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포지오티닙 적응증 확대는 물론, 암 초기치료시 다른 치료제와 병용할 수 있는 시장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지난 3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으로부터 받는 계약금 및 개발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상업화 이후의 로열티 등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3.txt

제목: 내주 ‘보험 슈퍼마켓’ 오픈… 업계 판도변화에 태풍? 미풍?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639001  
ID: 01100701.20160108035639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온라인 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다음주 문을 연다. <br/> <br/>내년 보험업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보험사들은 온라인 보험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험업계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면 판매 비중이 큰 한국 보험시장 특성에 비춰볼 때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br/> <br/>◆한눈에 가격 비교 <br/> <br/>금융위원회는 23일 시연회를 통해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처음 공개했다. 보험다모아는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의 가격정보를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30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br/> <br/>단독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여행자보험, 변액 등 저축성보험 총 6종을 판매한다. 19일 현재 36개사 207개 상품이 탑재돼 있다. 보험 종류를 선택하고 나이, 성별, 보험가입기간 등 조건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온라인전용상품(CM)은 ‘인터넷바로가입’을 클릭하면 각 사 가입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TM(텔레마케팅) 상품 등의 경우는 전화번호가 안내돼 있다. <br/> <br/>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내년 4월에는 온라인 전용상품의 보장범위를 지수화해 복잡한 보험상품의 비교를 할 수 있게 하고, 상품별 사업비도 공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 상품 가격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br/> <br/>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슈퍼마켓은 쉽게 보험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비해 CM은 평균적으로 15∼16%, TM 상품은 10∼12% 저렴한 편이다. <br/> <br/>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는 삼성화재만이 유일하게 온라인가입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온라인 상품 제공 및 가입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렴한 온라인 정기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미 판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우리는 온라인상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span>”라고 전했다. <br/> <br/>◆출혈경쟁·불완전 판매 우려 <br/> <br/>일각에서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자칫 가격경쟁으로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보험은 가격뿐 아니라 보장 내용, 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얼마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저렴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냐’ 이건 의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가격이 싸다고 가입했는데 기대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불완전 판매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중소형사들이 상품 가격을 낮출 여력이 적기에 대형사들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r/> <br/>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도 많고,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는 CM상품도 제한적이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설계사들이 여러 차례 설득 과정을 거쳐 대면가입하는 일이 많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br/> <br/>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보험다모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관건</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다양한 상품은 물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상품 컨설팅 채널 등 폭넓게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4.txt

제목: 내년부터 암 등 4대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혜택 대폭 늘어나  
날짜: 201511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4520269  
ID: 01100701.2016010803452026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br/> <br/>2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br/> <br/>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암·시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br/> <br/>그러나 내년부터는 급여 확대에 따라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br/> <br/>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br/> <br/>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준다. <br/> <br/>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br/> <br/>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재가 인공호흡기(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br/> <br/>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을 내년부터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br/> <br/>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5.txt

제목: 노화 억제하는 세스트린 신호전달체계 발견  
날짜: 2015111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4002025  
ID: 01100701.201601080340020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이준희 미국 미시건대학 교수팀이 노화 조절 기능을 가진 세스트린(Sestrin) 단백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활성화되고 억제 되는지 작용원리를 발견해 향후 노화와 암 발생 억제, 비만과 당뇨 조절 기능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됐다. <br/> <br/>세스트린은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대사조절체 단백질이다. mTOR라는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을 저해하여 암 세포증식과 노화와 관련한 퇴행성질환, 비만 및 당뇨병과 관련한 대사증후군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지금까지는 이 세스트린이 mTOR신호전달계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먼저 AMPK라는 신호전달계에 작용해서 간접적으로 mTor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br/> <br/>하지만 이러한 작용원리는 세스트린이 노화 등을 억제하는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으며, GATOR1과 GATOR2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또한 mTORC1 활성화에 필수요소인 RagB를 조절하는 GATOR1/GATOR2 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보고되었다. <br/> <br/> <br/>김정식 이준희 교수팀은 세스트린2가 GATOR2에 붙으면 GATOR1이 분리되고 분리된 GATOR1이 RagB에 작용하여 mTORC1 신호전달체계를 억제시키는 원리를 발견했다. <br/> <br/>김정식 교수는 "mTORC1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며, 노화와 암발생 억제, 비만과 당뇨에 대한 조절 기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이준희 미시건 주립대 생리학과 교수팀의 논문은 네이쳐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c Report) 3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6.txt

제목: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제6차 학술대회 개최  
날짜: 2015111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545091  
ID: 01100701.201601080335450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는 오는 12월 5일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br/> <br/> 열에 의한 암의 치료는 고대로부터 시행되어온 치료방법 중의 하나였으나, 기술의 한계로 주류의 치료법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19세기말부터 고열에 의해 암을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말에 고주파에 통한 온열치료기기가 등장, 새로운 암치료 방법으로 온열암치료와 방사선요법 또는 항암제와 2제 또는 3제 병용에 대한 많은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다. <br/> <br/> 이런 치료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한 학술적인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 의료진들이 2010년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를 창립 발족하였고 매년 온열암요법에 의한 암치료의 임상 경험을 나누고 온열암치료 관련 연구들을 실시하고 있다. <br/> <br/> 또한 온열암치료가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임상시험이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해외 학술지에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온열암치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들이 계획되고 진행하고 있다. <br/> <br/> 제6차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학술대회는 'Oncothermia Treatment from Bench to Clinic'이란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SCI 학술지에서 발표된 온열암치료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전향적 임상시험들의 경과에 대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br/> <br/> '온열암치료의 미래 전망'에 대해 세계적 권위자인 미네소타대학교의 송창원 교수의 발표를 포함, 4명의 해외 연자들과 14명의 국내 연자들이 온열암치료와 관련하여, 온열암치료의 일반분야, 기초연구분야와 임상연구분야의 3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br/> <br/> 한편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는 2016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김승철 교수가 회장을 맡게 되며, 빠른 미래에 한국에서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의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7.txt

제목: 본다빈치, 컨버전스아트로 암환자들에게 힐링 선사  
날짜: 2015111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035139  
ID: 01100701.20160108033035139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컨버전스아트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본다빈치는 '비컨 및 스마트 태그를 활용한 환자안심케어 서비스' 프로젝트에 자체 힐링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br/> <br/> 본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 국책사업으로 벤플이 주관, 경희의료원(외과 이길연 과장, 프로젝트 총괄)이 참여하고 있다. <br/> <br/> '비콘서비스'는 가까운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 위치를 찾아 메시지 전송, 모바일 결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서비스이다. 이를 활용하여 암환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힐링투어, 환자콘텐츠 정보제공, 운동량체크 등 유용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모아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br/> <br/> 본다빈치는 이 중 '환자콘텐츠 정보제공' 부문에 감성회복프로젝트 시리즈 '헤세와 그림들 展', '모네, 빛을 그리다 展' 등의 콘텐츠가 탑재 및 암환자의 치유프로그램을 위한 영상을 함께 납품할 예정이며,  암환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넘어선 힐링과 치유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트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br/> <br/> 본다빈치 관계자는 "컨버전스아트 '반 고흐: 10년의 기록 展', '헤세와 그림들 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선사할 수 있게 되어 본 프로젝트와 함께 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br/> <br/> 이어 "자신의 치유를 위해 그림을 그렸던 헤르만 헤세의 그림들을 통해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본다빈치는 지난해 전시계에 '아트컨버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감성회복 프로젝트로 '반 고흐: 10년의 기록展', '헤세와 그림들展'을 성공적으로 연이어 개최하였으며, 감성회복프로젝트 3탄 '모네, 빛을 그리다展'을 오는 12월 11일 서울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하여 12일대전무역전시관과 중국에 연속으로 오픈한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8.txt

제목: 삼성전자·LG전자·LS산전은 ‘혁신 리더’  
날짜: 2015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506891  
ID: 01100701.2016010803150689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이 세계 최대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의 ‘2015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시작된 100대 혁신기업 발표에 모두 5년 연속 선정돼 아시아 혁신 리더로서 입지를 과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 분야 혁신 경쟁에서 1위 도요타를 바짝 추격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 연세대는 아시아지역 암 연구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2일 톰슨 로이터가 공개한 2015년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연구기관)에 우리나라는 총 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순위에 포함됐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탈락했다. 혁신기업 다수 보유 국가는 일본 40곳, 미국 35곳, 프랑스 10곳, 독일 4곳 순이다. <br/> <br/>세계 100대 혁신기업 순위는 글로벌 기업의 종합적인 특허 출원 규모와 특허 승인 성공률, 특허-논문 등의 영향력을 분석해 톰슨 로이터가 매년 선정, 발표한다. 톰슨 로이터는 특허, 지식재산 분석관리에만 4000여명이 근무하며 과학, 기술연구정보 분야에선 독보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br/> <br/>톰슨 로이터가 지난해 전 세계 특허 출원 등 연구활동을 분석한 결과 대륙별로 아시아에선 총 44개 혁신기업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은 36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는 46개 혁신기업이 선정됐던 2011년에 비하면 많이 위축된 양상이다. 유럽계 기업 수는 2014년 18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어났다. <br/> <br/>영국과 중국은 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하나의 혁신기업도 내지 못했다. 영국은 국내총생산의 단 1.63%에 불과한 낮은 국내 총 연구개발 지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은 연구개발 지출 비율이 3.47%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해 화웨이가 처음으로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순위 진입에 실패했다. 톰슨 로이터는 “<span class='quot0'>중국은 기록적인 숫자의 국내 특허 출원을 통해 자국 지적 재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특허 출원에 더 노력해야 한다</span>”고 주문했다. <br/> <br/>주요 혁신기업의 생존경쟁과 관련해 톰슨 로이터는 “<span class='quot0'>각 기업들이 점차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업계가 이제는 광범위한 생존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span>”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는 2011년 제약부문에서 작물과학부문으로 영역을 넓힌 바이엘과 IT를 필두로 바이오 등 산업 전 영역에서 방대한 특허 출원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집중 거론됐다. <br/> <br/>톰슨 로이터는 100대 혁신기업 선정과 별도로 올해 주요 분야 혁신 순위를 매겼는데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발명 건수 3214건으로 도요타(4338건)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또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세대는 아시아 암치료 5대 혁신 연구기관에 포함됐으며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계, LG전자는 가전업계 대표적 혁신기업으로 꼽혔다. <br/>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19.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췌장암 극복 위한 심포지엄 성황  
날짜: 20151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306651  
ID: 01100701.201601080313066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아산병원 췌장암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췌장암타겟질환 극복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송철 교수가 새로운 췌장암 치료법 연구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br/>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렸다. <br/> <br/>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와 보건복지부 췌장암타겟질환 극복사업단은 지난 11일 병원 소강당에서 세계 유수 석학들과 국내 췌장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췌장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췌장암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기초·임상 연구 활성화 방안에서부터 암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등을 이용한 새로운 췌장암 치료법 개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br/> <br/>또한 병원과 산·학·연 기관 간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췌장암 진단 바이오마커, 맞춤형 암 치료를 위한 중개 및 임상연구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췌장암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췌장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오갔다. <br/> <br/>나아가 오는 13일 세계 췌장암의 날을 맞아 열릴 국내 최초의 췌장암의 날 행사에 대한 사전 강의도 열렸으며, 동시간대 함께 개최된 췌장암 건강강좌에도 200여 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등 췌장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br/> <br/>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송철 교수(췌장암타겟질환 극복사업단장)는 "췌장암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환자의 20% 정도만이 수술이 가능하고 항암치료의 효과도 미미해 췌장암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췌장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췌장암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송철 교수팀은 현재까지 복강경 췌담도 수술을 세계 최대 수준인 1000여 건 이상 시행하는 등 췌담도암 수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0.txt

제목: 인제대?한기호연구팀,?몸속?암세포 실시간?측정기술?개발  
날짜: 20151111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113293  
ID: 01100701.201601080311132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제대 연구팀이 현재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br/> <br/>인제대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사진) 교수 연구팀은 10분 이내에 혈중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분리기술과 함께 분리된 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 기술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 측정이 가능하다. <br/> <br/>연구팀은 혈액 속에 암세포와 잘 결합하고 전기가 잘 흐르는 고전도성 물질인 그래핀(graphene) 입자를 주입한 결과 혈액 내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표면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 <br/> <br/>그래핀이 붙어 정상 혈액세포보다 전기전도도가 높아진 암세포가 전극 사이를 지날 경우 전기저항이 작은 암세포를 94% 이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이 기술은 혈중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향후 휴대용 자가 암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한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상용화된 혈중암세포분리 기반의 암 진단 방법은 100만원 정도의 비싼 진단비용과 면역형광염색기술을 이용한 혈중암세포 측정이 번거로운 탓에 국내 도입이 힘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병원과 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조기에 암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한 교수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국내·외 특허출원 중이며, 향후 백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1.txt

제목: 내 몸 안에 암세포, 실시간 측정 기술 개발로 조기 진단 가능  
날짜: 20151110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356851  
ID: 01100701.201601080303568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 연구팀>국내 연구팀이 현재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br/> <br/>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 연구팀이 10분 이내에 혈중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분리기술과 함께 분리된 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 측정이 가능하다. <br/> <br/> 연구팀은 혈액 속에 암세포와 잘 결합하고 전기가 잘 흐르는 고전도성 물질인 그래핀(graphene) 입자를 주입한 결과 혈액 내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표면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  <br/> <br/> 그래핀이 붙어 정상 혈액세포보다 전기전도도가 높아진 암세포가 전극 사이를 지날 경우 전기저항이 작은 암세포를 94% 이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 <인제대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팀의 혈중암세포 분리 및 측정 바이오칩 개념도>이번 기술은 혈중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향후 휴대용 자가 암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리된 혈중암세포를 이용해 암 유전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자 수준에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br/> 한기호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혈중암세포분리 기반의 암 진단 방법은 100만 원 가량의 값비싼 진단비용과 면역형광염색기술을 이용한 혈중암세포 측정이 번거로운 탓에 국내 도입이 힘들었다"며 "이번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병원과 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조기에 암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r/> <br/> 한 교수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국내·외 특허출원 중이며, 향후 백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br/> <br/> 이번 연구는 국제 과학 학술지 ‘분석 화학(Analytical Chemistry)’ 9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2.txt

제목: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기름, 암 유발한다고?”  
날짜: 2015111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416679  
ID: 01100701.2016010803041667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옥수수 기름과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마틴 그루트벨트(Grootvel) 드몽포르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암 물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br/> <br/> 그루트벨트 교수는 "해바라기씨유나 옥수수 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고온 상태에서 가열하면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br/> <br/> 이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사용하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나온다. <br/> <br/> 이 알데히드는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동일한 강한 세포 독성 물질로 암과 심장병, 치매 등을 유발한다. <br/> <br/> 반면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등으로 조리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3.txt

제목: 간암 일으키는 유전자 작용 기전 규명, 표적 치료 기대  
날짜: 201511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356538  
ID: 01100701.201601080303565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특정 유전자가 간암을 일으키는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내 간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br/> <br/>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히포(HIPPO)가 간암 세포의 대사 및 신호전달 통로를 조절해 간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규명돼, 간암 환자의 예후 예측과 새 표적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융합의학과 박윤용 교수와 미국 MD앤더슨병원 이주석 교수 공동 연구팀은 히포(HIPPO) 유전자의 기능 저하로 활성화되는 YAP/TAZ 유전자가 간암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는 글루타민 이동체 SLC7A5/SLC38A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또한 글루타민 이동체가 증가되면 mTOR라는 암 신호전달 통로가 활성화되는 기전도 함께 발견해, 히포 유전자로 인해 활성화된 YAP/TAZ 유전자가 궁극적으로 간암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br/> <br/>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인 미국 간학회지 헤파톨로지(Hepatology)와 암학회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각각 발표 되었다. <br/> <br/> 간암 일으키는 히포 유전자 작용 기전. <br/>5년 생존율이 20∼30% 수준에 불과한 간암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암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마커는 밝혀진 바 없어 뚜렷한 표적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br/> <br/>또한 2003년 세포의 증식을 막고 죽음을 촉진하는 '히포(HIPPO)'라는 유전자가 암 세포의 생성도 억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발암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암 세포 증식이 잘 이뤄지는 간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은 먼저 초파리에서 발견된 히포 유전자의 작용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포유류가 가지는 유전자 중 히포에 상응하는 MST1/2를 쥐에 적용해 조절했다. 히포의 포유류 유전자인 MST1/2를 쥐에서 인위적으로 결여시켜 간암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게 만든 다음, 쥐의 유전자를 분석해 MST1/2의 활성화 관련 유전자 프로화일을 구축했다. <br/> <br/>이러한 쥐의 유전자 프로화일를 바탕으로 미국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GEO)에 등록돼 있는 한국, 중국, 미국 간암환자 455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MST1/2의 활성이 높은 362명의 간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93명의 환자로 구분했고 환자의 예후를 관찰했다. <br/> <br/>MST1/2의 활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 보다 통계학적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MST1/2 즉 히포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종양 억제 효과가 있으며 간암 생성도 줄일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이를 토대로 MST1/2에 의한 간암 생성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MST1/2의 하위 유전자인 YAP/TAZ를 이용해 간암 세포에서 유전자 프로화일을 구축했다. YAP/TAZ는  MST1/2가 억제될 때 활성화되는 패밀리 유전자로서 유전체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된다. <br/> <br/>분석 결과 YAP/TAZ 유전자의 활성화에 따라 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대사를 활발히 하는 SLC7A5, SLC38A1과 같은 글루타민 이동체의 발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글루타민은 글루코스와 더불어 암세포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대사 물질로 특히 간암에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이용돼 활성화 될수록 간암 생성을 촉진한다. <br/> <br/>특정 단백질과 특정 유전자의 결합을 파악하는 분석법(ChiP, Reporter assay 등)으로  YAP/TAZ를 세포에서 억제 시켰을 때 SLC7A5, SLC38A1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해, 이 유전자가 글루타민 이동체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결국 간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br/> <br/>더불어 YAP/TAZ 유전자의 또다른 간암 생성 기전도 찾았다. YAP/TAZ가 SLC7A5, SLC38A1의 조절을 통해 mTOR라는 세포내 암 신호전달 통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br/> <br/>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융합의학과 박윤용 교수. <br/>YAP/TAZ를 세포에서 억제했을 때 mTOR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했고 간암 환자의 유전체 분석에서도 YAP/TAZ의 발현과 mTOR의 촉진 연관성이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됐다. <br/> <br/>그리고 mTOR의 억제제로 알려진 라파마이신(Rapamycin)이 실제 간암 생성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히포 유전자의 기능 저하로 mTOR가 활성화된 쥐에 라파마이신을 투여하자 간암 생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br/> <br/>이는 mTOR를 억제해 간암 생성을 막는 것으로, 쥐를 대상으로 얻은 연구 결과지만 결국 (HIPPO)와 같은 MST1/2 유전자로 YAP/TAZ과 mTOR에 영향을 받는 인체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즉 이러한 특정 유전자 발현 정도를 표적으로 삼아 라파마이신을 선택적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융합의학과 박윤용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암 생성에 영향을 주는 히포 유전자와 암세포 대사와의 조절 기전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로서, 간암 환자의 예후를 MST1/2 유전자 군에 따라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전했다. <br/> <br/>이어 "특히 YAP1/TAZ 유전자와 mTOR가 동시에 증가한 경우 선별적으로 라파마이신을 사용한다면 간암 생성이 억제될 것으로 확인돼, 표적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4.txt

제목: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미국생식의학회(ASRM)‘차광렬 줄기세포 상’2015년 수상자 선정  
날짜: 2015110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914427  
ID: 01100701.2016010802591442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 71차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 ASRM)에서 세 번째 ‘차광렬 줄기세포 상` 을 수상한 쟈틴 패텔(Jatin Patel)박사 <br/>차병원그룹은 볼티모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71차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 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 상' 세 번째 수상자로 호주 퀸슬랜드 대학 의학연구원 쟈틴 패텔(Jatin Patel)박사를 선정해 수상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번에 선정된 쟈틴 패텔 박사는 ‘태반유래 혈관내피 전구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혈관질환의 치료 및 조직재생’이라는 연구과제로 주목을 받은 젊은 의과학자다. 혈관내피 전구세포란 혈관형성을 촉진하는 세포로 주로 혈관 형성에 관여한다. 허혈성 질환이나 암, 망막병증 등 여러가지 질환의 혈관형성에 관여하며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는 죽어버린 간세포, 혈관내피세포, 심장세포, 뼈세포, 신경세포 등을 재생시킬 수 있어 장기이식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br/> <br/> 쟈틴 패텔 박사는 연구과제를 통해 태반 중에서도 태아 쪽으로부터 유래한 태반유래 혈관내피 전구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를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허혈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2015년 차광렬 줄기세포 상의 수상자로 쟈틴 패텔 박사를 선정했다.        <br/> <br/> 이번 상을 수상한 쟈틴 패텔 박사는 “<span class='quot0'>줄기세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차광렬 줄기세포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라고 소감을 밝혔다. <br/> <br/>  올 해 세 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지난 2011년 미국생식의학회(ASRM)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의 줄기세포 연구와 불임 연구에 관련된 세계적인 공헌도를 인정해 제정한 상으로 줄기세포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엄선해 수여하고 있다. <br/> <br/> 미국생식의학회는 회원만 1만여 명 이상인 세계 최대규모의 학회로 생식불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Fertility and Sterility’ 등을 보유한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이다.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2011년 미생식의학회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개인 이름으로 제정한 상이다. 이번 행사는 10월17일에서 21일까지 개최됐으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불임생식 의학자 및 과학자 80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br/> <br/>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 회장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은 불임생식의학(Reproductive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의 전세계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명으로, 7차례에 걸쳐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최우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것은 물론 환태평양불임학회를 창립해 불임과 생식의학 분야에 지대한 공을 세운바 있다. 또 200편 이상의 저널 연구논문 발표와 더불어 230회 이상 주요 학회 특강을 하기도 했다. <br/> <br/> 강남차병원을 비롯한 차병원그룹 산하의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소, 차바이오텍, 미국 차병원인 헐리우드장로병원, 차병원불임센터와 차움, 판교 종합 연구원인 차바이오콤플렉스를 설립했으며 1999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요청으로 CC불임센터를 설립 대한민국 의료 수출 1호의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현재는 직접 설립한 학교와 연구소, 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연구와 임상, 비즈니스 간의 소통 융합을 통해 바이오입국에 앞장서고 있다. <br/> <br/> 한편,‘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차병원그룹의 차광렬회장 이름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생식의학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차광렬 회장의 줄기세포와 불임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권위, 공로를 인정해 만든 상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5.txt

제목: 가공육ㆍ적색육 먹을 때 곁들이면 좋은 식품 그효능은?  
날짜: 20151109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004934  
ID: 01100701.20160108030004934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br/>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공육과 붉은색 고기(적색육)의 과다 섭취가 암 유발(특히 대장암) 가능성을 높인다고 최근 발표하자 이들 육류의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br/> <br/>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와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회장 권대영)는 ‘육류와 함께 먹으면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선정해 9일 발표했다. <br/> <br/> 이에 따르면 육류의 발암 가능성을 낮춰주는 식품 ‘베스트 10’엔 채소 5종(깻잎ㆍ부추ㆍ마늘ㆍ고추ㆍ양파), 과일 1종(귤), 해조류 1종(다시마), 발효식품 1종(김치), 유제품 1종(우유), 음료 1종(녹차)이 포함됐다. <br/> <br/>대한영양사협회 임경숙 회장(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관련 연구논문 등 과학적 근거, 구입의 용이성, 육류와의 맛 궁합(어울림) 등을 기준으로 10가지 식품을 선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식품들을 육류와 곁들여 먹으면 고기 과다 섭취로 인한 대장암 등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깻잎의 항암 성분은 베타카로틴과 리모넨. 고기를 태우면 PAH 등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깻잎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항산화 비타민)이 이를 상쇄해준다. 깻잎의 베타카로틴 함량(100g당 9.1㎎)은 당근(7.6㎎)ㆍ단 호박(4㎎)을 능가한다.  <br/> <br/>깻잎의 향기 성분인 리모넨은 고기 특유의 냄새까지 잡아준다. 중국의 고의서인 ‘본초강목’엔 “깻잎은 고기의 온갖 독을 해독한다”고 쓰여 있다. 깻잎 추출물이 실험동물인 쥐의 대장암의 발생률을 53% 가량 낮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br/> <br/> 양파에 풍부한 황화 알릴ㆍ식이섬유ㆍ쿼세틴(항산화 성분) 등도 암 예방을 돕는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연구팀은 지난 2006년  ‘임상위장병학-간장학’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양파에 든 쿼세틴이 대장폴립(용종)의 수를 줄이고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br/> <br/> 마늘의 암 예방 성분은 매운 맛 성분인 알리신. 미국에서 4만1000명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이오와 여성건강연구’(Iowa Women’s Health Study)에선 규칙적으로 마늘과 과일ㆍ채소를 먹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35%나 더 낮았다. <br/> <br/> 부추엔 황화알릴(마늘ㆍ양파 함유)ㆍ베타카로틴(깻잎 함유) 외에 클로로필(엽록소)ㆍ식이섬유가 들어 있다. <br/> <br/>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준다. 부추 등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有益菌)이 가장 선호하는 먹이다. 특히 부추엔 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不溶性) 식이섬유는 노폐물ㆍ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장내 진공청소기’다. <br/> <br/> 고추의 암 예방 성분은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와 매운 맛 성분인 캡사이신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동물실험 결과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대장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국제학술지인 ‘임상조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발표했다.  <br/> <br/>실험용 쥐에 캡사이신이 함유된 고추를 먹게 했더니 대장암 위험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를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 수명이 30% 가량 길어졌다는 것이다. <br/> <br/> 귤의 암 예방 성분으론 비타민 C(항산화 비타민)ㆍ베타카로틴ㆍ리모넨(깻잎 함유)이 꼽힌다. 귤 100g당 비타민 C 함량은 44∼48㎎. 게다가 귤은 대부분 생과로 먹으므로 비타민 C가 조리 도중 소실ㆍ파괴될 일도 거의 없다. <br/> <br/> 다시마의 암 예방 성분은 식이섬유ㆍ칼슘ㆍ셀레늄 등이다. 특히 식물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하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높을수록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긴산은 포만감을 금세 느끼게 해 열량 섭취를 줄여준다. <br/> <br/> 알긴산의 일종인 후코이단(fucoidan, 다시마ㆍ미역 등 해조류 표면의 미끈거리는 성분)도 암 억제에 유용하다. 4년 전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팀은 후코이단이 대장암 세포의 자살을 촉진해 암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br/> <br/> 고기 먹을 때 우유를 곁들이면 대장암 예방에 유익한 것은 우유가 ‘칼슘의 왕’이기 때문이다. 칼슘 섭취는 대장암과 대장 선종의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 IARC는 칼슘을 섭취하면 가공육이나 적색육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즐겨 먹으면 암ㆍ노화 등을 일으키는 니트로스아민이나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론 우유 외에 유제품ㆍ멸치ㆍ다시마ㆍ미역ㆍ새우ㆍ브로콜리 등이 있다. <br/> <br/> 발효 식품인 김치의 암 예방 성분은 유산균ㆍ식이섬유ㆍ비타민 Cㆍ폴리페놀 등이다. 김치 유산균은 장내(腸內) 염증은 물론 암의 발전ㆍ전이 과정을 억제시킨다. 김치의 양념 재료인 마늘ㆍ생강에 풍부한 염증 억제 성분들은 가공육ㆍ적색육의 발암 성분의 독성을 완화한다. 가공육의 ‘아킬레스건’인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을 줄이는 데도 김치 유산균이 효과적이란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br/> <br/>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자 떫은 맛 성분인 카테킨이 암 예방을 돕는다. 미국에선 녹차에서 EGCG(카테킨의 일종)란 성분을 추출해 암 치료ㆍ예방에 사용한다. 녹차가 암 예방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 동물실험과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카테킨은 암의 성장을 늦추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 미국에선 마늘의 SAMC와 함께 녹차의 EGCG를 천연물 항암제로 개발 중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6.txt

제목: 현대약품, 아슬란과 ASLAN001 개발 및 상용화 계약 체결  
날짜: 201511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921798  
ID: 01100701.201601080259217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현대약품(대표이사 김영학)은 아슬란(ASLAN)과 ASLAN001(varlitinib) 담도암 치료제의 국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현대약품과 계약을 맺은 아슬란은 아시아에 널리 퍼진 종양 유형과 관련된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다. 글로벌 의약품 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타이완과 중국에서 임상개발을 수행 및 지원하고 있다. <br/> <br/>아슬란은 현재 위암과 유방암, 그리고 염증성 질환 등 4개의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ASLAN001은 pan-HER 억제제로 담도암, 유방암, 위암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현대약품은 아슬란과 ASLAN001의 담도암 치료제의 국내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br/> <br/>ASLAN001은 티로신 키나아제 저해제로 항암 표적 치료제이며, 유방암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임상2상 시험을 시작했다. 올해 8월에는 미국 FDA로부터 담도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br/> <br/>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담도암 및 위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어 매해 4000~3만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 나라다. 특히 현재까지 담도암은 치료제가 없고 예후가 매우 나쁜 암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이 담도암 등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내 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 <br/>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현대약품과 아슬란은 ASLAN00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담도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올해 안에 국내 담도암 임상시험을 착수진행 한다는 목표다. <br/> <br/>또한 현대약품은 ASLAN001의 국내 위암과 유방암 개발 및 상용화에 있어서도 우선협상 권한을 가지게 되며, 추후 아슬란과 함께 국내 ASLAN001의 협업 마케팅을 진행할 권리 역시 얻게 되었다. <br/> <br/>아슬란 칼 퍼스(Carl Firth) 대표이사는 "위암과 담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ASLAN001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은 제약업계를 비롯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약기업인 현대약품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수년간 축적해온 현대약품의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및 혁신적 전략이 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충분히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현대약품 김영학 사장은 "이전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함이 증명된 담도암 치료제 개발을 아슬란과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이번 개발이 국내 암환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지난 50년 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힘써온 현대약품의 연구·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현대약품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기업 경영방침 아래 고혈압치료제와 호흡기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중추신경계질환치료제, 여성질환치료제, 항암치료제 등 200여 개의 전문의약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 기업이다. 전문의약품 이외에도 일반의약품인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벌레물림치료제 '버물리' 등을 비롯해 국내 최초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 등의 대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7.txt

제목: 日 NEC, 팔을 자유롭게 하는 '가상 키패드' 개발  
날짜: 2015110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50401  
ID: 01100701.201601080251504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NEC가 팔을 가상 키보드화한  ‘암 키패드(ARmKeypad)’를 개발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br/> <br/>암 키패드는 웨어러블 글라스와 워치와 연동하는 새로운 컨트롤 기술로 팔에 가상 키보드를 표시해 정밀한 터치와 입력을 가능케 해 핸즈프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br/> <br/>사용은 가상 키보드가 팔에 표시되는 형태로 입력·선택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컨트롤러 장비를 꺼내거나 손에 들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br/> <br/>업체 측은 “이 키패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NEC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8.txt

제목: 세계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로 1살 여아 암 잡았다  
날짜: 20151106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36337  
ID: 01100701.20160108025136337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왼쪽부터)리사 폴리(엄마), 라일라, 라일라의 언니, 애슐리 리처드(아빠)영국에서 1세 여아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genetic editing)을 통해 암치료에 성공했다. <br/> <br/>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생후 17개월된 여아 라일라 리처드가 인간에게는 처음 적용한 ‘유전자 편집’치료법으로 암을 이겨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라일라는 태어난지 14주만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거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의사들은 라일라의 부모에게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라일라의 부모는 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엄마 폴리는 의사들에게 병원에서 막 개발된 최신 치료법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유전자 편집’이라고 불리는 이 치료법은 분자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편집하고 체내에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게 한다. 지금까지 실험쥐에만 적용됐으며 사람에게 쓰인 적은 없다. <br/> <br/>라일라의 아빠 애슐리 리처드는 “<span class='quot0'>이 치료법이 사람한테는 한번도 쓰인 적이 없는 기술이라는 점이 가장 무서웠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 <br/>극약처방을 쓴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엄마 폴리는 “<span class='quot1'>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쏟아냈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는 우리가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이 이 새 치료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라일라가 앞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의사들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며 라일라의 치료 성공에 놀란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29.txt

제목: "기생충, 사람에게 '암' 퍼트린다고?"  
날짜: 2015110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5126156  
ID: 01100701.2016010802512615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인체 내 기생충이 암에 걸린 다음 이를 사람의 몸에 퍼뜨리고, 종양을 유발하는 현상이 발견돼 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AFP통신과 BBC 방송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기생충에 의한 암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br/> <br/>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질병을 찾아냈다"며 "사람의 몸에서 성장한 촌충(tapeworm)이 암을 얻어 이를 사람에게 퍼뜨려서 종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이 촌충은 세계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것이고 에이즈(HIV)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도 많다"며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CDC의 연구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한 40대 남성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띠고 있었는데 2013년 1월 기침·고열·피로·체중감량 등 증세로 병원을 찾아 폐암과 간암 등 암 진단을 받았다. <br/> <br/>조직 검사에서 인간의 암과 유사하나 실제로는 인간의 것이 아닌 특이한 병변이 나왔고, CDC는 수차례 실험 끝에 이 남성의 종양에서 일종의 매우 작은 촌충인 소형조충(Hymenolepis nana)의 유전자(DNA)를 발견했다. 남성은 곧 사망했다. <br/> <br/>CDC는 "분명히 암처럼 보이는 것이었지만 통상적인 인간 암세포보다 10배는 작은 크기였다"고 설명했다. <br/> <br/>세계적으로 약 750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조충은 인체 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촌충으로 쥐의 배설물이 묻은 음식을 먹거나 감염자의 분비물을 흡입함으로써 감염된다. <br/> <br/>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CDC는 "에이즈 보균자나 스테로이드 복용자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의 몸에서는 소형조충이 잘 자란다"고 밝혔다. <br/> <br/>CDC는 "에이즈와 소형조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후진국에서는 소형조충의 악성 변이가 단순한 인간의 암으로 오진됐을 수도 있다"며 이런 증상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br/> <br/>CDC는 화학 요법 등 기존 암 치료가 촌충에 의한 암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br/> <br/>소형조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씻고, 채소나 과일은 씻어서 껍질을 깎거나 조리한 다음 먹어야 한다. <br/> <br/>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실렸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0.txt

제목: 한국인 적색육·가공육 과다 섭취, 남성 암 발생 위험 높였다  
날짜: 2015110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823130  
ID: 01100701.2016010802482313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 등 붉은 색 고기(적색육)의 과다 섭취가 우리나라 남성의 전체 암 발생 위험을 41%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지난해 외국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br/> <br/>하지만 이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경우 적색육 과다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색육의 과다 섭취와 대장암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br/> <br/>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위경애 임상영양실장팀이 2004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암 검진 참여자(2만6815명)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3일 식사기록을 제출한 8024명을 대상으로 암 역학(疫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br/> <br/>연구결과(한국에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적색육 소비가 전반적인 암 위험 증가와 관련 있음)는 지난해 영국영양저널(BJN)에 소개됐다. <br/> <br/>위경애 실장팀은 국가 암 등록사업 자료·암센터 전자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최종 연구 대상자 8024명 중 387명이 2013년 9월24일 현재 암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암 환자와 암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사람의 적색육·나트륨 섭취량, 비만 여부 등을 비교했다. <br/> <br/>위 실장팀은 전체 연구 대상(8024명)을 하루 적색육 섭취량 43g 이상인 그룹과 43g 미만인 그룹으로 나눴다. 연구 기관 중 하루 적색육 섭취 43g 이상인 그룹(3128명)에선 165명, 43g 미만인 그룹(4896명)에선 222명이 암에 걸렸다. <br/> <br/>남성(4402명)의 경우 1일 적색육 섭취 43g 이상인 남성의 전체 암 발생률이 43g 미만인 남성보다 41% 높았다. 하지만 여성(3622명)에선 하루 적색육 섭취 43g 이상인 여성과 43g 미만인 여성 사이에서 전체 암 발생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br/> <br/>위경애 실장은 "1일 적색육 섭취 43g 이상 그룹에 속한 남성의 하루 평균 적색육 섭취량은 85.3g으로, 43g 이상 그룹에 속한 여성의 하루 평균 섭취량(59.5g)보다 훨씬 많은 것이 남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원인으로 여겨진다"며 "남성의 잦은 회식·고기 선호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g, 적색육은 61.5g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가공육·적색육 하루 섭취 권장량은 각각 70g, 65∼100g이다. <br/> <br/>위 실장은 "이번 연구에서 적색육 섭취가 많은 남성은 채소, 과일은 적게 먹고 음주와 흡연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남성이 적색육 과다 섭취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려면 담배부터 끊고 채소, 과일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또한 위 실장팀은 가공육과 암의 관계도 살폈다. 가공육 섭취가 많은 남성이 적은 남성보다 암 발생 위험이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위 실장은 "적색육과 가공육을 과다 섭취하는 남성은 암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연구에선 나트륨을 매일 4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위암 발생 위험이 4g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2.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자는 BMI 25 미만인 사람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1.56배 높았다. <br/> <br/>한국인을 대상으로 고기와 암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2003년 이후 모두 11편이 발표됐다. 이중 9편은 닭고기와 생선 등을 포함한 모든 고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적색육을 따로 떼어 연구한 논문은 2편뿐이다. 이중 1편이 위 실장팀의 코호트(cohort, 추적 조사)연구 논문이다. <br/> <br/>다른 1편은 지난 4월 한국임상영양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클리니컬 뉴트리션 리서치(CNR)'에 발표된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이승민 교수팀의 암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대조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하는 코호트 연구 결과가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1.txt

제목: 가공육·적색육 발암 가능성 낮춰주는 음식 '김치'  
날짜: 2015110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51931  
ID: 01100701.2016010802425193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가공육과 적색육으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낮춰주는 최고의 식품은 무엇일까. 한국인의 대표 반찬거리인 김치가 첫 번째 후보라는 평가가 국내 유명 소화기내과 의사와 식품영양 전문 학자에 의해 내려졌다. <br/> <br/>지난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치 유산균과 면역력' 기자 간담회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는 "암은 염증에서 출발하며, 누적된 염증 물질이 유전자(DNA) 손상을 일으켜 암으로 진행된다"며 "식물성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즐겨 먹으면 장내(腸內) 염증은 물론 암의 발전·전이 과정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김치에 든 유산균이 대장암 예방은 물론 초기 대장암부터 진행 암까지 억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 미생물)란 것이다. <br/> <br/>이 교수는 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대장암 유발 가능성을 지적한 가공육, 적색육을 섭취할 때 김치를 곁들이면 발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김치엔 유산균 외에 역시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비타민 C, 폴리페놀, 칼슘 등 최근 IARC가 가공육·적색육의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한 물질들도 모두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br/> <br/>특히 김치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마늘·생강 등에 염증 억제 성분들이 다량 포함돼, 가공육과 적색육의 PAH·HCA 등 일부 발암 성분의 독성을 상쇄해준다는 것이다. <br/> <br/>이 교수는 또 "20∼30대 젊은 세대에서 크론병, 만성 궤양성 대장염이 최근 크게 늘었다"며 "이들 세대에서 김치 섭취량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br/> <br/>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는 "김치 유산균은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을 유도하는 효소의 생성을 차단하며, 발암물질에 달라붙어 함께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설된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소시지 등 가공육의 '아킬레스건'인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을 줄이는 데도 김치 유산균이 효과적이란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br/> <br/>박 교수는 "연구를 통해 김치 유산균이 배추에 든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질산염의 1/500 가량만 아질산염으로 변환), 아질산염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채소·가공육 등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식품 중 아민이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이 생기는 데 김치엔 니트로스아민이 거의 없는 것도 김치 유산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br/> <br/>김치 유산균이 면역을 조절해 스트레스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는 "김치 유산균은 뇌와 장에서 '행복 물질'이자 '숙면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량을 증가시킨다"며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덜어주고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이밖에 김치가 살을 빼는 데 유익한 이유도 언급됐다.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백현동 교수는 "김치의 다이어트 효과는 저열량 식품(100g당 18㎉)인데다 식이섬유, 유산균, 유기산 덕분"이라며 "김치 유산균을 쥐에게 먹였더니 다이어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r/> <br/>독일의 양배추 발효 음식인 '자우어크라우트'(신맛이 나는 양배추란 뜻)보다 김치가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의견도 나왔다. <br/> <br/>30여 년간 유산균을 연구한 한동대 생명과학부 윌헬름 홀자펠 교수는 "자우어크라우트는 익혀 먹어 유익균이 대부분 파괴되지만 김치는 대개 생으로 먹으므로 유익균이 그대로 장내로 들어온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에 대해 '다이어트에 좋다', '면역 증진을 돕는다'는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2.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눈과 입 모두 즐거운 간식 '블루베리 파르페'  
날짜: 2015110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28543  
ID: 01100701.2016010802422854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 중 하나로 회복 및 정진, 노화방지 및 치매예방, 항산화작용,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 블루베리의 파란색 색소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체내의 산화작용을 막고,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또 면역력 증진에도 좋다. 이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다. <br/>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플레인 요구르트 4개 ▲블루베리 200g ▲아몬드 콘푸레이크 300g <br/> <br/>만드는 법 <br/> <br/>1. 컵에 아몬드 콘푸레이크, 플레인 요구르트, 블루베리 순으로 채워준다. <br/>2. 1과 같이 여러 개를 만든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3.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팀,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우수구연상  
날짜: 2015110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214493  
ID: 01100701.20160108024214493  
카테고리: 사회  
본문: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 <br/>이대목동병원은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팀(정혜원, 서지현 전공의)이 최근 개최된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에서 '탄성초음파 영상에 의하여 측정된 탄력지수와 림프부종의 단계간의 관계'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탄성초음파'란 물체가 외부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했다가 다시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탄성(彈性)의 원리를 이용해 정상 조직과 병변 조직을 구분하는 영상검사법이다. <br/> <br/>배하석 교수팀은 이러한 탄성초음파를 이용해 림프부종 환자에서 림프 부종 단계가 증가할수록 탄력지수가 유의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br/> <br/>배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탄성초음파를 이용한 림프부종의 수치화된 단계 구분과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해 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한편 EBS 명의에 출연하기도 한 배하석 교수는 근골격계 통증 및 암 재활 치료의 명의로 현재 대한림프부종학회 및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암재활의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환자 진료와 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4.txt

제목: 차의과학대, 암 유발 시키는 단백질(14-3-3 감마) 분해 조절 기전 규명  
날짜: 2015110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932361  
ID: 01100701.2016010802393236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 <br/>차의과학대학교 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은 최근 암 유발 관련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규명해 암 연구 분야 학술지인옹코타겟(Oncotarget)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번 논문은 암유발단백질 중의 하나인 ‘14-3-3 감마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분자학적 수준에서 밝힌 것으로 지난 6월에 열린 ‘2015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해당 논문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우수연제상을 수상한 바 있다. <br/> <br/> ‘14-3-3 감마 단백질’은 세포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보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 암이 유발된다.이번 연구내용은 암유발단백질인 14-3-3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분해조절 효소(USP37)를 발굴하여 이들의 조절을 규명한 것이다. 또한 14-3-3 감마 단백질은 혈액암과도 관련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토대로 이번 연구는 향후 혈액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br/> <br/> 한편 백광현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국외에서 수상함으로써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5.txt

제목: [제테크 브리핑] 중대질병 진단시 가입액 80% 치료비로 외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4027661  
ID: 01100701.2016010802402766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중대질병 진단시 가입액 80% 치료비로 <br/> <br/>교보생명은 해지환급금 적립 방식을 바꿔 보험료 부담을 낮춘 ‘내 마음 같은 교보CI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중대질병을 진단받거나 중증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병에 걸리면 가입 금액의 80%를 치료비로 지급한다. 아울러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쌓아 보증하는 기존의 종신보험이나 CI보험과 달리 해지환급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 보험료를 7∼19% 낮췄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해지환급금이 기존 상품보다 적어질 수 있지만 같은 보장이라도 더 저렴한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br/> <br/>해피포인트 추가적립 모바일카드 출시 <br/> <br/>하나카드는 식품기업 SPC그룹과 제휴하여 해피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는 모바일카드 ‘해피 모비(Happy mobi·사진)’를 출시했다. 해피 모비로 전국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기존 하나포인트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5% 적립과 함께 추가 15%를 더해 최대 20% 적립(월 4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 시 사용하면 해외 이용금액의 5%를 해피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배송대행업체 ‘한진 이하넥스(www.ehanex.com)’ 이용 요금을 20% 깎아준다. 하나카드는 해피 모비 출시 기념으로 이번달 말까지 해피포인트 가맹점 혹은 해피포인트 앱(APP)에서 하나 해피 모비(Happy mobi)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해피포인트 1만점을 추가 적립해준다. <br/> <br/>특약 없앤 인터넷 전용 종신보험 <br/> <br/>KB생명보험은 인터넷 전용보험인 ‘무배당 KB 착한 종신보험’과 ‘KB 착한 어린이보험(사진)’을 출시했다. KB 착한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특약을 없애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 보장에 집중한 상품이다. KB 착한 어린이보험은 암, 5대 장기이식, 조혈모세포이식, 각종 수술, 질병 입원 등으로 병원 갈 일 많은 아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개발된 상품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6.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수지상세포 암백신 임상...'표준치료 한계' 극복  
날짜: 2015110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3527225  
ID: 01100701.201601080235272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제4의 암치료법이라 불리며 면역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아베종양내과의 '다가(多?)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ABeVax)'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 표준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존 수지상세포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수지상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세포에 지시를 내리는 총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2011년 캐나다 랄프 슈타인만 교수가 발견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지난해 7월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원장이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이라는 한 차원 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특허제5577472호). <br/> <br/>아베종양내과와 공동연구 중인 한국기업 선진바이오텍 양동근 대표에 따르면 이 암치료제는 1~2종류의 펩타이드만을 적용하는 기존의 수지상세포치료와 달리,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를 한 후 개인에 맞는 암항원인 펩타이드를 4~6종류 추가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였다. <br/> <br/>또한 기존 치료의 경우 9~1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짧은 펩타이드로 킬러T세포만을 활성화시켰다면,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암질환에 따라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를 자체기술로 장쇄 펩타이드로 만들어 모든 암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br/> <br/>이 장쇄 펩타이드는 킬러T세포뿐 아니라 헬퍼T세포와 메모리T세포까지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백신치료제라고 양동근 대표는 설명한다. <br/> <br/>이뿐만 아니다. 다가 신 수지상세포는 성분채혈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환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줄였다고 한다. 즉 수지상세포 치료의 기본인 단구(單球)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성분채혈과정이 필요한데, 아베종양내과는 약 25ml의 소량채혈로 1회 백신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환자의 심적 고통을 줄인 것이다. <br/> <br/>아베종양내과는 "단구를 대량으로 증식시켜 수지상세포로 분화시키는 특허 기술력이 있어, 미성숙한 수지상세포에 암 항원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를 입력시켜 암을 치료한다"면서 "이 치료제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관해 되고, 진행성 암의 커다란 종양이 작아지는 등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r/> <br/>실제 이 병원은 전이·재발암 환자에게 하이브리드 치료(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New NK면역세포)를 한 결과, 74.4%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21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 원장은 수지상세포 치료에 암항원으로 펩타이드를 사용할 경우, 항원제시세포가 정확히 항원을 표시하여 항원특이적인 CTL(세포상해성T림프구)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항원특이적 CTL의 활성화를 분석하는 수단으로는 CTL이 활성화될 때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을 검출하는 ELISPOT법(항체생산 또는 각종 사이토카인 생산 세포수를 측정하는법)이 적용됐는데, 이는 사이토카인과 항원특이항체를 분비하는 단일세포레벨로 고감도검출이 가능하기에 면역반응실험 또는 면역세포의 기능실험 등에 사용된다. <br/> <br/>이날 아베 원장은 각종 암항원을 추가한 수지상세포치료에 펩타이드의 특이적 활성화 CTL의 검출을 ELISPOT법으로 검사했으며, 암항원은 New WT1과 NY-ESO1, MUC1, Survivin 등을 사용했다. <br/> <br/>적용결과 암항원을 추가한 거의 모든 수지상세포 치료제에서 반응하는 특이적 CTL의 활성화를 검출할 수 있었다고 당시 아베 원장은 설명했다. <br/> <br/>이 같은 결과를 놓고 선진바이오텍 양동근 대표는 "다가 신 수지상세포 치료제가 특이적 CTL을 유도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MHC 클래스1이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에서 분비된 인터페론감마 뿐만 아니라 MHC 클래스2가 활성화됐을 때 헬퍼T세포에서 분비되는 IL-4도 다수 검출되었으며, MHC 클래스1뿐만 아니라 MHC클레스2도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그는 "아베종양내과의 암백신 치료는 환자 본인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4~6종류의 암항원을 추가적로 사용하며, 킬러T세포와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인터페론감마, IL-4가 증가하여 암의 진행도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유소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7.txt

제목: 서울대학교암병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날짜: 2015103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603606  
ID: 01100701.20160108022603606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br/>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지난 29일 낮 12시 암병원 2층 서성환홀에서 제4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원활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환우 및 강사 자원봉사자 25명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 <br/>암정보교육센터는 암 정보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정서적지지 등 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암 치료 중', '장기 생존', '말기' 등 각 암 여정 별로 필요한 내용을 참여형·강의형·암환우 주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br/> <br/>이 중 각종 신체활동·예술치료 등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인 강사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1:1 상담·선배 암환우와의 대화와 같은 암환우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은 환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br/> <br/>이에 암정보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암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봉사자들의 성취감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r/> <br/>'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역시 이 같은 지원의 하나로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특히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과 암정보교육센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암환자 대응 시 주의사항,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암 경험자인 환우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재발암 및 2차암 예방, 암 경험자 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br/> <br/>김태유 서울대학교암병원장은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뜻깊고 아름다운 활동"이라며 "재능과 경험을 암환자들을 위해 나누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암병원이 더욱 빛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8.txt

제목: 가공육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이유는?  
날짜: 201510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2131756  
ID: 01100701.20160108022131756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br/> <br/> 가공육식품이란 제품의 맛과 보존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발효시키거나 훈제 처리된 고기를 가공육이라 총칭한다. 또한, 대부분 가공육은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및 닭고기에 동물의 내장과 피 같은 부산물이 포함되어있다. 예로 들자면 가공육식품으로 프랑크프루트 햄, 쏘세지, 육포, 캔에 든 스팸, 핫도그 및 콘도그가 있다. <br/> <br/> 이러한 가공육식품은 집에서 직접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제조사는 제품을 만들 때 천연 또는 화학적 첨가물을 추가한다. <br/> <br/> 지난 28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가공육식품에 포함된 질산염(Nitrates) 과 아질산염 (Nitrites) 그리고 헴철(Haem iron) 및 고온조리법이 암을 유발시켜 문제라고 지적했다. <br/> <br/> ◆질산염(Nitrates) 과 아질산염(Nitrites) <br/> <br/> 가공육식품은 보존기관을 연장하기 위해 첨가된 소금의 주요 성분인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과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이 포함되어 있다. 인체가 가공육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발암물질의 하나인 니트로사민(nitrosamines) 성분에서 유래한 아질산염이 인체의 DNA을 손상시킨다. 또한, 이 물질은 급성백혈병의 발병률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헴 철(Haem iron) <br/> <br/> 붉은 고기는 헤모글로빈 일종인 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헤모글로빈은 심장에서 신체의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분자로 성장과 정상세포가 동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암연구재단(World Cancer Research Fund )은 헴이 대장의 내벽을 손상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 지난 2011년 암예방치료저널(Journal Cancer Prevention Treatment)은 붉은 고기가 대장에서 생기는 암을 일으키는 병변(lesions),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br/> <br/>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붉은 고기의 헴 철분이 발암물질인 엔트로소 화합물(N-nitroso compounds) 형성을 유발해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고온 조리법(High temperatures) <br/> <br/> 사람들이 고기를 요리할 때 주로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거나, 볶는다. 이러한 요리법은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문제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새로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고기가 탈 때 HCA(heterocyclic amines)와 다륜성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HAs)등의 발암물질이 만들어 진다. <br/> <br/> 직화구이 시 생성되는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이다. 후추를 쳐 구우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한다. 가공육은 물론 적색육류나 백색육류을 불에 구울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바비큐로 고기를 요리해 먹는다면 태우지 말고 까맣게 탄 부분은 제거한 후 먹어야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39.txt

제목: ‘표적 항암제 부작용 원인’ 세포 상호작용 규명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819539  
ID: 01100701.201601080218195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표적 항암제를 써도 암이 퍼지는 내성문제가 일어나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로 암의 내성을 해결하는 데 한발 다가서 차세대 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표적 항암제의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br/> <br/>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호영(사진) 서울대 약대 교수팀은 종양과 이 종양 주변에 모인 정상세포(미세환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표적 항암제의 암 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문제의 상호작용을 억제해 내성으로 인한 암 재발을 억제할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하게 됐다</span>”고 자평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0.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암맞춤치료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 성료  
날짜: 20151028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657364  
ID: 01100701.201601080216573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지난 23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암맞춤치료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은 '암 맞춤치료 실용화 : 현안과 해결책'을 주제로 정밀의료와 중개연구 분야에서의 최신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 첫번째 세션에서는 맞춤치료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인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 기법을 임상에서 어떻게 향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br/> <br/> 두번째 세션에서는 다양한 맞춤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맞춤항암치료제의 치료확률을 높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r/> <br/> 세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PD-1 억제제를 위시한 면역항암치료제의 임상적용 최적화를 위한 토론이 있었다. <br/> <br/>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근 유전체연구를 통하여 발굴되고 있는 많은 암유전변이들을 어떻게 그 의미를 검증하고, 새로운 표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br/> <br/> 김태유 암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암 정밀의료 구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 <br/>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정밀의료를 실용화하고자 지난 4월 암맞춤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암맞춤치료를 위해 국내 호발암의 유전자 변화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바이오마커 진단법 개발과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1.txt

제목: 햄이 발암물질, "직장암 위험 18% ↑, 붉은 고기도 가능성 있어"..."국내 식품업계 긴장"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349174  
ID: 01100701.201601080213491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WHO 소시지 햄햄이 발암물질, "직장암 위험 18% ↑, 붉은 고기도 가능성 있어"..."국내 식품업계 긴장" <br/> <br/>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 햄, 베이컨 등 육가공식품을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 한편 국내 식품업계도 이번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이 선진국보다 적은데다 오히려 육류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제품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육가공업체인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등은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br/> <br/> 한국육가공협회 관계자는 "한국인의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WHO의 위험 섭취량인 18㎏보다 훨씬 적은 4.4㎏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성있는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2.txt

제목: [가공육 발암물질 파문] 햄·소시지 듬뿍 들어간 부대찌개 어떡하죠?  
날짜: 2015102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26479  
ID: 01100701.20160108021126479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국내 가공육 업계는 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많지 않아 이번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발표로 가공육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br/> <br/>WHO는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18㎏를 먹는 셈인데, 한국인의 가공육 소비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연간 4.4㎏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만큼 육가공협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br/> <br/>육가공협회는 "현재 국내 가공육 소비 수준을 고려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이번 발표로 육류 소비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호도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육가공협회는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명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는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번 연구 결과에 당혹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br/> <br/>업계 한 관계자는 "가공육 소비량이 많은 서구권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내 섭취량은 유럽이나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며 "어떤 식품이든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br/> <br/>또 다른 관계자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발암물질이라니 당황스럽다"며 "공신력 있는 기구의 발표여서 판매 등에 영향이 있을 텐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br/> <br/>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br/> <br/>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6일(현지시간)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br/> <br/>IARC는 소시지나 햄 등 일정한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br/> <br/>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과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br/> <br/>그렇다면 가공육은 정말 먹어선 안되는 것일까. <br/> <br/>먼저 WHO가 규정하는 가공육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가공육은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훈제, 염장, 큐어링(curing·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소금 혹은 화학물질 추가해 맛을 변형시킨 육류제품이다. 따라서 단순히 분쇄기로 얇게 소고기 등을 썰었다고 해서 가공육인 것은 아니다. <br/> <br/>가공육은 피와 근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색소)와 미오글로빈(색소단백)이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흰 고기보다 어두운 색을 띤다. <br/> <br/>왜 가공육은 암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일까. <br/> <br/>발암의심 화학물질은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물질은 N-니트로소와 미세먼지의 주성분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라고 불리는 독소를 포함한다. 굽거나 튀기는 등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익힐 때, 특히 바비큐 방식으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생길 수 있다. <br/> <br/>그러나 WHO 전문가는 가공육 조리시 암 발생 위험에 대해 “<span class='quot3'>현재 충분히 연구된 단계는 아니다</span>”고 말한다. <br/> <br/>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br/> <br/>이 같은 소식은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br/> <br/>누리꾼 A씨는 "소가 돼야겠다. 고기도 안돼, 방사능 찝찝한 생선도 안돼. 아 먹을거리 정말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br/> <br/>B씨는 "몸에 나쁜 건 아는데 저렴하고 맛있어서 포기가 힘들다"면서 "성인이야 그렇다 치고 다 애들 반찬으로 자주 올라가는 건데 주의해야겠다"고 전했다. <br/> <br/>C씨는 "이런 기사 보고 부대찌개 먹는 사람들 어쩌지? 이번에 타격받는 업체들 많겠다. 햄 소시지 베이컨 안 들어간 요리가 별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br/> <br/>D씨는 "소시지를 밥 먹듯이 많이 먹는 독일인들은 뭐 죄다 암 걸려 죽었겠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 없니"라고 반문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3.txt

제목: 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로 규정? "WHO 보고서에 국내 식품업계 긴장"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207764  
ID: 01100701.201601080212077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WHO 소시지 햄 (사진= YTN)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로 규정? "WHO 보고서에 국내 식품업계 긴장" <br/> <br/>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 햄, 베이컨 등 육가공식품을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 한편 국내 식품업계도 이번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이 선진국보다 적은데다 오히려 육류 전체가 건강에 해로운 제품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육가공업체인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등은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br/> <br/> 한국육가공협회 관계자는 "한국인의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WHO의 위험 섭취량인 18㎏보다 훨씬 적은 4.4㎏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성있는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4.txt

제목: WHO 소시지 햄, “육가공식품 섭취 대장암 유발"…위험성 어느 정도?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30910  
ID: 01100701.20160108021130910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WHO 소시지 햄 (사진= MBN)WHO 소시지 햄, “육가공식품 섭취 대장암 유발"…위험성 어느 정도? <br/> <br/> WHO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5.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 오픈  
날짜: 201510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10772  
ID: 01100701.2016010802111077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 <br/> <br/>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 암치료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br/> <br/>기존의 암 치료 방식이 같은 암이면 동일한 치료방법을 택하는 것이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은 환자마다 유전체를 분석해 달리 치료하는 방식을 택했다. <br/> <br/>암환자 내원 시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꼭 맞는 표적항암제를 찾아내는 한편, 그에 따른 혁신 신약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br/> <br/>실제로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62세 남성 안모씨는 소화불량 탓에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위암 4기 판정을 받아 손쓰기 힘든 상태였다. <br/> <br/>통상적 항암치료로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삼성서울병 유전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릭토 유전자 증폭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아 투여한 결과 현재 뱃속에 자리 잡았던 암이 서서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병원측에 따르면 안 씨 같은 암 환자의 경우 삼성유전체연구소의 '캔서스캔(CancerSCAN)'이란 암유전체진단키트를 이용해 암 속성부터 파악하게 된다. <br/> <br/>한번에 381개에 달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항암제의 표적으로 알려진 돌연변이 500여종이 있는지 찾는 작업이다. 2~3주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본격적으로 표적치료제가 투여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쓰이는 표적치료제는 10여 개에 불과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제약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표적치료제를 20개 이상 확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넓혔다. <br/> <br/>특히 혈액종양내과 이지연·김승태 교수팀이 주도하고 있는 '전이성 위암 환자의 유전체 기반 임상시험'이 한창이어서 향후 2년간 200명의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유전체 기반의 신약이 투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손태성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장(소화기외과)은 "위암분야에서 유전체에 기반을 둔 포괄적 임상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개인 맞춤 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6.txt

제목: 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 경고..매일 50ｇ 가공육 먹으면 직장암 위험 18%↑  
날짜: 2015102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1108912  
ID: 01100701.2016010802110891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WHO 소시지 햄 (사진= MBN)WHO 소시지 햄, 발암물질 경고..매일 50ｇ 가공육 먹으면 직장암 위험 18%↑ <br/> <br/> WHO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섭취가 대장암을 유발하고,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고 AFP 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건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육류 섭취 제한 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br/> <br/>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평가한 WHO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ｇ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r/> <br/>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훈제하는 등 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핫도그,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등이 있다. 이들 가공육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br/> <br/> IARC는 1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인 ‘글로벌 버드 오브 디지즈 프로젝트(GBD: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고기 섭취를 통해 매년 3만 4천 명이 사망하지만, 담배는 100만 명, 알코올 60만 명, 대기오염으로 20만 명이 숨진다는 비교를 제시했다. <br/> <br/> 이 보고서는 또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 직장암은 물론 췌장과 전립선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고기에는 소·돼지·양·말·염소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br/> <br/> 붉은 고기를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비큐나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때처럼 높은 온도나 직접 뜨거운 불판이나 불꽃에 접촉하면서 조리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된다. 그러나 요리방법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r/> <br/>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같은 1군 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br/> <br/> 한편 영국 식품연구소 이안 존슨 박사는 “<span class='quot0'>가공육 섭취와 장암 발병의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발병 메커니즘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이컨과 소시지를 담배 연기에 필적하는 위험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7.txt

제목: 맥주 벌컥벌컥 마셨다간… 통풍 습격에 “악”  
날짜: 2015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903013  
ID: 01100701.2016010802090301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저술가인 벤저민 프랭클린. 이 역사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통풍’을 앓았다는 것이다. <br/> <br/>통풍이란 관절 조직에 요산 결정이 축적돼 생기는 병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파 통풍(痛風)으로 불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 통풍(gout)은 라틴어의 침(gutta)에서 유래된 말로 13세기 악마의 침이 관절에 침투해 생긴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통풍은 극심한 관절 통증을 동반한다. 문제는 이 통풍 환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풍의 원인과 예방·치료법을 알아본다. <br/> <br/>◆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통풍 증가 <br/> <br/>한국의 통풍 진료 인원은 2007년 16만3000명에서 2011년 24만명으로 5년간 약 47%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가파르다. 이 같은 현상은 식습관의 변화와 수명 연장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 증가와도 관련돼 있다. <br/> <br/>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의 최종 대사물질이다. 퓨린은 음식물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거나 우리 몸의 세포가 수명을 다한 뒤 만들어진다. 사람의 몸에는 요산 분해 효소가 없으므로 신장과 위장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퓨린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선천적으로 퓨린 대사에 이상이 있거나, 암치료 등으로 세포가 한꺼번에 많이 죽을 때는 체내 요산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각종 관절과 주변 인대 또는 피부에 요산 결정체가 쌓이는 것이다.  <br/> <br/>혈액 내 요산이 정상보다 높은 고요산혈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급성 통풍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주로 하지 관절에 나타나며 같은 농도여도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이 발생하기 쉽다. 보통 혈중 요산 농도가 7㎎/㎗을 넘으면 고요산혈증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통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br/> <br/>통풍 발병률은 혈중 요산 농도가 6.9㎎/㎗ 이하일 때 0.1%에 불과하지만, 농도가 9.0∼9.9㎎/㎗일 때 4.3%, 9.9㎎/㎗ 이상일 때 7%로 높아진다. <br/> <br/>증상이 사라졌다가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 따르면 국내 고요산혈증은 남성 15% 여성 4%이며, 무증상 고요산혈증 환자의 5% 정도가 급성 통풍관절염으로 진행된다. <br/> <br/>◆식습관·생활습관 관리로 통풍 예방 <br/> <br/>요산 수치의 관리는 통풍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핵심이다. 비만, 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만성신장병, 탈수 등은 모두 통풍 위험인자다.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 있기 때문에 식습관 변화로 퓨린의 과다 섭취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r/> <br/>퓨린은 주류 중에서도 맥주, 조개, 고등어, 정어리, 멸치 등 등푸른 생선, 새우, 육류, 육류의 내장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몇년 째 야식으로 열풍인 ‘치맥’(치킨+맥주)이 통풍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 이유도 퓨린을 과다 섭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퓨린이 과도한 식품을 멀리해야 한다. <br/> <br/>특히 맥주는 요산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시 혈액 속으로 끌어들여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br/> <br/>반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이로운 음식도 있다. 곡류와 감자, 고구마, 유제품, 과일, 채소, 달걀, 해조류 등 지방이 적은 식품들이다.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셔 요산 배출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식이요법과 함께 병원치료를 동반해야 통풍을 다스릴 수 있다. 급성 통풍의 경우 진통소염제 등 약물로 치료하며 만성 통풍으로 발전하면 통풍 예방 약제나 요산저하제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br/> <br/>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span class='quot0'>통풍 발작이 시작될 경우에는 다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고 얼음찜질을 한 뒤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철저한 식습관·생활습관 관리와 병원치료를 병행한다면 통풍은 나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8.txt

제목: 한국야쿠르트 “바이오리브 프로바이오틱스로 성장기 아이 장 건강 챙기자”  
날짜: 2015102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20111725  
ID: 01100701.201601080201117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한국야쿠르트가 성장기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바이오리브 프로바이오틱스를 강조했다. <br/> <br/> 업계에 따르면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면역 세포가 70% 이상 분포하는 곳이다. 그만큼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br/> <br/>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장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배변 횟수가 줄어들고 변이 굵고 딱딱해지면 소아 변비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복통과 치질, 대장염 등 각종 대장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br/> <br/> 장에는 100종 이상의 장내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을 총칭하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리스어로 ‘생명을 위한(for life)’이란 의미로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br/> <br/> 소화 기능 개선, 암 예방, 노화 방지, 피부 건강, 비만 예방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r/> <br/> 한국야쿠르트에서 출시한 바이오리브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야쿠르트의 특허유산균과 임상으로 증명된 8종의 100억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으로 서양인에 비해 1m가 더 긴 한국인의 장 체질에 맞춰 설계되었다. <br/> <br/> 특히, 한국야쿠르트는 생균의 생존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집중했다. 상온에서 유통•보관되면서 생균이 사멸되는 점을 고려해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타사제품 대비 훨씬 짧은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br/> <br/> 이와 함께 제품생산부터 보관, 유통, 고객 배송까지 철저한 냉장유통 시스템을 선택했다. 그 결과 식약처에서 정한 최대 보증균수인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마지막 한포까지 보증한다. <br/> <br/>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49.txt

제목: 제주조릿대, 만성대장염·대장암 등에 효과  
날짜: 20151022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420736  
ID: 01100701.201601080154207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주조릿대가 만성대장염과 대장암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조릿대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광범위하게 자생하는 벼과의 토종식물로 다당류와 아미노산, 폴리페놀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br/> <br/>농촌진흥청은 22일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주조릿대의 대장 건강 개선 기능성 규명 및 효능 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주조릿대가 장내 염증을 완화하고 대장암 줄기세포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이 제주조릿대의 잎 추출물을 염증 부위에 처리한 결과 염증성 물질인 산화질소, 프로스타글란딘 E2, 인터루킨-6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정상 쥐와 만성염증성 장염 쥐, 만성염증성 장염 유도 후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먹인 쥐로 나눠 대장염 발생을 확인해보니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먹인 쥐가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대장염 발생이 억제됐고, 대장 조직의 손상이 약 40% 감소했다. <br/> <br/>제주조릿대 추출물을 먹인 쥐는 만성염증성 장염 쥐에 비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줄고, 항산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와 카탈라아제 활성이 각각 28.1%, 44.7% 증가했다. 대장암 줄기세포에 제주조릿대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줄기세포의 자기재생능력과 줄기세포 마커들이 감소하고 세포분화는 증가해 암 줄기세포 억제 효과가 있었다. <br/> <br/>황경아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연구사는 “제주조릿대 연구결과는 앞으로 염증 및 암 예방이나 치료법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0.txt

제목: 한·미 공동 연구팀, 전이성 뇌종양 표적치료 새 길 열다  
날짜: 2015102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5324964  
ID: 01100701.201601080153249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전이성 뇌종양과 원발암은 유전자 변이 과정에서 각각 다른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백선하, 병리과 박성혜 교수, 미국 하버드의대 부속병원(MGH) 종양내과 프리실러 브라스티아노스 교수(Dr. Priscilla Brastianos), 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 종양내과 윌리엄 한 교수(Dr. William Hahn) 공동 연구팀은 전이성 뇌종양의 맞춤치료에 새 길을 여는 유전적 특징을 밝혔다고 22일 밝혔다. <br/> <br/>이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캔서 디스커버리(Cancer Discovery)' 온라인판 9월호에 발표됐다. <br/> <br/>연구팀은 전이성 뇌종양 환자 86명(원발암은 폐암 38명, 유방암 21명, 신장암 10명, 기타암 17명)을 대상으로 전이성 뇌종양과 원발암의 유전자 변이 양상을 분석했다. <br/> <br/>원발암은 암세포가 처음으로 발생한 부위의 암이다. 이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면 전이성 뇌종양이다. 예컨대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겼으면 원발암은 폐암이며 이 암세포가 뇌에 전이되면 전이성 뇌종양이다. <br/> <br/>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53%(46명)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원발암과 다른 유전자 변이를 나타냈다. 즉 같은 암세포라도 원발 부위와 전이된 뇌 부위의 암세포 유전자 변이가 서로 다른 것이다. <br/> <br/>이는 전이성 뇌종양의 표적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전이성 뇌종양만이 가지는 변이의 특성에 맞게 표적치료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br/> <br/>연구팀은 또한 전이성 뇌종양끼리는 동일한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 변이는 원발암은 물론 머리 외 부위 및 림프절로 전이된 종양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전이성 뇌종양만의 특징이었다. <br/> <br/>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기존의 전이성 뇌종양 환자의 표적치료는 원발성 종양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전이성 뇌종양에서 원발성 종양에는 없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큰 유전자 변이들을 발견했다"며 "이는 향후 전이성 뇌종양 연구와 치료법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전이성 뇌종양은 악성종양으로 최근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해 치료는 제한적이었다. <br/> <br/>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MGH병원 간의 2013년부터 시작된 협력의 결실이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6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환자의 증례와 치료법을 교환해왔다. <br/> <br/>최근에는 연구협력을 강화했으며 현재 다수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첫 구체적인 성과로 앞으로 뇌종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1.txt

제목: 노바티스 '아피니토', 치료군 생존기간 유의하게 개선  
날짜: 2015102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840570  
ID: 01100701.201601080148405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노바티스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NET)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바티스의 표적항암제 아피니토(Afinitor 성분명: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의 효능을 입증한 제3상 임상인 RADIANT-4 연구결과가 공개됐다고 21일 밝혔다. <br/> <br/>RADIANT-4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진행성,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위약군 대비 아피니토의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다. <br/> <br/>이에 따르면 아피니토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NET; neuroendocrine tumors) 환자들에게서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 중앙값은 11개월을 기록해, 위약군이 기록한 3.9개월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br/> <br/>또한 아피니토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질병진행위험(HR: Hazard Ratio)을 위약군 대비 5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아피니토를 투여한 환자들의 64%에서 종양이 감소했으며, 위약군이 기록한 26% 대비 높았다. <br/> <br/>이번 임상연구에서 이상반응(AE: Adverse Events)은 아피니토의 기존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했다. 아피니토 및 위약 투여 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3-4급 이상반응(>5%)은 구내염, 설사, 감염이었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2015 유럽암학회(ECC: European Cancer Congress)에서 발표되었다. <br/> <br/>미국 텍사스대학교 부설 엠디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의 제임스 야오(James Yao) 의과대학 교수는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은 희귀하고 공격적인 암으로써 치료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치료가 까다로운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 대한 아피니토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RADIANT-4 임상에 참여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영석 교수는 "아피니토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신경내분비종양을 앓는 환자들의 생존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신경내분비종양(NET)은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생성·분비하는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위장관, 폐 또는 췌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br/> <br/>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functional NET)과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nonfunctional NET)으로 분류되며,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종양의 증식으로 인해 장 폐색, 통증 및 출혈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진단 시,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5%-44%, 폐 신경내분비종양환자의 28%가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br/> <br/>RADIANT-4 임상시험은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 임상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장관 또는 폐에서 발생한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에 아피니토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적응증 추가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br/> <br/>아피니토는 췌장에서 기원한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진행성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로 세계 95개국에서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br/> <br/>국내에서 아피니토는 진행성 신장암 치료제, 결절성경화증과 관련된 뇌실막밑 거대세포성상세포종 치료제, 췌장에서 기원한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1차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2013년 1월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되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2.txt

제목: 면역력 떨어뜨리면, 방광암 재발 예방·치료 가능하다고?  
날짜: 20151019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4101401  
ID: 01100701.201601080141014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김진욱, 장인호 교수. <br/>방광암은 전체 남성 암 중에서 9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방광암 환자들이 새로 발생하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4배가량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대부분의 방광암 환자들은 종양세포가 근육까지 침투하지 않은 '비근침윤성 방광암'으로 근침윤성 방광암에 비해 치료 및 예후가 좋지만, 이들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무려 70%가 방광 내 암 재발을 경험한다. <br/> <br/>이에 따라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들은 한번의 방광암 수술로 완치되는 경우가 적으며, 주기적으로 재발이 발생하는지 면밀한 관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결핵 예방 백신인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방광 내 주입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br/> <br/>BCG는 결핵균을 자연감염 효과를 모방해 만든 약독화(弱毒化)한 생백신으로, 방광암 재발률을 70%에서 20%로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그런데 이런 BCG 백신의 방광 내 주입으로 인해 결핵균에 대한 자연적인 인체의 면역 기전이 작용해 방광염, 혈뇨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BCG 백신을 거부해 방광암 재발을 낮추기 위한 효과 또한 경감시키는 것으로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김진욱·장인호 교수팀은 우리 몸의 자연 면역 물질 중 하나인 'HBD(Human Beta Defensin)'가 방광암 치료와 예방 효과를 높이는 BCG 백신에 대해 방어기제로 작용해 방광암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br/> <br/>'HBD(Human Beta Defensin)'는 인체의 자연 면역 반응 중 최선두에서 작용하는 자연 면역 기전으로, 이중 HBD-1은 상시적으로 다양한 조직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HBD-2, HBD-3, HBD-4 형은 염증 반응에 따라 방어적으로 기용되어 발현된다. <br/> <br/>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방광암 세포에 BCG 백신을 노출한 결과, 인체의 자연 면역 기전인 'HBD(Human Beta Defensin)' 중 HBD-2가 방광 내 BCG 주입을 통한 치료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용해 방광암 세포가 BCG를 수용하는 비율이 40.97%에서 27.97%로 감소해 방광암 치료 효과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br/> <br/>특히 HBD-2에 대한 항체를 통해 HBD-2의 자연 면역 효과를 막을 경우, BCG를 수용하는 비율이 오히려 56.7%로 증가하여 방광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또한 이와 유사하게 몸의 자연적인 방어기전이 방광암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가지는 BCG에 대해 HBD-3로 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안정적인 방광 세포 안으로의 수용 과정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br/> <br/>연구팀은 실험 결과, HBD-3가 방광암 세포의 BCG 수용 효율을 27.31%에서 12.12%로 저하시켰으며, 다시 이를 항체로 막을 경우 49.57%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김진욱 교수팀은 특히, HBD-2는 소변에서와 같은 고장성(高張性) 용액에 그 효과가 저하되는데 비해, HBD-3는 용액의 염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용하므로, 실제 방광 내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HBD-3가 BCG의 수용을 저해하는 더 유의한 인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br/> <br/>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김진욱 교수는 "HBD-3은 몸에 해로운 발현이 아님에도 방광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BCG 백신 사용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 오히려 약물의 수용을 저해하는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김 교수는 "본 연구진에 의해 이러한 면역 조절 기전이K 확인됨에 따라 면역 기전을 제어함으로써 향후 BCG 수용이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나, BCG가 방광암 재발을 낮추게 하는 기전 등 방광암의 재발을 낮출 수 있는 연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김진욱 교수는 이번 연구 논문을 발표해 지난 8월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3.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손을 잡아요"…암 환자 母에 노래 부르는 네 살 소녀  
날짜: 201510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953245  
ID: 01100701.20160108012953245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암 투병 중인 엄마를 위해 노래 부르는 네 살 여자아기 영상이 네티즌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 <br/> <br/>미국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월킬에 사는 다이애나 스탄차크(23)는 지난 2013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그가 ‘호지킨림프종(Hodgkin's lymphoma)’ 진단을 받은 것이다. <br/> <br/>악성종양인 호지킨림프종은 가슴의 통증, 기침, 호흡곤란, 복부팽만 그리고 황달 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과에 따라 호지킨림프종은 1기부터 4기까지 나눈다. <br/> <br/>다이애나는 현재 4기로 알려졌다. <br/> <br/>이런 가운데 다이애나의 딸 맥켄나(4)가 최근 파티에서 엄마를 위해 노래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 <br/>맥켄나가 다이애나에게 불러준 노래는 지난 2011년 발매돼 인기를 끈 미국 가수 마티나 맥브라이드(Martina McBride)의 ‘아임 고너 러브 유 스로우 잇(I'm Gonna Love You Through It)’이다. 이 곡은 유방암 판정을 받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올 7월에도 암 환자 선생님을 위해 미국 뉴욕의 한 학교 학생들이 단체 불러 화제가 됐다. <br/> <br/> <br/> <br/>영상에서 분홍색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한 맥켄나는 한 손에 작은 마이크를 들더니 엄마를 가만히 쳐다봤다. <br/> <br/>“When you feel lost and scared to death(당신이 어찌할 줄 모르고 무서워 죽을 것 같을 때) / Like you can’t take one more step(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을 때) / Just take my hand, together we can do it (내 손을 잡아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br/> <br/>조용히 울려 퍼지는 맥켄나의 노래에 다이애나는 결국 눈물을 훔쳤다. 아이의 노래와 그 앞에서 감동하는 엄마의 영상은 미국 유명 방송인 엘렌 드제너러스(Ellen DeGeneres)의 페이스북에서도 소개됐다. <br/> <br/>지난 13일(현지시간) 영상을 게재한 드제너러스는 “<span class='quot1'>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네 살 여자아이가 암 투병 중인 엄마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span>”고 말했 다. 그의 영상은 ‘좋아요’ 51만여개, ‘공유’ 44만여회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앞선 9일 'TheEllenTube'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된 같은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 13만건을 돌파했다. <br/> <br/>자신을 맥켄나의 할머니라고 소개한 디 실버네일은 드제너러스의 게시물에 “지난 2년간 우리 딸(다이애나)은 웃은 적이 없었다”며 “손녀는 엄마에게 매일 노래를 불러 준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맥켄나는 다이애나에게 가장 큰 삶의 이유”라며 “영상을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br/> <br/>“<span class='quot0'>난 영상을 본지 30초도 안 돼서 눈물이 흘렀어요.</span>” <br/> <br/>“<span class='quot0'>아일랜드가 나의 눈물로 넘실대고 있어요.</span>” <br/> <br/>“<span class='quot0'>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span>” <br/> <br/>페이스북에서 맥켄나의 영상을 본 뒤, 여러 네티즌들이 남긴 반응들이다. <br/>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TheEllenTube 유튜브 채널 영상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4.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특유의 향이 물씬 나는 맛있는 '더덕무침'  
날짜: 2015101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545139  
ID: 01100701.20160108012545139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과 티아민, 리보플래빈 등의 각종 유용한 성분들은 성인병 및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강한 체력과 정력 증진에도 좋다고 한다. 또한 손상된 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좋다. 더덕은 인삼, 단삼, 현삼, 고삼과 함께 '오삼'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실제로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감기, 몸살 약의 성분으로 활용되기에 한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고혈압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오늘은 더덕을 이용해 맛있는 더덕무침을 만들어보자.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더덕 5개 ▲고춧가루 1/2TS <br/> <br/>양념장 ▲고추장 3TS ▲식초 3TS ▲설탕 1과 1/2TS ▲참기름 1TS ▲다진 마늘 1TS ▲통깨 1ts <br/> <br/>만드는 법 <br/> <br/>1. 더덕을 깨끗이 씻고 필러로 껍질을 벗긴다. <br/>2. 1의 더덕은 방망이로 밀어 부드럽게 만든 후 적당한 두께로 찢는다. <br/>3. 2에 고춧가루를 넣어 먼저 버무린 후 분량의 양념장 재료를 섞어 완성한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5.txt

제목: 감귤 껍질 항암효과 규명  
날짜: 20151014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545400  
ID: 01100701.2016010801254540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감귤 껍질에 풍부한 아우랍텐이 뛰어난 항암 효능을 갖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교실 권기량·허준영 교수 연구팀은 아우랍텐이 종양 대사를 조절해 신장암의 진행을 막는다는 사실을 규명, 국제학술지 ‘암표적’(Oncotarget) 이달 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br/> <br/>아우랍텐은 감귤류 껍질에 있는 휘발성 성분으로 미토콘드리아 저해제로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아우랍텐이 신장암 세포의 산소 소비율을 감소시키고, 해당과정 관련 유전자들의 억제를 통해 신장암 세포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실제 신장암 세포를 피하에 주입한 동물 모델에서 아우랍텐이 혈관의 생성과 성숙을 억제시켜 종양의 크기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br/> <br/>이와함께 암세포 대사, 이동,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저산소유도인자(HIF-1α)의 발현이 높은 신장암 세포에서 HIF-1α를 강력하게 억제시켜 신장암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기존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독성으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있다. <br/> <br/>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독성 없이 신장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해 암 예방과 치료 연구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6.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정밀의학 선도 통한 개인별 맞춤의학 구현  
날짜: 201510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452644  
ID: 01100701.20160108012452644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세계적 수준의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을 환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유전체 정보, 생물학적 정보 등의 방대한 데이터와 접목하여 정밀 의학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병원장은 "정밀의학 실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료정보와 유전체 정보의 통합이 필수적이며, 의료정보분야에서 세계적 선두그룹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정밀의학 실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r/> <br/>올해 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정밀의학을 2016년 우선 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rogram)'에 총 2억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r/> <br/>이에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추진 업무를 가동했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백만명 이상이 포함된 자발적 국가 연구그룹을 세우고, 암의 종류 및 새로운 치료 타깃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며, DNA 서열분석에 기반한 진단검사의 규제적 틀을 현대화하고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개인건강 및 인구 수준의 경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자건강기록과 환자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br/> <br/>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 중 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하여 한미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으로, 특히 정밀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br/> <br/>정밀의학은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의학으로 의료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환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전, 환경, 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축적된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 정밀하고 정확한 치료법을 도출해내는 미래 의학의 핵심 개념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정밀의학을 선도하고자 '헬스케어 혁신 파크'를 설립하고, 이어서 정밀의학 공동연구를 위한 병원차원의 협력TFT를 구성했다.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유전체 정보, 의학 및 의료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코호트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br/> <br/>또한 빅데이터 및 원격진료 기술 등 분당서울대병원의 강점을 활용한 정밀의학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및 사업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br/> <br/>특히 최근에는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의 건강 정보가 한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만 저장되지 않고 다양한 IT기기와 헬스 서비스를 통해 각각 보관되는 만큼, 이러한 정보들을 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앞으로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의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보건 의료 데이터들을 정밀 의학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7.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전월 실적 따라 ‘11번가’ 할인쿠폰 제공 외  
날짜: 20151013  
기자: 오현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2347053  
ID: 01100701.2016010801234705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전월 실적 따라 ‘11번가’ 할인쿠폰 제공 <br/> <br/>우리카드는 SK플래닛과 함께 온라인 쇼핑 전용 카드인 ‘Syrup n 11ST’카드(사진)를 출시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할인쿠폰을 최대 3만원까지 준다. 또 4만8000여개의 OK캐시백 포인트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전월에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전국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청구할인,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20% 청구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br/> <br/>추가인증 없이 ‘편한 이체 서비스’ 출시 <br/> <br/>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추가인증 없이도 이체할 수 있는 ‘편한(便安)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NH안심보안카드를 발급받은 NH농협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이체 시 NH안심보안카드를 휴대전화에 한 번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인증이 된다.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자동응답전화(ARS) 인증 등 별도의 추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이체 서비스보다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br/> <br/>암·뇌졸중·심근경색증 등 보장 강화 <br/> <br/>동부화재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은 3대 질병 진단, 사망 보장을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이 상품은 한 담보로 3대 질병 진단과 사망을 모두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 한도에서 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하고 이후 3대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100%를 최고 3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수술·입원, 암 통원치료 등도 보장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8.txt

제목: 한국에자이, 새 갑상선암 치료제 '렌비마' 국내 승인  
날짜: 20151012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751968  
ID: 01100701.2016010801175196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에자이는 12일 글로벌 제약사 에자이가 개발한 신규 항암제 '렌비마캡슐(성분 렌바티닙메실산염, 이하 렌비마)'이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용도로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br/> <br/>이에 따라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본사인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서 렌비마의 시판이 승인되었다. <br/> <br/>렌비마의 이번 시판 허가는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분화 갑상선암에 대한 3상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과정에서 렌비마는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객관적 반응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r/> <br/>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고혈압, 설사, 피로, 무기력증, 식욕 감퇴, 체중 감소, 구토 등이었다. <br/> <br/>에자이의 츠쿠바 연구소에서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렌비마'는 경구 투여 분자 표적화 약물로, 혈관내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VEGFR),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종양 유전자 KIT,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수용체(PDGFR)와 같은 일부 분자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br/> <br/>특히 렌비마는 종양 신생 혈관 생성 및 갑상선암 확산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VEGFR)와 더불어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를 동시에 억제한다. <br/> <br/>아울러 렌비마는 엑스선(X-ray) 공동결정 구조 분석을 통해 VEGFR2에 대한 새로운 결합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적 분자와 빠르게 결합하고, 키나아제 활성을 강력히 억제하는 것으로 반응속도 분석 결과 나타났다. <br/> <br/>렌비마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에서 시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싱가폴,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시판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에자이는 렌비마에 대한 간세포암 3상 임상시험을 비롯해, 신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br/> <br/>갑상선암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2012년 신규 진단을 받은 환자 수만 4만4000여명에 이른다. 아시아 전체로는 1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 <br/>이번 렌비마 승인을 통해 에자이는 한국의 갑상선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함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시판 승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59.txt

제목: 자연에겐 원전 사고보다 인간이 더 해로울까  
날짜: 20151011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1353207  
ID: 01100701.201601080113532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죽음의 땅’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늑대와 멧돼지, 엘크 등 야생동물들이 다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서북부 체르노빌은 옛소련 때인 1986년 4월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폭발과 화재, 방사능 피폭으로 8200여명이 사망하고, 170만명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20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생명이 다시 체르노빌로 돌아온 계기가 슬프다. 방사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br/> <br/>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학과 영국 포츠머스대학 공동 연구진은 체르노빌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종류와 개체 수가 원전 사고 직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20여년 동안 헬기를 이용해 4200㎢에 이르는 일대 포유동물 수를 조사했다. <br/> <br/> 조사 결과 엘크와 노루, 붉은사슴, 멧돼지 등의 개체 수는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진은 사고 1~10년 후 사슴과 맷돼지 수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체르노빌 일대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부 종은 오히려 다른 일반 자연서식지보다 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늑대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7배 더 많았다. <br/> <br/> 짐 스미스 포츠머스대 교수는 PA통신에 “<span class='quot0'>야생동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왕성한 회복력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시 말하자면 생태계에겐 원전 사고보다 사냥, 개발 등 인간이 더 해롭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셀’의 자매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5일자)에 발표됐다.  <br/> <br/>체르노빌 원전 참사는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던 체르노빌 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했다. 이 4호기는 1983년 12월에 운전을 시작한 최신 원자로였다. 사고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추기에 앞서 실험하던 근무자가 출력을 높이려다 원자로 온도가 급증해 폭발했다. 폭발과 함께 원자로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방사능 가스와 물질은 4.5㎞ 높이의 공중으로 날아갔다. <br/> <br/> 방사능 오염 구름은 2개로 나눠져 한쪽은 벨라루스 폴란드 스칸디나비아반도를 거쳐 유럽을 강타했으며, 다른 한쪽은 동쪽으로 이동해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을 지나 북미까지 흘러갔다. 당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3일 뒤인 29일 이를 공식 발표해 피해는 극심했다. 초기 사망자는 31명이었지만 6년 후엔 8200여명으로 늘어났다. <br/> <br/> 당국은 폭발 후 3일 이내에 체르노빌 인근 거주 주민 3만명, 이후 추가로 13만명을 이주시켰다. 체르노빌 방사능 영향지역에서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50% 이상 증가해 43만명가량이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사산, 유전적 기형아 발생률도 크게 늘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 있던 원자로들은 1991년과 96년에 폐기됐고 마지막 3호기도 2000년 12월15일 완전 가동을 중단하고 봉쇄작업에 들어갔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0.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클린 디젤은 없다  
날짜: 20151008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832821  
ID: 01100701.2016010801083282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 회사의 디젤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배출가스 검사를 받는 동안에만 질소산화물이 기준 내로 나오도록 조작한 소프트웨어를 숨겨 놓았다가 들통난 것이다. 디젤게이트는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한 비정부기구(NGO)가 독일 디젤 엔진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 우연히 발각됐다. <br/> <br/>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연비가 높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한다.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건강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디젤 엔진의 아킬레스건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대량 배출이다. 미세먼지는 양도 중요하지만 크기가 더 중요하다.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입자의 크기도 훨씬 작다. 인체에 해로운 직경 10 μm 이하보다 훨씬 작은 1 μm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크기가 작을수록 폐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고,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뚫고 들어가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다. 설상가상 초미세먼지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인체의 곳곳으로 운반하는 배달부 역할까지 한다. <br/> <br/>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질소산화물 배출은 디젤 엔진의 고유 특성과 맞물려 있어서 근본적 해결이 힘들다. 디젤 엔진은 연료(경유)의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연비는 높아지지만 동시에 질소산화물도 많이 배출한다. 즉 연비를 포기하느냐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느냐의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질소산화물은 광화학 스모그 ‘오존’의 전구물질로 오존 농도를 높이는 산파 역할을 한다.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천식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건강한 사람도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br/> <br/>이에 세계보건기구는 디젤 엔진의 매연을 담배, 석면, 플루토늄 등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1등급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이다. 디젤 매연은 폐암과 방광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솔린 엔진의 매연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미의 ‘2B등급’으로 매겨져 있다. 채소를 식초와 소금물에 절인 피클도 2B 등급이다. 1등급과 2B 등급 발암물질의 발암성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br/> <br/>‘클린디젤’이라는 말도 유감이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은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도 눈에 보이는 시커먼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착시현상을 파고든 마케팅 용어이다.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음료’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동안 환경보건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디젤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을 해 왔다. 디젤 엔진은 트럭이나 버스 등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차에 국한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건강 측면에선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디젤 택시 도입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디젤 엔진을 승용차에 쓰는 것은 공업용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1.txt

제목: 한림대의료원, 20일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100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625559  
ID: 01100701.201601080106255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한림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0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종양면역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에는 기초 및 임상의학을 중심으로 중개연구가 활발한 세계적 명문 스웨덴의 웁살라대학교(Uppsala University) 교수들과 종양면역치료 전략과 전망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br/> <br/>종양면역치료는 질병에 대한 인체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기전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정상세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장기간의 항종양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종양학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악성흑생종에서의 면역치료법을 필두로 여러 악성종양에 대한 다양한 면역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br/> <br/>'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특별강연에서는 전(前) 웁살라의대 학장이면서 유럽 신경내분비종양네트워크 설립자인 웁살라대학 내분비종양학과 쉘 오베리(Kjell Öberg) 교수가 '신경내분비종양의 진단 및 치료의 최신 개념'에 대해서 발표한다. <br/> <br/>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림대학교의과대학 미생물학과 권형주 교수가 '펩타이드 기반 항체생산을 통한 면역치료'에 대해서, 웁살라대학 면역유전병리학과 마그너스 에산드(Magnus Essand) 교수가 '바이러스 및 T-세포 조작을 통한 종양면역치료'에 대해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장대영 교수가 '소화기 암에서의 면역치료를 포함한 최신 치료 전략'에 대해서 주제 발표한다. <br/> <br/>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웁살라대학 면역유전병리학과 안나 딤베리(Anna Dimberg) 교수가 '혈관 표적화를 통한 종양면역치료 결과의 향상'에 대해,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용성 교수가 '고형암 조직 침투능을 갖는 고효율 항체 기술'에 대해서, 웁살라대학 면역유전병리학과 알렉스 칼손-파라(Alex Karlsson-Parra) 교수가 '면역증진제로서 활성화된 동종이형 가지세포를 이용한 종양치료백신'에 대해서 발표한다. <br/> <br/>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정주영 교수가 '혈액암 및 고형암에서의 면역치료'에 대해서, 웁살라대학 종양학과 구스타브 울렌학(Gustav Ullenhag) 교수가 '악성흑생종의 면역치료'에 대해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가 '종양면역학에서의 생체표지자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다. <br/> <br/>김용선 한림대학교의료원 국제화 및 연구강화위원장은 "종양면역치료는 악성흑생종에 대한 면역치료법을 필두로 다양한 악성종양에 대한 면역치료법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종양면역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지식과 경험의 공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제7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스웨덴 의학연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한림대학교의료원 교수들이 참석해 종양면역치료 분야와 관련한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펼치는 등 학술교류를 통해 의학부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r/> <br/>스웨덴의 명문 웁살라대학은 5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최근 임상연구까지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활발한 대학이다. 웁살라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특히 기초와 임상의학 연구를 연계하는 중개의학연구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br/> <br/>부속병원인 웁살라대학병원은 웁살라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1100병상 규모이며, 진단의학·마취과학 및 의료기술학부, 응급의학 및 재활의학부, 종양학·흉부 및 내과부, 신경의학부, 정신의학부, 외과부, 부인건강 및 소아과부 등 총 7개 진료부로 나눠져 있다. 각 진료부 안에는 임상과 기초의학이 함께 공존하며 기초와 임상을 바로 연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br/> <br/>한림대학교의료원과 웁살라대학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교환방문, 학술교류, 연수 등 다양한 국제학술협력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2.txt

제목: [독자투고] "중약은 되고, 한약은 왜?"  
날짜: 20151008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545148  
ID: 01100701.20160108010545148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br/> <br/> <br/>지금 중국은 특히 중의계는 온통 축제분위기에 싸여 있다. <br/> <br/>지난 5일 발표된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에 청호(개똥쑥)라는 한약으로부터 말라리아치료제를 개발한 투유유 박사가 선정되었다. <br/> <br/>전통의학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한의계로서는 착잡한 심정이다. 동일한 계통의 전통의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니 국적을 초월해서 축하할 만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아쉬움도 떨칠 수는 없다. <br/> <br/>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계에서도 투박사의 노벨상수상을 놓고서 자조감이 엿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과 일본이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우리만 중간에서 쏙 빠진 듯한 씁쓸함이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기초의학이 임상의학에 비해 심각하리만치 취약하다는 자기비판도 나온다. <br/> <br/>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투유유 박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가 속한 소속기관을 제대로 표기한 국내 신문이나 전문지가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중의학과 관련해서 무지하다. 투 박사가 속한 기구의 정식명칭은 중국중의과학원(中國中醫科學院)이며, 1950년대 중반 모택동주석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중의학연구기관이다. <br/> <br/>이와 비교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상호 교차 방문하면서 연례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알러지성 비염에 대한 침의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적도 있다. <br/> <br/>앞으로 중국중의과학원의 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중의학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br/> <br/>그런데 우리 한약은 왜 안되는 것일까? 한의계 일각에서는 투유유박사로 대표되는 청호소(靑蒿素)(artemisinin, 아르테미시닌)보다 더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한약이 있다고 본다. 단국대의 최원철교수가 개발한 이성환(二聖丸)(넥시아로 알려짐)이다.  <br/> <br/>청호소는 개똥쑥으로부터 나왔고, 기원을 1700년 전 갈홍(葛洪)의 주후비급방(?後備急方)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성환은 동의보감에 기원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항암치료제이다.  <br/> <br/>아르테미시닌이말라리아로부터 수백만명의 인명을 구했다고 하지만, 넥시아로 알려진 이성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암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이라고 관련 의료진과 그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국내외 암 전문병원에서 말기전이암 진단을 받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다수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br/> <br/>그러나 지금 이 약은 국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다. 수년에 걸쳐 의사들로부터 신랄한 비난과 방해를 받아왔으며, 현재 그와 관련하여 재판도진행 중이다. 또올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넥시아는 불법이라 증언하였고 그에 대해그 약을 복용한 환자와 가족들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br/> <br/>얼마 전 의사협회에서는 넥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연구자를 공모하였는데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공모를 하였다고 하며 그 뒤로는 소식이 없다. 당시 단국대 융합의료센터에 속한넥시아 의료진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오히려 공정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br/> <br/>이제는 우리 의료가 더 이상 양한방의 갈등으로만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고, 두 의학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들도 우리의 한약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br/> <br/>단국대학교 최승훈  특임부총장 [ 前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자문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3.txt

제목: DNA 복구 규명 린달 등 3명 노벨화학상  
날짜: 20151008  
기자: 권이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446271  
ID: 01100701.2016010801044627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 노벨 화학상은 손상된 유전자(DNA)를 복구하는 원리를 밝혀낸 스웨덴, 미국, 터키 출신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토마스 린달(77·스웨덴)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교수, 폴 모드리치(69·미국) 미국 듀크대 의과대학 교수 겸 하워드 휴스 연구소 연구원, 터키·미국 이중국적자인 아지즈 산자르(6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터키인이 노벨상 과학분야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 토마스 린달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세포가 손상된 DNA를 어떻게 복구하고 유전자 정보를 보호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밝혀냈다”며 “특히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br/> <br/> 아지즈 산자르린달은 ‘염기 절제 복구’ 연구를 통해 DNA가 일정한 정도로 붕괴되며 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DNA가 극도로 안정적인 분자라고 여겨지던 과학계의 통념을 깨뜨린 연구 성과였다.  <br/> <br/> 폴 모드리치산자르는 세포가 자외선으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복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점, 세포가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생긴 결함을 ‘뉴클리오타이드 절제복구’를 통해 고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br/> <br/>모드리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가 복제될 때 일어나는 손상을 세포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입증해냈다. ‘부정합 복구’로 불리는 이 메커니즘이 DNA복제 과정상의 결함 발생빈도를 낮추며 이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규명했다. 수상자들은 상금 800만크로나(약 11억2000만원)를 나눠가지게 되며 시상식은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br/> <br/>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4.txt

제목: 빛 산란前 모습 되살리는 ‘시간 역행거울’ 개발  
날짜: 20151007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417513  
ID: 01100701.2016010801041751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매개체를 통과하면서 산란한 빛을 다시 집약시켜 산란 전 모습으로 되살리는 ‘시간 역행거울’(위상 공액거울)을 개발했다. <br/> <br/>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박용근(사진) 교수 연구팀은 7일 움직이는 1000여개의 미세거울로 만든 장치로 거울에 입사된 빛이 거쳐온 과거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얇은 닭 가슴살 아래에 빛을 내는 물체가 놓여 있을 경우 닭 가슴살을 통과한 빛을 일반 거울로 보면 물체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시간 역행거울을 이용하면 물체가 내는 빛이 닭 가슴살을 통과하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br/> <br/>‘빛의 시간 역행성’은 녹화된 비디오를 되감기 하듯 빛의 진행을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쏟아진 물을 주워담듯 산란으로 흩뿌려진 빛을 다시 집약시켜 원래 영상을 복구하는 원리다. <br/> <br/>많은 학자들이 비선형 레이저 광학 지식을 이용해 이를 구현하려 했지만 실패해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의 복잡한 물리현상을 배제하고 ‘파면제어기’라는 움직이는 미세거울 1014개를 이용해 장치를 만들었다. <br/> <br/>연구팀은 이 같은 원리를 활용해 모의 생체조직 샘플, 생닭 가슴살 등을 투과하면서 다중으로 산란한 빛을 집약시켜 산란 전의 모양을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심한 산란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생체조직 내부의 빛 집약이 가능해져 암세포 등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무절개 암 수술기술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5.txt

제목: 자연에겐 원전 사고보다 인간이 더 해로울까  
날짜: 20151007  
기자: 송민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10242864  
ID: 01100701.201601080102428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죽음의 땅’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늑대와 멧돼지, 엘크 등 야생동물들이 다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서북부 체르노빌은 옛소련 때인 1986년 4월 원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폭발과 화재, 방사능 피폭으로 8200여명이 사망하고, 170만명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20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생명이 다시 체르노빌로 돌아온 계기가 슬프다. 방사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br/> <br/>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대학과 영국 포츠머스대학 공동 연구진은 체르노빌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종류와 개체 수가 원전 사고 직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20여년 동안 헬기를 이용해 4200㎢에 이르는 일대 포유동물 수를 조사했다. <br/> <br/>   <br/> <br/> 조사 결과 엘크와 노루, 붉은사슴, 멧돼지 등의 개체 수는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진은 사고 1~10년 후 사슴과 맷돼지 수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체르노빌 일대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부 종은 오히려 다른 일반 자연서식지보다 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늑대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7배 더 많았다. <br/> <br/>짐 스미스 포츠머스대 교수는 PA통신에 “<span class='quot0'>야생동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왕성한 회복력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시 말하자면 생태계에겐 원전 사고보다 사냥, 개발 등 인간이 더 해롭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셀’의 자매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5일자)에 발표됐다. <br/> <br/>체르노빌 원전 참사는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던 체르노빌 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했다. 이 4호기는 1983년 12월에 운전을 시작한 최신 원자로였다. 사고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추기에 앞서 실험하던 근무자가 출력을 높이려다 원자로 온도가 급증해 폭발했다. 폭발과 함께 원자로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방사능 가스와 물질은 4.5㎞ 높이의 공중으로 날아갔다. <br/> <br/>   <br/> <br/> 방사능 오염 구름은 2개로 나눠져 한쪽은 벨라루스 폴란드 스칸디나비아반도를 거쳐 유럽을 강타했으며, 다른 한쪽은 동쪽으로 이동해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을 지나 북미까지 흘러갔다. 당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3일 뒤인 29일 이를 공식 발표해 피해는 극심했다. 초기 사망자는 31명이었지만 6년 후엔 8200여명으로 늘어났다. <br/> <br/>당국은 폭발 후 3일 이내에 체르노빌 인근 거주 주민 3만명, 이후 추가로 13만명을 이주시켰다. 체르노빌 방사능 영향지역에서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50% 이상 증가해 43만명가량이 방사능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사산, 유전적 기형아 발생률도 크게 늘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 있던 원자로들은 1991년과 96년에 폐기됐고 마지막 3호기도 2000년 12월15일 완전 가동을 중단하고 봉쇄작업에 들어갔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6.txt

제목: 노벨의학상 받은 개똥쑥, 오해와 진실?  
날짜: 20151006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853181  
ID: 01100701.201601080058531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 노벨 의학상은 중국 전통 약초 서적을 연구하여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으로 불리는 풀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낸 투유유(屠??·85)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 투유유 교수는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서 뽑아낸 말라리아 특효약 '아르테미시닌'을 개발해 1990년대 이후 말라리아 퇴치에 크게 기여했다. <br/> <br/> 투 교수는 "1600년 전 고대 의학서가 영감을 줬다"며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시닌은 현대 과학과 전통 의학이 결합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br/> <br/> ◆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이란? <br/> <br/><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은 국화과 쑥속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다. 이 식물체를 손으로 뜯어서 비벼 보면 “개똥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서양에서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학명“Artemisia Linne"은 “Artemisia”가 부인병에 유효하다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의 "Artemis"여신을 기념하여 “Linne"가 명명되었다고 한다. 투 교수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추출한 성분인 아르테미신도 학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효과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은 항산화 및 항균 효과(유해 미생물 증식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한 증식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 함유된 아르테미신은 피부 과민 반응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임상 시험 결과로서 구강 점막염, 신경성 피부염, 여름의 입마름, 다한증, 체력저하에도 유효함이 알려져 있다. <br/> <br/> 한의학적으로는 음이 허하여 열이 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약으로 발열, 학질에 쓰이고 소화불량이나 이질에도 효과가 있다. 간과 담의 경락에 배속되어 황달이나 급성 간염에도 응용할 수 있다. 고서에는 독충에 물렸을 때나 뱀에 물린 상처, 각종 피부병에도 외용제로 쓰인 기록이 있다.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오해와 진실 <br/> <br/> 우리나라에도 한때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이 만병 통치약처럼 알려져 무분별한 재배와 상품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br/> <br/>(1) 흔히들 알려진 기존의 항암약보다 1200배 가까이 되는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처리한 성분을 이용한 연구이고 생약을 그대로 쓴 연구는 아니다.  <br/> <br/>(2) 상기 연구는 세포 실험적 연구로서 임상실험을 거쳐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투 교수가 연구한 아르테미신 역시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추출하지 않은 <span class='quot0'>개똥쑥</span> 자체에는 아르테미신 함량이 매우 낮아 직접적인 항말라리아 효과를 내기 어렵다. <br/> <br/>(3) <span class='quot0'>개똥쑥</span>의 대중성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약초의 범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쑥의 종류 및 변종에 해당하는 식물은 60여 종인 넘고 <span class='quot0'>개똥쑥</span>과 유사한 쑥속에 해당하는 식물도 더위지기, 사철쑥, 일반쑥, 황해쑥 등 여러 가지다. 약초의 효능에 대해서도 엄청난 편차가 존재하고 약초의 기원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순도와 표준화된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공급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복용하기 전 한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br/> <br/>(4) 한의학적으로는 청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냉한사람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다. 비위 허약자는 복용을 금해야 하며 허증이나 한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r/> <br/> ◆<span class='quot0'>개똥쑥</span> 복용법 <br/> <br/> 한의학적으로는 보통 여름철 미열, 식욕부진, 기력 감퇴, 감기 등에 다른 약재와 같이 전탕하여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처럼 끓여서 복용하거나 티백에 넣어 우려먹을 수 있다. ?속이 찬 사람이나 변이 묽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상담 후 복용 하도록 한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7.txt

제목: "키 평균보다 10㎝ 클수록 암 위험 최고 30% 상승"  
날짜: 20151002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614079  
ID: 01100701.2016010800461407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키가 평균치에 비해 10㎝ 클수록 암 발병 위험이 최고 30%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2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연구소와 스톡홀름대 연구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 연례 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br/> <br/>연구진은 1938∼1991년에 태어난 신장 100∼225㎝의 스웨덴 성인 남녀 550만명의 병역과 암 등록 자료, 여권 등을 분석한 결과, 키가 평균치보다 10㎝ 클수록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발병 위험이 30% 커졌다고 밝혔다. <br/> <br/>키가 평균보다 10㎝ 큰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이 20% 증가했다. 또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키 10㎝당 암 발병 위험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18%, 11%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신장과 암의 관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이전 연구들처럼 신장과 암의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가 아닌 연관성(association)을 입증한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8.txt

제목: "키가 평균보다 10㎝ 클수록 암 위험 최고 30% 증가"  
날짜: 20151002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518667  
ID: 01100701.2016010800451866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키가 평균치에 비해 10㎝ 클수록 암 발병 위험이 최고 30%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2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연구소와 스톡홀름대 연구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 연례 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br/> <br/>연구진은 1938∼1991년에 태어난 신장 100∼225㎝의 스웨덴 성인 남녀 550만명의 병역과 암 등록 자료, 여권 등을 분석한 결과, 키가 평균치보다 10㎝ 클수록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발병 위험이 30% 커졌다고 밝혔다. 키가 평균보다 10㎝ 큰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이 20% 증가했다. 또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키 10㎝당 암 발병 위험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18%, 11%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 대상에 포함된 스웨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장은 각각 180㎝, 170㎝였다. <br/> <br/>다만 연구진은 큰 키가 개인 차원에서 암을 일으키는 유일한 요인도, 흡연이나 비만, 부실한 식단보다 더 위험한 발암 요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r/> <br/>키와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번 연구를 이끈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에멜리에 베니 박사는 “<span class='quot0'>키가 큰 사람들이 암 발병을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이나 암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몸에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암과 연관이 있는 칼로리 섭취량이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an class='quot1'>이번 연구는 신장과 암의 관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span>”라면서 “<span class='quot1'>이전 연구들처럼 신장과 암의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가 아닌 연관성(association)을 입증한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69.txt

제목: 차병원그룹 차바이오텍 ‘제 4회 암 정복 국제 세미나’ 성료  
날짜: 20151002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422999  
ID: 01100701.201601080044229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강연 중인 차움병원 조성훈 교수차병원그룹 (주)차바이오텍은 지난 1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항암면역세포 치료법인 AKC면역세포 요법’ 등을 중심으로 '제4회 암 정복 국제 세미나'를 열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br/> <br/>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바이오텍과 일본 차병원, 그리고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 세미나는 암 치료 최신기술이라 일컫는 항암면역세포 치료법인 AKC면역세포 요법 등 암 치료 방법 등에 대해 각 분야 국내외 명사들을 초빙하여 강연했다. <br/> <br/>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면역세포전문 의료기관인 차바이오텍 계열 도쿄셀클리닉(일본 차병원)의 이태흥 원장과 국내 면역 치료의 대가 차움 면역증강센터 조성훈 교수 등이 참여해 NK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세포 요법인 ‘AKC면역요법’과 면역세포 요법의 우수성, 면역치료의 역할과 면역세포요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br/> <br/> 또 일본 중입자선 치료 관련 최고 권위자인 일본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 중입자의과학센터 카마다 다다시 센터장, 노다 코지 박사와 야마다 시게루 박사 등이 중입자선 치료의 현 상황과 미래 그리고 소화기 암에 대한 중입자선 최신 치료법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br/> <br/> 중입자선 암 치료 기술은 일본의 국책연구소인 국립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1994년 가동한 치료방법이다. <br/> <br/> 한편 차병원그룹은 세미나에 앞서 지난 9월 암 치료 권위자 김주항 교수를 비롯 문용화 교수, 전홍재 교수, 김찬 교수, 임선민 교수, 최경주 교수 등 종양내과 의료진 6명을 동시에 대거 영입한 바 있다. <br/> <br/> 차병원그룹은 이번 암 치료 국제 세미나와 암 치료 명의 영입 등을 통해 암 진료 및 암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있어 임상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국내 최고 수준의 선진 암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분당차병원이 암 치료의 중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0.txt

제목: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심장마비 예측  
날짜: 20151001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004153  
ID: 01100701.20160108004004153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br/> <br/> <br/>고혈압을 앓고 있는 50대 직장인 김모씨.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 맥박과 혈압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가 기존 건강 데이터 등이 연동된 헬스케어 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분석된다. <br/> <br/>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가 뜬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씨는 바로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이미 심장 혈관이 반쯤 막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심장 마비의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br/> <br/>거대 정보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른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처럼 심장 마비를 예측하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유전체, 일상생활 등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 및 연계해 개인의 미래 건강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흥남)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왓슨 컴퓨터'인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수백만 의료 데이터를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통합 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br/> <br/>공동 연구팀은 한국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개인 건강의 지속적 관리는 물론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예측 및 최적의 진단·치료 가이드를 제시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 <br/> <br/>특히 이번 공동 연구는 기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분석,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미국 '왓슨 컴퓨터'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고 밝혔다. <br/> <br/>수백만 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한 의료 빅데이터에 특정 대상자에 대한 임상 기록과 함께 유전체 데이터, 기후 및 환경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해진 일상생활 데이터를 결합해, 만성질환 관리부터 암 치료까지 한 개인의 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br/> <br/>더불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한 질환 연관성, 약물 부작용, 유전자 연구 등을 통해 질환의 예측 및 진행, 예후를 밝혀 궁극적으로 질환 극복에도 도전한다. <br/> <br/>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빅데이터의 진정한 활용 가치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에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일일 외래환자 1만2000여 명, 연간 수술 환자 6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빅데이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새로운 건강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적용의 4단계를 거쳐 구축되며, 향후 5년 내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외부 의료기관, 통신사업자, 디바이스 업체 등 산·학·연·병의  유기적 협력 체계 속에 운영될 예정이다. <br/> <br/>이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란 전문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br/> <br/>먼저 첫 단계에서는 400여만 명의 환자, 6억7700여만 건의 처방, 2억6800만 건의 진료 기록, 2200만 건의 영상 기록 등 방대한 서울아산병원의 임상 정보를 익명화해 연구용 빅데이터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br/> <br/>물론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익명화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 가동한 ABLE(Asan BiomedicaL Research Environment)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대상자의 이름, 상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삭제된 채 익명화된 임상 정보만이 연구에 활용된다. <br/> <br/>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하기 위해 쉽고 편리하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와 함께 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전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br/> <br/>다음으로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을 위한 플랫폼 개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힐링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진행한다.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과 함께 국제 표준 다기관 데이터 통합 기법 및 의료 데이터 전송 기술도 개발한다. <br/> <br/>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분석 과정을 거친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관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 데이터는 표준화된 진단법과 치료법으로 정형·비정형 자료의 취합이 용이하며 환자 변이가 크지 않아 분석 기술 개발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br/> <br/>심장마비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사전 예측, 심질환 진단 정확도 증가, 급성 부정맥 사전예측, 약제 순응도 및 부작용 모니터링 예측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 중으로, 개발된 분석 기술은 향후 다른 질환 영역에 표준화돼 적용될 예정이다. <br/> <br/>실제 심혈관계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를 이용해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을 그 발생 한 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최근 개발한 바 있다. 2500여 명의 환자로부터 획득한 생체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심실부정맥 예측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예측 성능은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br/> <br/>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율의 증가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차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공동 연구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 현재 법·제도 등의 주변 환경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환자 진료, 의료 관련 개발 및 연구, 공익적 목적으로의 이용 등 우리의 상상력이 닿는 모든 부문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 산업 및 병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오는 2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계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헬스케어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의료 빅데이터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1.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몸 속에 숨어있는 림프절 ‘광음향’으로 샅샅이 들여다본다  
날짜: 20151001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4030922  
ID: 01100701.201601080040309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왼쪽부터 김철홍·이창호 교수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몸 속에 숨어있는 림프절을 ‘광음향’으로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1일 포스텍에 따르면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이창호 교수 연구팀이 기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조영법 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촬영 가능한 광음향 림프절 조영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 성과는 생체소재분야 국제 권위지 ‘바이오머티리얼즈’를 통해 발표했다. <br/> <br/>크기가 1~2㎝ 정도에 불과하면서도 우리 몸 속 전체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 ‘림프절’은 건강의 바로미터다. <br/> <br/>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림프절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몸에 이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기존 림프절 조영법으로는 정밀한 탐지가 쉽지 않았다. <br/> <br/>김철홍 교수팀은 광음향 촬영 장치와 유기 나노제조된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 림프절들을 광음향으로 동시에 뚜렷하게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두 나노 물질의 근적외선 흡수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했다. <br/> <br/>특히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조영술보다 훨씬 고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깊이 숨어 있는 림프절을 탐지해 낼 수 있다. 또 복합 림프절의 연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환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림프절 절제 시술이 가능하고 암 진단 시 목, 유방 등 다양한 부위의 동시 촬영도 가능하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상용 초음파 장비와 결합해 응용하면 우리 몸의 하수구와 같은 림프절 생체조직을 기존 조영술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광음향 영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다른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 두 가지 림프절 영상은 유방암 진단과 같은 최소 침습 절제술에 크게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2.txt

제목: 급성골수성백혈병 내성 억제 新 치료제 효과입증  
날짜: 20150930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3600276  
ID: 01100701.2016010800360027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조병식 교수 <br/> 악성 혈액암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시 발생하는 내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를 한국 교수와 세계적인 암 전문 기관인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의료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br/> <b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병식 교수(제1저자)는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현상인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표적치료제 LY2510924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한 동물모델에 주입한 결과, 기존의 치료제  AMD3100 (성분명: Plexiafor, 상품명:Mozobile)에 비해 더 빠르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항암제 내성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치료효과를 향상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br/> <br/>  연구결과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간하는 혈액학 분야의 최고 저널인 Blood(Impact factor : 10.452) 7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  또한 기존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합하여 사용했을 경우 단독치료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  백혈병은 조혈모세포의 분화 초기의 세포들이 미성숙 상태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다 증식하여 정상적인 조혈기능을 억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혈액질환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한다. <br/> <br/>  혈액암 중 림프종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치료율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면 장기생존이나 완치까지 가능한 만성골수성백혈병과 달리 아직까지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제가 없으며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 세포로 인한 재발 때문에 여전히 생존율이 낮은 편이다. <br/> <br/>  조 교수팀은 백혈병 세포가 존재하는 골수안의 미세환경(microenvironment)과 백혈병 세포와의 상호작용 결과, 백혈병 세포가 항암치료제가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숨게 되는 기전에 주목하였다. <br/> <br/> 골수 미세환경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SDF-1α가 백혈병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인 CXCR4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CXCR4 억제제를 이용한 것이다.   <br/>  <br/>이미 CXCR4 억제제로 AMD3100가 임상연구 중 이었으나, 인체 내 반감기가 짧고 치료 효과가 약해 효과적인 새로운 약물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br/>   <br/>조병식 교수는 “<span class='quot0'>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의 가장 문제점은 항암 치료제 내성으로 질환이 재발하는 것인데, 재발환자 대부분이 사망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기존에 백혈병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제들과 병합해 내성 발생을 줄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전략의 가능성을 규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어 “본 연구의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대상으로 LY2510924의 2상 임상연구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고 곧 첫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CXCR4 억제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임상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3.txt

제목: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비대증이 암으로 변한다? ‘완전히 달라’  
날짜: 20150922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1121653  
ID: 01100701.201601080011216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비대증이 암으로 변한다? ‘완전히 달라’ <br/>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비대증이 암으로 변한다? ‘완전히 달라’ <br/> <br/>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br/> <br/>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중에서 먼저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암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다. <br/> <br/> 이에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생기는 기전, 생기는 부위, 발생 양상이 완전히 다르므로 별개의 질환으로 이해해야 하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더라도 전립선암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없다. <br/> <br/> 또한 전립선 비대가 심하면 증상도 심하다는 말이 있지만 전립선 비대위치가 전립선 요도를 직접 압박하는 부위인 선조직이 비대할 경우는 직접 증상악화와 직결되지만 그 외의 근육조직, 섬유조직인 경우는 그렇지 ?다고 전해진다. <br/> <br/> 특히 정관수술을 한 사람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관수술과 암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알려졌다. <br/> <br/> 한편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소식에 누리꾼들은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아 그렇구나”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몰랐네” “잘못 알려진 전립선 질환 상식, 이런 것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4.txt

제목: 佛, 시험관서 인간 정자 배양 첫 성공  
날짜: 20150921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631051  
ID: 01100701.20160108000631051  
카테고리: 국제  
본문: 프랑스 연구팀이 시험관에서 인간의 성숙한 정자를 만드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템의 연구실장 필립 뒤랑 박사는 불임 남성의 고환에서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세포배양기 안에서 자연정자와 똑같은 정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br/> <br/>뒤랑 박사는 “<span class='quot0'>앞으로 2∼4년 안에 시험관 수정이 불가능한 불임 남성과 암 치료로 생식능력을 잃은 환자가 자녀를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쥐, 원숭이, 인간의 정자를 시험관에서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 시험관에서 만든 쥐의 정자를 난자와 수정시킨 후 성공하면 사람의 배양 정자를 사용한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뒤랑 박사는 연구 논문이 아직 전문지에 게재되기 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영국 셰필드 대학의 앨런 페이시 남성학 교수는 자세한 내용이 과학전문지에 발표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관에서 만든 정자의 사진을 보면 길게 보일 뿐 성숙한 정자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5.txt

제목: 세계 최초로 시험관에서 인간 정자 만들어내  
날짜: 20150921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0425855  
ID: 01100701.20160108000425855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프랑스 연구팀이 시험관에서 인간의 성숙한 정자를 만드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템(Kallistem)의 연구실장 필립 뒤랑 박사는 불임 남성의 고환에서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세포배양기’(bioreactor) 안에서 자연정자와 똑같은 정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br/> <br/>뒤랑 박사는 앞으로 2~4년 안에 시험관 수정(IVF)이 불가능한 불임 남성과 암 치료로 생식능력을 잃은 환자가 자녀를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쥐, 원숭이, 인간의 정자를 시험관에서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 시험관에서 만든 쥐의 정자를 난자와 수정시킨 후 성공하면 사람의 배양 정자를 사용한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뒤랑 박사는 연구 논문이 아직 전문지에 게재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영국 셰필드 대학의 앨런 페이시 남성학교수는 자세한 내용이 과학전문지에 발표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관에서 만든 정자의 사진을 보면 길게 보일 뿐 성숙한 정자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6.txt

제목: 녹십자제대혈,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분야 선두주자로 도약  
날짜: 2015091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4307392  
ID: 01100701.201601072343073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한국인 사망률 1위인 암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암 치료의 경우 주로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투여 등으로 진행된다. 기존 치료법의 한계로는 많은 부작용과 함께 면역력 저하에 의한 암의 재발, 전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기존 항암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법 중의 하나로 면역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 특히 차세대 항암요법 중 하나로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 치료 (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Therapy)는 최근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뛰어난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T 세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항암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을 이용하는 기술에 주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은 CAR-T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고, 국내제약사들 역시 항암면역세포치료제를 차세대 바이오 핵심 사업으로 본격 개발하고 있다. <br/> <br/> 차세대 바이오 핵심 사업, 항암면역세포치료제 <br/> <br/> 항암면역세포치료는 혈액 속 림프구의 면역세포를 배양해 세포 수를 증폭시키거나 기능을 강화시켜 이를 다시 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이다. 체내에 들어간 면역세포는 암세포에 특이적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암세포만을 공격하게 된다. 이 치료법은 기존 치료방법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 면역반응 조절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전이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로 더 뛰어난 치료 성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환자의 면역력 상승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까지 있어 차세대 항암치료제로서 가치가 높다. <br/> <br/> 또한 항암면역세포 중 하나인 자연살해세포(NK cell)는 면역화 과정 없이 종양 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에 대해 용해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암의 발생과 증식, 전이 및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각광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NK 세포는 조직특이적으로 작용하는 T 세포나 DC 세포와는 달리 타인 유래의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r/> <br/> 녹십자랩셀 박복수대표는 "면역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므로 좀 더 연구하고 상용화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의 분야다"며 "무엇보다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연구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br/> <br/> 녹십자랩셀, NK세포치료제 개발 박차 <br/> <br/> 이러한 NK세포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녹십자랩셀이 있다. 녹십자랩셀은 NK세포치료제 'MG4101' 면역세포치료제를 핵심전략사업으로 2018년 출시를 목표로 임상시험 중에 있다. NK 세포치료제 (MG4101)는 말초 혈액으로부터 NK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확장배양하고 동결한 뒤 해동하여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 비용을 대폭 줄여 단가를 낮추고 환자가 원하는 때에 투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졌다. <br/> <br/> 또한 공여자 1명으로부터 얻은 NK 세포를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여, 의약품으로써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NK 세포의 종양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여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는 올해 6월 목암연구소와 함께 '제대혈 단핵세포 또는 이로부터 유래된 세포로부터 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하였다. <br/> <br/> 이와 관련하여 녹십자랩셀 황유경 소장은 "NK 세포치료제의 원료 물질을 말초혈액에서 제대혈로 확장하고, 이 기술을 통해 제대혈을 조혈모세포이식 및 NK 세포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NK세포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대혈 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7.txt

제목: 서울의료원, 암환자 식단전시회 개최  
날짜: 2015091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4301945  
ID: 01100701.20160107234301945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br/> <br/> <br/>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암환자 식단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br/> <br/>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수술 후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과 구토로 인한 영향결핍이 발생해 합병증이나 우울증 등 암 이외에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져 치료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는 암환자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항암치료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해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식사개선을 통한 암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br/> <br/> 이를 위해 서울의료원 영양팀은 암환자의 소화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영양과 맛을 고려한 암환자 맞춤 식단을 선보이고 전시회 참여객을 대상으로 무료시식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br/> <br/> 또한 암환자 및 보호자들이 집에서도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투병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암환자 맞춤식단의 조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br/> <br/> 이외에도 간암, 유방암 등 질환별 식단과 암으로 인한 증상에 도움을 주는 음식, 암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등을 전시하여 전시회에 참석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br/> <br/> 서울의료원 진혜원 영양팀장은 "보고 즐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암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식단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암환자는 힘든 치료과정으로 인해 영양 결핍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에서도 암환자 식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8.txt

제목: 뇌종양, 개인별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날짜: 2015091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646233  
ID: 01100701.2016010723364623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제학술지 Cancer Cell 표지 (그림 설명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원발암(붉은색)과 재발암(초록색)의 발생 위치에 따라 종양의 유전체 특성이 서로 다름을 표현함) <br/>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연구진이 “<span class='quot0'>뇌종양 환자의 장기간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분석을 통해, 재발한 뇌종양 환자의 맞춤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하였다</span>”고 밝혔다. <br/> <br/>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 연구팀과 삼성유전체 연구소 박웅양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및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 Cancer Cell(SCI 23.893) 최신호(9월 14일자)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br/> <br/> 연구팀은 교모세포종(악성뇌종양의 일종) 환자 38명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최초 진단받은 암과 이 암이 재발했을 때 나타나는 유전체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뇌종양 재발시 재발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유전체 돌연변이가 변화하는 특징적인 패턴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br/> <br/> 최초의 암 발생 위치와 비슷한 곳에서 암이 재발하면, 최초의 암과 비슷한 유전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br/> <br/> 최초의 암 발생 위치와 떨어진 곳에 암이 재발하면, 최초의 암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다수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br/> <br/> 이런 결과는 재발한 뇌종양 환자에게 표적항암제 치료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재발암이 원발암과 위치가 다를 경우 반드시 재발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만 정확한 표적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br/> <br/> 또한 뇌종양 발생과 관련이 있는 IDH1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표준 항암제인 테모달(Temozolomide)」의 부작용 빈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항암제 처방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br/> <br/>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뇌종양에 대한 개인별 유전체 기반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 참고로, 최근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체의 돌연변이에 의해 암이 발병하고 진화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암의 재발과정에서 어떠한 유전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79.txt

제목: 자생한방병원, '어혈'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날짜: 2015091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33056228  
ID: 01100701.2016010723305622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만성통증과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어혈(멍)'의 객관적 진단지표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어혈'이란 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해 혈액이나 인체 조직의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고, 신체 한 부분에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한의학 용어다. '어혈'이 발생하면 생리기능이 저하되고 조직의 회복을 억제해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고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br/> <br/>또 특정부위에 '어혈'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전신통증, 불임, 암 등의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br/> <br/>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어혈'의 진단지표와 진단방법을 마련하고, 나아가 더 나은 치료방법을 모색한다. <br/> <br/>임상연구 참여자는 외상 후 어혈이 있는 만 20세 이상~만 70세 이하의 남·여를 대상으로 한다. 총 모집인원은 70명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br/> <br/>참여자는 2주간 총 6회 이상의 방문을 통해 외상 후 어혈 및 통증에 대한 한의학 치료(한약, 침치료, 부항치료) 등을 받게 된다. <br/> <br/>이와 함께 2주간의 치료비 지원과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임상연구의 세부내용과 참여신청은 자생한방병원 대표번호로 평일(월~금)중 문의할 수 있다. <br/> <br/>한편 지난 2014년 4월 자생한방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실험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함께 '한의학, 생명공학 및 IT 융합, 어혈 진단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0.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 치료 권위자 김주항 교수 영입해 암 유전자 치료 경쟁력 강화  
날짜: 2015090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450545  
ID: 01100701.201601072254505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치료 권위자 김주항 교수 <br/> <br/> 차병원그룹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이 암 유전자 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양내과 김주항 교수를 영입하고 진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r/> <br/> 김주항 교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암병원에서 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폐암센터장과 암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대한폐암학회 회장,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br/> <br/> 치료법이 없는 말기 암환자 들을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의 새로운 신약을 이용한 많은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는 등 다년간 암 유전자 치료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다. <br/> <br/> 김주항 교수는 그 동안 다양한 신약 관련 임상 연구를 통해 국가 암 관리 사업과 암 유전자 치료 분야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3년 3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br/> <br/> 최근 대부분의 스타급 교수들이 정년퇴임 후 자리를 옮기는 추세에서 김주항 교수는 정년을 남기고 분당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인 선택으로 주목 받고 있다. <br/>  <br/>분당차병원은 김주항 교수와 함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문용화 교수를 비롯하여 전홍재 교수, 김찬 교수, 임선민 교수, 최경주 교수 등 종양내과 의료진 6명을 동시에 영입함으로써 암 진료 및 암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있어 임상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 분당차병원 종양내과장 김주항 교수는 “<span class='quot0'>차병원그룹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생식의학 및 재생의학 그리고 NK세포, T세포 등을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에 많은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진행해 온 암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차병원그룹의 세포치료 연구와의 접점을 찾는다면 암에 관한 세포/유전자 치료 연구에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1.txt

제목: 위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날짜: 201509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447419  
ID: 01100701.2016010722544741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위암 예방의 핵심은 위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선별검사를 통해 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습관의 교정에 의한 암 예방 효과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식이요법을 포함한 활발한 신체활동,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간접흡연 회피 등의 생활습관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br/> <br/> ◆금연, 그리고 간접흡연 피하기 <br/>흡연은 담배 연기가 직접 닿는 입안, 후두, 기관지, 폐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 부위인 위에도 암 발생을 촉진하는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암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흡연을 지목하고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에 걸릴 위험이 1.6배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반대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들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따라서 금연은 가장 확실한 위암예방법이며, 간접흡연도 피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좋다. <br/> <br/> ◆과도한 염분 섭취 자제,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 <br/>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발암 물질에 취약하게 하고, 지속적인 자극으로 위축성 위염을 일으켜 위암의 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자극을 중화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 ◆음식물 냉장보관 <br/>고농도의 질산염이 들어 있는 건조, 훈제, 염장 음식, 조미료, 방부제, 색소 등을 장기간 섭취하면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음식 속의 질산염이 부분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각종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냉장 보관하면 변질 속도가 늦춰지므로 결과적으로 위암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다. <br/> <br/>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 <br/>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균은 전체 위암 환자의 반수 정도에서 관찰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위 내 세균증식 기회를 높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위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몇몇 연구에서는 항생제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였을 때 위암의 위험이 1.7%에서 1.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 <br/>그러나 위암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인에서 헬리코박터균의 치료가 위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위내시경 소견에서 장상피화생(위의 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한 것)을 보인 경우 등 위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헬리코박터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br/> <br/> ◆위내시경 검사 <br/>한국건강관리협회 윤지영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생률은 4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위암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복부팽만, 가스, 소화불량, 속 쓰림 등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r/> <br/> 위내시경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수 mm의 조기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방법으로 30~40대부터 매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 시기와 간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 중에 위암환자가 있거나, 이전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면 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더 이른 나이부터 좀 자주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2.txt

제목: 건강검진결과도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  
날짜: 20150902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5103271  
ID: 01100701.2016010722510327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9월부터 ‘검진결과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br/> <br/>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검진결과 인터넷 조회서비스’는 수검자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검진결과를 확인하는 간편 서비스다. <br/> <br/>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병원의 검진결과 확인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병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된다. <br/> <br/>PC의 경우 인터넷 검색기능을 사용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건강증진센터 페이지로 들어가 ‘검진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br/> <br/>스마트폰의 경우도 역시 병원명을 검색하면 모바일 버전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첫 화면의 검진결과 조회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br/> <br/>별도의 가입절차나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으며 결과 내용 인쇄는 물론 누적된 모든 검진결과 비교가 가능해 건강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br/> <br/>단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br/> <br/>서비스는 종합검진을 비롯해 특수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등 병원이 실시한 모든 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br/> <br/>이문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조만간 여러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편의성을 보완할 예정</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지역주민들의 병원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br/> <br/> 사진설명: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사람은 9월부터 검진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3.txt

제목: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  
날짜: 201508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3453653  
ID: 01100701.2016010722345365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 <br/> <br/> <br/>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필요하다. <br/> <br/> 면역력에 좋은 식재료는 사과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양파, 강황 등이 있다. <br/> <br/> 감기 예방하는 음식 첫번째 식재료는 사과식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 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 아미노산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두번째 식재료는 마늘이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며 14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2주 동안 고농도의 알리신을 섭취한 결과 감기에 걸릴 확률이 64% 감소했고 감기에 걸렸더라도 증상이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세번째 식재료는 생강이다. 생강의 진저롤은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다. 이 밖에도 항암효과와 해열과 진통 및 강력한 항염증효과가 있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네번째 식재료는 고추냉이다. 고추냉이는 여러 박테리아에 효과적이며 항생제 효능이 있다. 또한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효과적인 구충제 역할도 한다. 특히 혈류에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고추냉이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br/> <br/> <br/>감기 예방하는 음식 다섯번째 식재료는 양파로 양파의 케르세틴이라는 화합물은 암을 예방하고 위궤양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양파의 생리활성물질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br/> <br/> <br/>마지막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는 강황이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br/> <br/> <br/>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4.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본격 출범  
날짜: 20150828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3423593  
ID: 01100701.201601072234235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국내 최대의 종양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이 '항암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센터'를 개소해, 암 진단기술 및 항암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br/> <br/>'T2B 기반구축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은경 교수가 이끄는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를 항암분야 특화 센터로 지정했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7일 교육연구관 대강당에서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출범을 알리고, 항암후보물질과 암 진단 및 치료기술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전문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70억, 주관기관 지원금 35억 등 총 105억원의 투자를 활용해 국내외 신규 암치료기술과 신약후보물질 개발 가속화를 위한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 등 암 연구기반 강화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 <br/> <br/>최근 항암제 개발의 흐름이 면역체계 변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면역종양치료제에 주목하고 있고, 현재 이뤄지는 항암치료의 저항성 극복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델 확충 및 임상에 기반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br/> <br/>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암 전문 임상의사 30명을 핵심인력으로 꾸리고 국내외 임상자문 25명을 확보해 ▲초기 비임상 유효성평가 기반구축 ▲임상시료와 정보를 연계한 암 질환특화 평가모델 활용 ▲자문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 판단 ▲병원 내 연구역량을 활용한 과학적 종합 R&D 서비스 ▲국내외 항암기술의 현지화(glocalization)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글로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br/> <br/>또한 선진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아시아에서 빈발하는 간암과 위암, 췌담도암 등의 항암제 전임상 단계부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를 글로벌제약사의 연구 수주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br/> <br/>이날 개소식에는 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폴 커쉬마이어 박사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하킴 자바라 소장이 연자로 참석했으며, 해당 기관의 항암 유효성평가 인프라를 소개하고 서울아산병원의 글로벌제약사 연구 수주 및 보건의료제품의 국외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br/> <br/>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암 환자의 약 10%가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만큼, 국내 최대의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장점을 활용해 이제는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부터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최은경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장(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앞으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항암 후보물질, 암 진단법, 암 치료기술 등의 개발에 크게 기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T2B 기반구축센터의 전신으로 복지부가 시범 시행한 '질환중심 유형성평가기반 구축사업'에서 '국가지정 항암 선도기술 개발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제품화 1건, 기술이전 및 임상진입 2건, 후속정부과제 22건 등 여러 성과를 도출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본격 출범  
날짜: 2015082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8100000886  
ID: 01100701.2015082810000088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최대의 종양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이 '항암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센터'를 개소해, 암 진단기술 및 항암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T2B 기반구축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은경 교수가 이끄는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를 항암분야 특화 센터로 지정했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7일 교육연구관 대강당에서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출범을 알리고, 항암후보물질과 암 진단 및 치료기술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전문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은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70억, 주관기관 지원금 35억 등 총 105억원의 투자를 활용해 국내외 신규 암치료기술과 신약후보물질 개발 가속화를 위한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 등 암 연구기반 강화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최근 항암제 개발의 흐름이 면역체계 변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면역종양치료제에 주목하고 있고, 현재 이뤄지는 항암치료의 저항성 극복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델 확충 및 임상에 기반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의 강점으로 내세웠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암 전문 임상의사 30명을 핵심인력으로 꾸리고 국내외 임상자문 25명을 확보해 ▲초기 비임상 유효성평가 기반구축 ▲임상시료와 정보를 연계한 암 질환특화 평가모델 활용 ▲자문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 판단 ▲병원 내 연구역량을 활용한 과학적 종합 R&D 서비스 ▲국내외 항암기술의 현지화(glocalization)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글로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또한 선진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아시아에서 빈발하는 간암과 위암, 췌담도암 등의 항암제 전임상 단계부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를 글로벌제약사의 연구 수주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폴 커쉬마이어 박사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하킴 자바라 소장이 연자로 참석했으며, 해당 기관의 항암 유효성평가 인프라를 소개하고 서울아산병원의 글로벌제약사 연구 수주 및 보건의료제품의 국외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암 환자의 약 10%가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만큼, 국내 최대의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장점을 활용해 이제는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부터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은경 항암 T2B 기반구축센터장(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앞으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항암 후보물질, 암 진단법, 암 치료기술 등의 개발에 크게 기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T2B 기반구축센터의 전신으로 복지부가 시범 시행한 '질환중심 유형성평가기반 구축사업'에서 '국가지정 항암 선도기술 개발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제품화 1건, 기술이전 및 임상진입 2건, 후속정부과제 22건 등 여러 성과를 도출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6.txt

제목: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  
날짜: 20150828  
기자: 박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8100000654  
ID: 01100701.2015082810000065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감기 예방하는 음식 마늘, 감기 걸려도 70% 이상 증상 감소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필요하다.면역력에 좋은 식재료는 사과식초, 마늘, 생강, 고추냉이, 양파, 강황 등이 있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첫번째 식재료는 사과식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사과산 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 소금, 아미노산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두번째 식재료는 마늘이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며 14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2주 동안 고농도의 알리신을 섭취한 결과 감기에 걸릴 확률이 64% 감소했고 감기에 걸렸더라도 증상이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세번째 식재료는 생강이다. 생강의 진저롤은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 진통제, 진정제, 항 염증 및 항 박테리아 기능도 있다. 이 밖에도 항암효과와 해열과 진통 및 강력한 항염증효과가 있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네번째 식재료는 고추냉이다. 고추냉이는 여러 박테리아에 효과적이며 항생제 효능이 있다. 또한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효과적인 구충제 역할도 한다. 특히 혈류에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고추냉이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감기 예방하는 음식 다섯번째 식재료는 양파로 양파의 케르세틴이라는 화합물은 암을 예방하고 위궤양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양파의 생리활성물질은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마지막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는 강황이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7.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세포까지 진단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 도입  
날짜: 2015082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926924  
ID: 01100701.201601072229269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 도입식. 왼쪽부터 정혜철 호흡기내과 교수, 송말순 간호국장, 조주영 내시경센터장, 지훈상 분당차병원장, 홍성표 소화기내과장, 안희정 연구부원장, 김태웅 행정부원장.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내시경센터는 10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최첨단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Confocal Laser Endomicroscopy: CLE)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br/> <br/>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특정 파장의 형광만을 감지함으로써 생체조직 구조와 생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공초점 현미경'에 '특수 레이저 내시경'을 결합한 것이다. <br/> <br/>10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점막 표면과 점막하층의 세포, 조직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함으로써 광학적 조직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미경 내시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br/> <br/>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국내에 연구소와 대학병원 등 총 4대가 들어와 있으며, 일본은 10대, 미국과 유럽은 더 많은 상태로 현재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 업적이 발표되고 있다. <br/> <br/>한편 조주영 분당차병원 내시경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위암의 조기 진단과 관련하여 이미 미국 유명저널에 논문 두 편을 게재한 바 있다.  <br/> <br/>이 논문에 의하면 현미경 내시경은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전암단계인 위선종과 위암에 대한 진단 정확도가 94%에 달할 만큼 매우 높고 암세포의 분화도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동안 병을 진단하고 동시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 <br/> <br/>조주영 교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의 본격 도입으로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소화기암뿐만 아니라 비뇨기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암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유용성이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창조의료, 혁신의료에 알맞은 의료로 외국산 내시경에 의존하지 말고 국산 내시경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실제로 조주영 교수는 각종 내시경 치료도구와 3D프린터를 이용한 내시경캡을 개발하는 등 국산 의료장비 개발과 실용화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선두두자로 알려져 있다. <br/> <br/>분당차병원은 향후 공초첨 현미경 내시경을 전립선암, 신장암 등의 비뇨기암 수술과 종양의 경계가 불투명한 악성 뇌종양 수술, 폐암의 진단 및 수술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8.txt

제목: 분당차병원, 암세포까지 진단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 도입  
날짜: 2015082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7100000360  
ID: 01100701.2015082710000036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 도입식. 왼쪽부터 정혜철 호흡기내과 교수, 송말순 간호국장, 조주영 내시경센터장, 지훈상 분당차병원장, 홍성표 소화기내과장, 안희정 연구부원장, 김태웅 행정관리실장.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내시경센터는 10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최첨단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Confocal Laser Endomicroscopy: CLE)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특정 파장의 형광만을 감지함으로써 생체조직 구조와 생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공초점 현미경'에 '특수 레이저 내시경'을 결합한 것이다.10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점막 표면과 점막하층의 세포, 조직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함으로써 광학적 조직진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미경 내시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은 국내에 연구소와 대학병원 등 총 4대가 들어와 있으며, 일본은 10대, 미국과 유럽은 더 많은 상태로 현재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 업적이 발표되고 있다.한편 조주영 분당차병원 내시경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위암의 조기 진단과 관련하여 이미 미국 유명저널에 논문 두 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현미경 내시경은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전암단계인 위선종과 위암에 대한 진단 정확도가 94%에 달할 만큼 매우 높고 암세포의 분화도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동안 병을 진단하고 동시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조주영 교수는 "첨단 현미경 내시경의 본격 도입으로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소화기암뿐만 아니라 비뇨기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암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유용성이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창조의료, 혁신의료에 알맞은 의료로 외국산 내시경에 의존하지 말고 국산 내시경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조주영 교수는 각종 내시경 치료도구와 3D프린터를 이용한 내시경캡을 개발하는 등 국산 의료장비 개발과 실용화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선두두자로 알려져 있다.분당차병원은 향후 공초첨 현미경 내시경을 전립선암, 신장암 등의 비뇨기암 수술과 종양의 경계가 불투명한 악성 뇌종양 수술, 폐암의 진단 및 수술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89.txt

제목: 국립암센터-서울아산병원, 상호교류 협약 체결  
날짜: 2015082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528416  
ID: 01100701.20160107222528416  
카테고리: 사회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와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5일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 진료와 임상교육을 위한 기술적 협력,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 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그리고 각종 학술행사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br/> <br/>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번 상호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상호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서울아산병원 박성욱 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암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유소라 인턴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0.txt

제목: 국립암센터-서울아산병원, 상호교류 협약 체결  
날짜: 20150826  
기자: 유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6100000826  
ID: 01100701.2015082610000082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립암센터와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5일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 진료와 임상교육을 위한 기술적 협력,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 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그리고 각종 학술행사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번 상호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도 암 의료기관으로 상호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박성욱 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암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헬스팀 유소라 인턴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1.txt

제목: 선병원, 세계 석학 마사시 사이토 초청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82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046992  
ID: 01100701.201601072220469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선병원재단 유성선병원 암센터는 2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이자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주치의였던 마사시 사이토 박사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br/> <br/>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병원을 찾은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종양내과 전문의이자 안티에이징(항노화) 관련 미국 전문의로 미국, 유럽 등을 오가며 안티에이징과 면역력을 이용한 암 치료 전문가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석학이다. <br/> <br/>특히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면역체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칙을 발견한 업적으로 2011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랄프 스타인만 박사의 수제자다. <br/> <br/>이번 심포지엄에서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수술·항암제·방사선 치료에 이어 ‘제 4의 암 치료법’으로 불리는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와 ALA-PDT에 대해 소개했으며, 선병원 암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은 물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br/> <br/>광역동 치료(PDT)는 빛을 조사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종양 조직을 파괴하는 광감각제를 정맥주사로 암조직에 축적시킨 후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br/> <br/>광역동 치료법은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 및 부작용이 적고 약제 내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령이나 전신 쇠약 등으로 일반적인 암 치료를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환자에서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광감각제인 ALA와 함께 항암치료나 온열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선두훈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선병원 암센터는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암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기술과 임상연구 동향을 반영하고자 매년 이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고 선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암 치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선병원은 2012년 암센터 개원 이후 암 등록환자가 5600여명을 넘어섰으며, 골종양·소아정형 분야 명의 이승구 박사, 부인암수술 분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석철 박사를 비롯해 각 장기별로 복강경 암수술이 가능한 외과 및 혈액종양내과팀 명의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암 치료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2.txt

제목: 제일약품, 대장암 치료제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0825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2159365  
ID: 01100701.2016010722215936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과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이 공동으로 환자 맞춤형 신규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br/> <br/> 제일약품은 최근 '국립 암 센터'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신규 대장암 치료제 'JPI-547'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 'JPI-547'은 암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들을 표적으로 하는 신규 경구용 항암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NRF-2013M3A9A9051530)에 선정되어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도출 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 선도형 암 연구사업단(단장 이정신)의 김태원(종양내과), 진동훈(융합의학과)교수팀이 중개연구를 통해 대장암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 특허출원과 함께 제일약품으로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 신약 후보물질이다. <br/> <br/> 김인철 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은 "제일약품에서 개발한 'JPI-547'은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보유하여 크게 기대되는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 전임상, 임상1상 및 초기 효력 임상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되며 'JPI-547'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br/> <br/> 이에 제일약품 성석제 대표이사는 "대장암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 종으로 재발 시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 'JPI-547'은 신규 바이오마커를 적용한 국내 최초의 대장암 치료제로서 항암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환자 맞춤형 표적 항암 치료제이다. 앞으로  신속한 임상 2A시험을 통한 글로벌 기술이전과 동시에 국내 임상 3상을 Fast tract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r/> <br/> 한편 국립 암 센터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며, 이중 대장암은 해마다 매우 높은 사망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장암은 남성에게서 위암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45명에 달해 육식을 즐기는 서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3.txt

제목: 선병원, 세계 석학 마사시 사이토 초청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82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522  
ID: 01100701.201508251000005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선병원재단 유성선병원 암센터는 2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의 저자이자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주치의였던 마사시 사이토 박사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병원을 찾은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종양내과 전문의이자 안티에이징(항노화) 관련 미국 전문의로 미국, 유럽 등을 오가며 안티에이징과 면역력을 이용한 암 치료 전문가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석학이다.특히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면역체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칙을 발견한 업적으로 2011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랄프 스타인만 박사의 수제자다.이번 심포지엄에서 마사시 사이토 박사는 수술·항암제·방사선 치료에 이어 ‘제 4의 암 치료법’으로 불리는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와 ALA-PDT에 대해 소개했으며, 선병원 암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은 물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광역동 치료(PDT)는 빛을 조사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종양 조직을 파괴하는 광감각제를 정맥주사로 암조직에 축적시킨 후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이다.광역동 치료법은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 및 부작용이 적고 약제 내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령이나 전신 쇠약 등으로 일반적인 암 치료를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환자에서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광감각제인 ALA와 함께 항암치료나 온열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두훈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선병원 암센터는 세계 석학들의 수준 높은 암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기술과 임상연구 동향을 반영하고자 매년 이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고 선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암 치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span>”고 말했다.한편 선병원은 2012년 암센터 개원 이후 암 등록환자가 5600여명을 넘어섰으며, 골종양·소아정형 분야 명의 이승구 박사, 부인암수술 분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석철 박사를 비롯해 각 장기별로 복강경 암수술이 가능한 외과 및 혈액종양내과팀 명의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암 치료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4.txt

제목: 제일약품, 대장암 치료제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0825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5100000856  
ID: 01100701.2015082510000085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과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이 공동으로 환자 맞춤형 신규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제일약품은 최근 '국립 암 센터'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신규 대장암 치료제 'JPI-547'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JPI-547'은 암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들을 표적으로 하는 신규 경구용 항암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NRF-2013M3A9A9051530)에 선정되어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도출 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 선도형 암 연구사업단(단장 이정신)의 김태원(종양내과), 진동훈(융합의학과)교수팀이 중개연구를 통해 대장암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 특허출원과 함께 제일약품으로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 신약 후보물질이다.김인철 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은 "제일약품에서 개발한 'JPI-547'은 신규 동반 진단 바이오마커를 보유하여 크게 기대되는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 전임상, 임상1상 및 초기 효력 임상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되며 'JPI-547'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이에 제일약품 성석제 대표이사는 "대장암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 종으로 재발 시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 'JPI-547'은 신규 바이오마커를 적용한 국내 최초의 대장암 치료제로서 항암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환자 맞춤형 표적 항암 치료제이다. 앞으로  신속한 임상 2A시험을 통한 글로벌 기술이전과 동시에 국내 임상 3상을 Fast tract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한편 국립 암 센터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며, 이중 대장암은 해마다 매우 높은 사망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장암은 남성에게서 위암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45명에 달해 육식을 즐기는 서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5.txt

제목: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청소년 다빈치 교실' 진행  
날짜: 2015082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21539384  
ID: 01100701.2016010722153938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제공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지난 20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의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청소년 다빈치 교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직접 작동하며 로봇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공학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br/> <br/>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다빈치 교실’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등록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br/> <br/>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빈치 로봇수술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의사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가상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로봇 팔을 움직여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미래의 꿈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 받았다. <br/> <br/>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손승완 부사장은 “<span class='quot0'>다빈치 로봇수술기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육성의 중심에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탄생한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 참여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다빈치 로봇수술기’는 540도까지 회전 가능한 인공손목, 3차원 입체 화면 및 10배까지 수술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주요 암 수술과 양성 질환 수술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기준으로 국내 41개 병원에 53대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6.txt

제목: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청소년 다빈치 교실' 진행  
날짜: 201508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4100000707  
ID: 01100701.201508241000007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제공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지난 20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의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소년 다빈치 교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직접 작동하며 로봇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공학 분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다빈치 교실’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등록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빈치 로봇수술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의사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가상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로봇 팔을 움직여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미래의 꿈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 받았다.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손승완 부사장은 “<span class='quot0'>다빈치 로봇수술기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문화 및 창의인재 육성의 중심에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청소년 다빈치 교실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탄생한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한편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는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 참여해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다빈치 로봇수술기’는 540도까지 회전 가능한 인공손목, 3차원 입체 화면 및 10배까지 수술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주요 암 수술과 양성 질환 수술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기준으로 국내 41개 병원에 53대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7.txt

제목: 살찌는 원리 유전자서 찾았다…"비만치료의 신기원"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20100000127  
ID: 01100701.2015082010000012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살이 찌도록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확인돼 혁신적 비만 치료법이 등장할지 기대가 부풀고 있다.19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은 FTO라고 불리는 유전자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부위와 작동 원리를 확인했다. 그간 FTO 유전자가 뇌를 움직여 식욕이나 음식 선택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나온 적이 있으나 지방을 쌓거나 태우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는 처음이다. 마놀리스 켈리스 MIT 교수는 "비만이 음식 섭취와 운동의 불균형 탓에 생긴다는 전통적 견해를 떠나 유전자가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떨어져 있는 IRX3, IRX5 등 두 유전자가 발현하면 지방세포에 영향을 미쳐 체내에 쌓이는 지방의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는 이들 유전자의 기능을 누그러뜨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방안이 곧 획기적 비만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쥐의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미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진대사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50％나 날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멜리나 클로스니처 MIT 객원교수는 "유전자가 변형된 쥐는 고지방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로스니처 교수는 "실험대상인 쥐는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신진대사와 관련한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체와 관련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례 없이 효과적인 비만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5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당뇨,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보건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미국 메인메디컬센터연구소의 클리프 로전 박사는 "이번 연구는 큰 발견"이라며 "약물로 지방세포의 작동 방식을 바꿔 비만을 치료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8.txt

제목: 암 정보에 만족도 증가하면 의사결정 갈등 감소로 이어진다  
날짜: 20150818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721195  
ID: 01100701.2016010721472119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 <br/> <br/>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개인 및 임상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 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최신호 (Impact factor: 7.04)에 게재했다. <br/> <br/>연구팀은 국내 병원의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공받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질환 정보에서는 56%, 치료 정보에서는 73%, 기타 의료 서비스 정보에서는 8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약 80%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 로 응답했다. <br/> <br/>‘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 학력수준이 낮을 때(고졸 미만) 1.5배 ▲ 소득이 낮을 때(연소득 2천만원 미만) 1.4배 ▲ 미혼일 때 1.5배 높았다. 또한 ▲ 예후가 좋은 암일 때 2.16배 ▲ 치료 초기 시점일 때 1.5배 높았다. <br/> <br/>‘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높았다. <br/> <br/>‘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이란 환자 및 보호자가 정신적, 육체적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를 말한다. <br/> <br/>질환 정보, 검사 정보, 치료 정보, 병원 밖 기타 지원 정보, 문서로 제공 받는 정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각각 1.7배, 1.9배, 2.9배, 2.8배, 1.8배 높았다. <br/> <br/>윤영호 교수는 “최근 병원 내 정보교육센터들이 생기고 있으나 여전히 암환자들은 정보 제공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책자, 동영상, 인터넷 프로그램 등 환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개발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br/> <br/>윤 교수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암환자를 둘러싼 의사결정 갈등을 줄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환자 교육의 임상시험, 이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299.txt

제목: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536773  
ID: 01100701.20160107214536773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사진= YTN)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br/> <br/>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조문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다. <br/> <br/> CJ그룹은 어제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중국에서부터 시신을 운구했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br/> <br/> 조문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br/> <br/> 장례는 CJ그룹장으로 7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CJ 인재원에서 열린다. <br/> <br/> 이맹희 CJ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으로 암으로 투병해오다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 한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부회장이 조문했다. 지난 17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약 13분간 머물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0.txt

제목: 암 정보에 만족도 증가하면 의사결정 갈등 감소로 이어진다  
날짜: 201508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000788  
ID: 01100701.20150818100000788  
카테고리: 사회  
본문: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개인 및 임상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 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최신호 (Impact factor: 7.04)에 게재했다.연구팀은 국내 병원의 암환자 625명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공받는 암 정보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 정도를 분석했다.그 결과, ‘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질환 정보에서는 56%, 치료 정보에서는 73%, 기타 의료 서비스 정보에서는 8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약 80%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 로 응답했다.‘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 학력수준이 낮을 때(고졸 미만) 1.5배 ▲ 소득이 낮을 때(연소득 2천만원 미만) 1.4배 ▲ 미혼일 때 1.5배 높았다. 또한 ▲ 예후가 좋은 암일 때 2.16배 ▲ 치료 초기 시점일 때 1.5배 높았다.‘제공받는 암 정보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높았다.‘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이란 환자 및 보호자가 정신적, 육체적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를 말한다.질환 정보, 검사 정보, 치료 정보, 병원 밖 기타 지원 정보, 문서로 제공 받는 정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암 치료 의사결정 시 갈등의 정도가 각각 1.7배, 1.9배, 2.9배, 2.8배, 1.8배 높았다.윤영호 교수는 “최근 병원 내 정보교육센터들이 생기고 있으나 여전히 암환자들은 정보 제공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책자, 동영상, 인터넷 프로그램 등 환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개발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윤 교수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암환자를 둘러싼 의사결정 갈등을 줄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환자 교육의 임상시험, 이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1.txt

제목: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날짜: 2015081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810018266936  
ID: 01100701.2015081810018266936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사진= YTN)고 이맹희 CJ명예회장 조문 시작…이재용 부회장 조문 <br/> <br/>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조문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다. <br/> <br/>CJ그룹은 어제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중국에서부터 시신을 운구했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br/> <br/>조문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br/> <br/>장례는 CJ그룹장으로 7일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CJ 인재원에서 열린다. <br/> <br/>이맹희 CJ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으로 암으로 투병해오다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한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부회장이 조문했다. 지난 17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약 13분간 머물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2.txt

제목: 한국유방암학회, 유전성유방암 발생위험 규명  
날짜: 20150817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4104855  
ID: 01100701.201601072141048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한국유방암학회가 17일 유전성유방암 유전자를 보유한 국내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br/> <br/>BRCA1과 BRCA2 유전자 돌연변이에 기인한 한국인 유방암 위험도(Breast cancer risk for Korean women with germline mutations in BRCA1 and BRCA2)로 명명된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가 70세까지 생존 시의 유방암 발생률을 최초로 규명했다. <br/> <br/>연구 결과 BRCA1 보인자는 70세까지 누적되는 유방암 발생률은 49%였다. BRCA2 보인자의 경우 35%인 것으로 밝혀졌다. <br/> <br/>50세까지는 BRCA1 보인자는 27%, BRCA2 보인자 18%으로 누적 발생률을 보여 서구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BRCA1 보인자 중 가장 높은 누적 발생률이 있는 사람은 98%에 달하기도 했다. <br/> <br/>이번 연구에서는 BRCA 보인자의 연령대별 향후 10년간 유방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BRCA1 보인자의 경우 40세가 19.5%, 50세가 18.4%로 높은 유방암 발생률을 기록했다. <br/> <br/>BRCA2 보인자 역시 40세(12.8%)와 50세(12.0%)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해 BRCA1·BRCA2 보인자 모두 4-50대에 유방암 발생률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br/> <br/>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의 책임연구자이자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이번 연구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의 평균적인 누적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누적 위험이 최소 11%에서 최대 98%까지 편차가 큰 만큼 환자 별 맞춤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수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r/> <br/>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의 또 다른 참여자인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수경 교수는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맞춤 예방 치료 및 수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유방암학회는 국내 여성의 유방암 예방과 수준 높은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박보영 박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연구에 참여한 151명의 BRCA1 돌연변이 보인자와 225명의 BRCA2 돌연변이 보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br/> <br/>연구진은 유전형질 확인법을 조건으로 암 가족력에 대한 수정된 분리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인구 대비 여성 보인자의 평균 연령별 누적 위험도를 추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3.txt

제목: 한국유방암학회, 유전성유방암 발생위험 규명  
날짜: 2015081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000828  
ID: 01100701.2015081710000082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유방암학회가 17일 유전성유방암 유전자를 보유한 국내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BRCA1과 BRCA2 유전자 돌연변이에 기인한 한국인 유방암 위험도(Breast cancer risk for Korean women with germline mutations in BRCA1 and BRCA2)로 명명된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가 70세까지 생존 시의 유방암 발생률을 최초로 규명했다.연구 결과 BRCA1 보인자는 70세까지 누적되는 유방암 발생률은 49%였다. BRCA2 보인자의 경우 35%인 것으로 밝혀졌다.50세까지는 BRCA1 보인자는 27%, BRCA2 보인자 18%으로 누적 발생률을 보여 서구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BRCA1 보인자 중 가장 높은 누적 발생률이 있는 사람은 98%에 달하기도 했다.이번 연구에서는 BRCA 보인자의 연령대별 향후 10년간 유방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BRCA1 보인자의 경우 40세가 19.5%, 50세가 18.4%로 높은 유방암 발생률을 기록했다.BRCA2 보인자 역시 40세(12.8%)와 50세(12.0%)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해 BRCA1·BRCA2 보인자 모두 4-50대에 유방암 발생률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의 책임연구자이자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이번 연구는 유전성유방암 보인자의 평균적인 누적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누적 위험이 최소 11%에서 최대 98%까지 편차가 큰 만큼 환자 별 맞춤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수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의 또 다른 참여자인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수경 교수는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맞춤 예방 치료 및 수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유방암학회는 국내 여성의 유방암 예방과 수준 높은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박보영 박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연구에 참여한 151명의 BRCA1 돌연변이 보인자와 225명의 BRCA2 돌연변이 보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연구진은 유전형질 확인법을 조건으로 암 가족력에 대한 수정된 분리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인구 대비 여성 보인자의 평균 연령별 누적 위험도를 추산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4.txt

제목: 중견 창작자 방전된 영감 채워드려요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7100000222  
ID: 01100701.2015081710000022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프로듀서, 감독, 작가 등 중견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소재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 창작소재 발굴 워크숍’을 25일부터 5주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사, 프로파일러, 스포츠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콜드케이스 ▲스포츠의 빛과 어둠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목요일 주제별로 모두 5회에 걸쳐 특강을 할 예정이다. 한국 1기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한국의 콜드케이스’를 주제로 실제 장기 미제사건을 공개한다. 다양한 범죄 사례와 과학수사기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스포츠의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조태룡 넥센히어로즈 단장, 최준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이 참가해 프로스포츠의 검은손, 스포츠 마케팅 해부학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명과 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과정에서는 중원대 한국학과 서영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고구려 왕비 우씨, 신라 경덕왕비 만월부인, 백제사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왕비 고은 등 여성을 둘러싼 역사적 비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와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김세현 교수 등은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줄기세포, 양·한방, 의료권력,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 중 1편 이상의 시나리오 창작, 연출, 프로듀싱, 제작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에 20명씩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작자들은 18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culture@cultureinsight.org)로 제출하면 된다.강구열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5.txt

제목: 중견 창작자 방전된 영감 채워드려요  
날짜: 20150816  
기자: 강구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816505  
ID: 01100701.20160107213816505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프로듀서, 감독, 작가 등 중견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소재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 창작소재 발굴 워크숍’을 25일부터 5주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br/> <br/>이번 워크숍에는 의사, 프로파일러, 스포츠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콜드케이스 ▲스포츠의 빛과 어둠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목요일 주제별로 모두 5회에 걸쳐 특강을 할 예정이다. <br/> <br/>한국 1기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한국의 콜드케이스’를 주제로 실제 장기 미제사건을 공개한다. 다양한 범죄 사례와 과학수사기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스포츠의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조태룡 넥센히어로즈 단장, 최준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이 참가해 프로스포츠의 검은손, 스포츠 마케팅 해부학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명과 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br/> <br/>‘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과정에서는 중원대 한국학과 서영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고구려 왕비 우씨, 신라 경덕왕비 만월부인, 백제사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왕비 고은 등 여성을 둘러싼 역사적 비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br/> <br/>이밖에도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와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김세현 교수 등은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줄기세포, 양·한방, 의료권력,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br/> <br/>워크숍은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 중 1편 이상의 시나리오 창작, 연출, 프로듀싱, 제작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에 20명씩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작자들은 18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culture@cultureinsight.org)로 제출하면 된다. <br/> <br/>강구열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6.txt

제목: 중견 창작자 방전된 영감 채워드려요  
날짜: 20150816  
기자: 강구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610018248078  
ID: 01100701.2015081610018248078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프로듀서, 감독, 작가 등 중견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소재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 창작소재 발굴 워크숍’을 25일부터 5주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br/> <br/>이번 워크숍에는 의사, 프로파일러, 스포츠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콜드케이스 ▲스포츠의 빛과 어둠 ▲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목요일 주제별로 모두 5회에 걸쳐 특강을 할 예정이다. <br/> <br/>한국 1기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한국의 콜드케이스’를 주제로 실제 장기 미제사건을 공개한다. 다양한 범죄 사례와 과학수사기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스포츠의 빛과 어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조태룡 넥센히어로즈 단장, 최준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이 참가해 프로스포츠의 검은손, 스포츠 마케팅 해부학 등 스포츠 전반에 걸친 명과 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br/> <br/>‘왕을 만든 고대의 여인들’ 과정에서는 중원대 한국학과 서영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고구려 왕비 우씨, 신라 경덕왕비 만월부인, 백제사에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왕비 고은 등 여성을 둘러싼 역사적 비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br/> <br/>이밖에도 분당차병원 김민영 교수와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김세현 교수 등은 ‘의료계를 둘러싼 핫이슈’를 주제로 줄기세포, 양·한방, 의료권력,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이슈를 소개할 예정이다. <br/> <br/>워크숍은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 중 1편 이상의 시나리오 창작, 연출, 프로듀싱, 제작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정에 20명씩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작자들은 18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culture@cultureinsight.org)로 제출하면 된다. <br/> <br/>강구열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7.txt

제목: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날짜: 201508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13007668  
ID: 01100701.20160107213007668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br/> <br/>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 14일 CJ그룹 측은 “이맹희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9시 39분 별세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 <br/> 앞서 이명희 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면서도 부친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경영에서 배제돼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br/> <br/>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폐암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돼 그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8.txt

제목: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날짜: 201508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1410018239148  
ID: 01100701.2015081410018239148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14일 별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형" <br/> <br/>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중국에서 별세했다.  <br/> <br/>14일 CJ그룹 측은 “이맹희 전 회장이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각 9시 39분 별세했다”고 밝혔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br/> <br/>앞서 이명희 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면서도 부친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경영에서 배제돼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br/> <br/>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폐암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돼 그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09.txt

제목: 모유 먹는 신생아의 8%, 하루 섭취 제한량 이상 DEHP(환경호르몬) 섭취  
날짜: 2015080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3839887  
ID: 01100701.20160107203839887  
카테고리: 사회  
본문:   <br/> <br/>  모유를 먹는 우리나라 신생아의 8%가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일종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하루 섭취제한량 이상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DOP라고도 불리는 DEHP는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DEHP는 또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했으며 사람에게 암,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5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이 지난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62명의 모유에서 DEHP, DnBP 등 환경호르몬 물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br/> <br/>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모유의 프탈레이트 유도체 농도: 프탈레이트 노출 정도와 모유를 먹은 신생아의 잠재적 위험 평가)는 국제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 신생아가 모유를 통해 매일 섭취하는 DEHP의 양은 아이의 체중 ㎏당 0.91∼6.52㎍ 수준이었다. 신생아는 또 모유를 통해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nBP(디니트로부틸프탈레이트)를 하루에 자신의 체중 ㎏당 평균 0.38∼1.43㎍씩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최 교수는 이를 근거로 “<span class='quot0'>모유를 먹은 62명의 신생아 중 5명(8%)은 하루 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DEHP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0'>4명(6%)은 DnBP를 1일 섭취제한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추산됐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DEHP는 국내에서 약 20년 전에 대형 식품 파동을 일으켰던 물질로도 유명하다. 당시 유아용 분유에 DEHP가 들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다. <br/> <br/>  또 미국에선 DnBPㆍ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에 임산부가 과다 노출되면 태어난 아이의 지능지수(IQ)가 또래보다 6∼7점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온라인 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에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를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산모가 PC 소재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랩 등 1회용 식품포장과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를 줄이면 모유 내 DEHPㆍDnBP 등 프탈레이트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게다가 프탈레이트는 인체 내에서 생물학적 반감기(10∼12시간)가 짧아 산모가 약간만 주의해도 아이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2007년 금산사 템플 스테이(사찰 체험)에 참가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박5일간의 사찰음식 섭취 후 체내 프탈레이트가 급감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프탈레이트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했다. EU(유럽연합)는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불허했다. 우리 정부는 식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와 함께, 플라스틱 완구ㆍ어린이용 제품에서 DEHPㆍ디부틸프탈레이트(DBP)ㆍ벤질부틸프탈레이트(BzBP) 등 프탈레이트 3종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br/> <br/>  프탈레이트를 비롯해 비스페놀Aㆍ노닐페놀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들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에 나섰다.  <br/> <br/>  미래부의 3년 과제(총 연구비 65억원)인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사업단’ 단장인 한양대 생명과학부 계명찬 교수는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가 든 장난감이나 용품 등을 아이가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돼 아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를 대체할 안전한 물질을 개발해 상품화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의 최종 목표</span>”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0.txt

제목: 모유 먹는 신생아의 8%, 하루 섭취 제한량 이상 DEHP(환경호르몬) 섭취  
날짜: 20150805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510018145192  
ID: 01100701.20150805100181451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모유를 먹는 우리나라 신생아의 8%가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일종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하루 섭취제한량 이상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DOP라고도 불리는 DEHP는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DEHP는 또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했으며 사람에게 암,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5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이 지난 2012년 4∼8월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 5개 대학병원에서 분만한지 1개월 된 산모 62명의 모유에서 DEHP, DnBP 등 환경호르몬 물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br/> <br/>이 연구결과(한국에서 모유의 프탈레이트 유도체 농도: 프탈레이트 노출 정도와 모유를 먹은 신생아의 잠재적 위험 평가)는 국제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 신생아가 모유를 통해 매일 섭취하는 DEHP의 양은 아이의 체중 ㎏당 0.91∼6.52㎍ 수준이었다. 신생아는 또 모유를 통해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nBP(디니트로부틸프탈레이트)를 하루에 자신의 체중 ㎏당 평균 0.38∼1.43㎍씩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최 교수는 이를 근거로 “<span class='quot0'>모유를 먹은 62명의 신생아 중 5명(8%)은 하루 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DEHP를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0'>4명(6%)은 DnBP를 1일 섭취제한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추산됐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DEHP는 국내에서 약 20년 전에 대형 식품 파동을 일으켰던 물질로도 유명하다. 당시 유아용 분유에 DEHP가 들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다. <br/> <br/> 또 미국에선 DnBPㆍ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에 임산부가 과다 노출되면 태어난 아이의 지능지수(IQ)가 또래보다 6∼7점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온라인 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에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를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산모가 PC 소재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랩 등 1회용 식품포장과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를 줄이면 모유 내 DEHPㆍDnBP 등 프탈레이트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게다가 프탈레이트는 인체 내에서 생물학적 반감기(10∼12시간)가 짧아 산모가 약간만 주의해도 아이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2007년 금산사 템플 스테이(사찰 체험)에 참가한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박5일간의 사찰음식 섭취 후 체내 프탈레이트가 급감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프탈레이트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했다. EU(유럽연합)는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불허했다. 우리 정부는 식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와 함께, 플라스틱 완구ㆍ어린이용 제품에서 DEHPㆍ디부틸프탈레이트(DBP)ㆍ벤질부틸프탈레이트(BzBP) 등 프탈레이트 3종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br/> <br/> 프탈레이트를 비롯해 비스페놀Aㆍ노닐페놀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들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에 나섰다.  <br/> <br/> 미래부의 3년 과제(총 연구비 65억원)인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사업단’ 단장인 한양대 생명과학부 계명찬 교수는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가 든 장난감이나 용품 등을 아이가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돼 아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프탈레이트를 대체할 안전한 물질을 개발해 상품화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의 최종 목표</span>”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1.txt

제목: 휴대폰 전자파가 뇌암 발생률 및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발병률 높인다  
날짜: 2015080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3225806  
ID: 01100701.201601072032258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휴대폰 사용이 잠재적으로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3일 영국 메일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휴대폰 등 와이파이용 전자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병과 같은 뇌 질환과 암을 포함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연구에 따르면 전자파 노출이 인체 내 유해산소를 증가시키는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각종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휴대폰 사용이 근본적으로 인체의 DNA을 어떻게 손상시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으로 생체 세포를 전자파에 노출시켰을 때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br/> <br/>우크라이나 국립과학학술원의 이고르 야키멘코 박사는 전자파 노출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증가가 와이파이용 장치와 암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br/> <br/>아키멘코 박사는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두통, 피곤 및 피부 손상 등의 가벼운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고 말했다. <br/> <br/>아키멘코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반응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화학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응분자로 산소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자연 부산물로 형성되면 세포 신호전달과 체온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이러한 활성산소인 반응산소종(ROS)가 갑자기 증가하면 인체 세포의 구조가 주요한 손상을 입는 산화스트레스가 일어난다. <br/> <br/>◆전자파 노출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는 산화스트레스가 노화 및 암 유발 <br/> <br/>다시 말해, 우리 몸은 체내의 활성산소(유해산소) 양을 자체적으로 조절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유해산소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경우 유해산소에 의한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에 따른 유해산소의 부작용을 산화스트레스라 하며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어 산화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br/> <br/>아키멘코 박사는 발표된 논문에서 “반응산소종(ROS)은 일반적인 전자파노출로 인한 주위 환경이 안 좋게 바뀔 때 세포 내에 생성된다”며 “이번의 실험 데이타는 인체 건강에 전자파 노출이 실제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고 밝혔다. <br/> <br/>그는 “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하고 하루 1시간씩 휴대폰을 4년 이상 이용하면 양성뇌종양 발생률이 5배까지 증가 할 수 있다”고 뉴욕데일리 뉴스에서 언급했다. <br/> <br/>◆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 <br/> <br/>그는 “이번 실험 데이터는 주로10년 이상 휴대폰을 쓴 성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다”며 “. 이러한 상황이 어릴 적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는 경우 평생에 걸쳐 훨씬 더 인체생물학적으로 더 위험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현재 악성 뇌종양인 뇌암 발생률이 높지 않더라도 항상 건강과 관련해 일어나는 재앙은 몇 십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의와 계몽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 <br/>아키멘코 박사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핸드프리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휴대폰 전자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인디아나대학과 동부핀란드대학 그리고 브라질 콤피나스대학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전자기파 바이오로지 및 의학 학술지(journal Electromagnetic Biology & Medicine )의 휴대폰 안전에 대한 장기적 탐사 최신판에 게재되었다. <br/> <br/>한편 휴대폰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생률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15년 걸쳐 수많은 논문 발표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br/>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2.txt

제목: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 국내 최초 난소암 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5080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2934777  
ID: 01100701.2016010720293477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 <br/>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재발된 난소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동시에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치료를 병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테스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br/> <br/>상피성 난소암은 가장 치사율이 높은 여성암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워 대부분 3기 이상의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고,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더라도 대부분 재발한다. <br/> <br/>특히,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 항암제 저항성이 생겨 결국 복강내 종양과 복수가 장폐색을 일으키고 면역저하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대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 중의 하나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사안이다. <br/> <br/>이 치료법의 핵심인 면역세포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자신의 말초혈액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분리한 후 특이 항원과 면역 자극 싸이토카인인 인터루킨 2(IL-2)를 첨가해 배양한다. 이를 암세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림프구 세포인 자연살해세포(NK 세포), 자연살해T세포(NK-T 세포) 등으로 분화?증식시킨 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된다. <br/> <br/>3주 간격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며, 항암제 투여 후 1주째와 2주째에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한다. 임상시험 참가자는 3주기의 항암화학요법과 더불어 최대 6회의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 받는다. <br/> <br/>대부분의 재발성 난소암 환자는 장기간의 항암화학요법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인데, 면역세포치료제는 면역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자기 혈액에서 추출된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 없어 부작용이 적고, 정맥주사로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r/> <br/>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주원덕 교수는 “최근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암 치료에서 T림프구,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을 이용한 면역치료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br/> <br/>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화학요법과 자가살해세포 병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r/> <br/>이번 임상시험은 1단계에서 3명에 대해 면역세포치료제 투여 후 안전성 평가를 통해 2단계에서 추가 3명에 대해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조직학적 검사에서 상피성 난소암으로 확진 되었으며, 표준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환자 등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br/> <br/>이번 임상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자연살해세포(Autologus Killer Cell)”는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3.txt

제목: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 오는 10월 추가 발표돼  
날짜: 2015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528  
ID: 01100701.2015080410000052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국제개별화의료학회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제21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오는 10월 17일 오사카에서 ‘개별화의료의 신시대’라는 주제로 개최될 전망이다.암이란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며 조직과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를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경시키는 상태다. 이 암 치료에 수지상세포의 역할을 강조되고 있다.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별 증상에 따라 별도의 적절한 치료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구조를 지닌 인체는 2만 개 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약 60조의 세포가 존재한다. 개별화의료는 암에 관여하는 유전자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국제개별화의료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인마다 다른 유전자와 천차만별인 암의 성질을 무시한 채 대규모 집단조사의 평균결과에 기반을 둔 표준치료에만 의존해 왔다.인체 면역계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수지상세포를 잘 활용하면 암 치료도 개별화의료 즉, 개인별 맞춤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아베 이사장의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은, 인체에 약 8%만이 존재하는 단구(수지상세포의 원료)를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수지상세포를 분리한 후 개인 맞춤형 항원을 추가해 암백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 수시장세포 암백신’ 치료다. 개인 맞춤형 암 항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4~5종이 추가된다.아베 이사장은 지난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를 발표했다.89세, 고령의 여성 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확연하게 축소됐음이 발견됐다. 치료에 사용된 암항원은 GV1001, NEWWT1, CA125, MAGEA3 등이다.또한, 전이·재발 암 환자에서는 70%,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와 NEW NK 세포치료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치료에서는 74.4%의 유효한 치료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베 이사장의 설명이다.아베종양내과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을 선정된 바 있으며, 약 10여종의 암항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췌장암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원으로, 국내서도 잘 알려져 있다.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아베종양내과와 공동 연구 중이며, 아베 이사장은 제21회 학술발표에서 추가 임상치료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4.txt

제목: 휴대폰 전자파가 뇌암 발생률 및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발병률 높인다  
날짜: 201508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976  
ID: 01100701.2015080410000097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휴대폰 사용이 잠재적으로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3일 영국 메일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휴대폰 등 와이파이용 전자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병과 같은 뇌 질환과 암을 포함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에 따르면 전자파 노출이 인체 내 유해산소를 증가시키는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각종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휴대폰 사용이 근본적으로 인체의 DNA을 어떻게 손상시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으로 생체 세포를 전자파에 노출시켰을 때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우크라이나 국립과학학술원의 이고르 야키멘코 박사는 전자파 노출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증가가 와이파이용 장치와 암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아키멘코 박사는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두통, 피곤 및 피부 손상 등의 가벼운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고 말했다.아키멘코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반응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화학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응분자로 산소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자연 부산물로 형성되면 세포 신호전달과 체온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러한 활성산소인 반응산소종(ROS)가 갑자기 증가하면 인체 세포의 구조가 주요한 손상을 입는 산화스트레스가 일어난다.◆전자파 노출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는 산화스트레스가 노화 및 암 유발다시 말해, 우리 몸은 체내의 활성산소(유해산소) 양을 자체적으로 조절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유해산소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경우 유해산소에 의한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른 유해산소의 부작용을 산화스트레스라 하며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어 산화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아키멘코 박사는 발표된 논문에서 “반응산소종(ROS)은 일반적인 전자파노출로 인한 주위 환경이 안 좋게 바뀔 때 세포 내에 생성된다”며 “이번의 실험 데이타는 인체 건강에 전자파 노출이 실제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고 밝혔다.그는 “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하고 하루 1시간씩 휴대폰을 4년 이상 이용하면 양성뇌종양 발생률이 5배까지 증가 할 수 있다”고 뉴욕데일리 뉴스에서 언급했다.◆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그는 “이번 실험 데이터는 주로10년 이상 휴대폰을 쓴 성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다”며 “. 이러한 상황이 어릴 적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는 경우 평생에 걸쳐 훨씬 더 인체생물학적으로 더 위험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악성 뇌종양인 뇌암 발생률이 높지 않더라도 항상 건강과 관련해 일어나는 재앙은 몇 십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의와 계몽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키멘코 박사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핸드프리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휴대폰 전자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인디아나대학과 동부핀란드대학 그리고 브라질 콤피나스대학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전자기파 바이오로지 및 의학 학술지(journal Electromagnetic Biology & Medicine )의 휴대폰 안전에 대한 장기적 탐사 최신판에 게재되었다.한편 휴대폰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생률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15년 걸쳐 수많은 논문 발표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5.txt

제목: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 국내 최초 난소암 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508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1008  
ID: 01100701.2015080410000100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주원덕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재발된 난소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동시에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치료를 병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테스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상피성 난소암은 가장 치사율이 높은 여성암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워 대부분 3기 이상의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고,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더라도 대부분 재발한다.특히,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 항암제 저항성이 생겨 결국 복강내 종양과 복수가 장폐색을 일으키고 면역저하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대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 중의 하나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자가 면역세포치료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사안이다.이 치료법의 핵심인 면역세포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자신의 말초혈액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분리한 후 특이 항원과 면역 자극 싸이토카인인 인터루킨 2(IL-2)를 첨가해 배양한다. 이를 암세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림프구 세포인 자연살해세포(NK 세포), 자연살해T세포(NK-T 세포) 등으로 분화?증식시킨 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된다.3주 간격의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며, 항암제 투여 후 1주째와 2주째에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한다. 임상시험 참가자는 3주기의 항암화학요법과 더불어 최대 6회의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 받는다.대부분의 재발성 난소암 환자는 장기간의 항암화학요법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인데, 면역세포치료제는 면역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자기 혈액에서 추출된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 없어 부작용이 적고, 정맥주사로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주원덕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암 치료에서 T림프구,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을 이용한 면역치료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화학요법과 자가살해세포 병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이번 임상시험은 1단계에서 3명에 대해 면역세포치료제 투여 후 안전성 평가를 통해 2단계에서 추가 3명에 대해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조직학적 검사에서 상피성 난소암으로 확진 되었으며, 표준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재발한 환자 등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이번 임상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span class='quot1'>자연살해세포(Autologus Killer Cell)</span>”는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6.txt

제목: 라이언 레이놀즈, 영화 '데드풀' 의상 보자 눈물 흘려 "마블 캐릭터로 연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  
날짜: 20150804  
기자: 강주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804100000529  
ID: 01100701.20150804100000529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라이언 레이놀즈, 영화 `데드풀` 의상 보자 눈물 흘려 `마블 캐릭터로 출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라이언 레이놀즈, 영화 '데드풀' 의상 보자 눈물 흘려 '마블 캐릭터로 출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마블 히어로 데뷔작 '데드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블의 캐릭터를 맡게  된 소감을 전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라이언 레이놀즈는 " '데드풀' 의상을 봤을 때 눈물이 흘렸다"는 말로 그의 작품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영화 '데드풀'은 마블의 대표적인 슈퍼 히어로 중 하나로 암에 걸린 웨이드 윌슨(라이언 레이놀즈)이 실험에 참가했다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내용으로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류의 영웅영화다.마블의 슈퍼히어로 데드풀은 잔혹한 성격, 무서운 재생 능력, 스파이더맨보다 수다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인터넷팀 강주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7.txt

제목: 오바마,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개발 명령에 서명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31100000420  
ID: 01100701.201507311000004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오바마 대통령이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개발 명령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오바마가 개발 명령을 내린 슈퍼컴퓨터는 현존하는 슈퍼 컴퓨터보다 20배는 빠를 것이다.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중국에 있다.미국 국립전략컴퓨팅구상(NCSI)은 현 슈퍼컴퓨터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인 초당 퀸틸리언(10의 18제곱)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에 착수했다.새로운 슈퍼컴퓨터는 복합 시뮬레이션 모델, 과학 연구, 국가 안보 프로젝트, 핵물리학, 핵융합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더욱 정확한 날씨 정보와 엑스레이 이미지를 통한 정확한 암 진단을 하는데 유용히 활용될 수 있다.이러한 기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는 엑사스케일(exascale)급 기계라 불리기도 한다.리차드 켄웨이 에딘버러 대학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슈퍼컴퓨터 계획은 "딱 맞는" 전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문한 슈퍼컴퓨터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향상된 빅데이터 분석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켄웨이는 또한 새 슈퍼컴퓨터는 개인화된 약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켄웨이 교수는 "오늘날 약품은 보통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특정 몇몇에게는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말하며 슈퍼컴퓨터는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게놈에 맞춘 약품을 디자인하며" 앞서 말한 결점을 보안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마크 파슨 에딘버러 병렬 컴퓨팅 센터(EPCC) 관계자는 슈퍼컴퓨터는 장기적 기후 모델링에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기후학자들은 현재 지구의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한편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타이엔헤-2 이며 중국 광저우의 국립컴퓨터센터(NCC)에 있다. 33.86 페타플롭(PFLOPS, 초당 10의 15 제곱. 즉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처리)으로 실행되며 미국에 있는 것보다 거의 2배는 빠르다.파슨은 "미국이 중국과의 슈퍼컴퓨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켄웨이와 파슨은 엑사스케일급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며 수년 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로 할 것이라 말했다.파슨에 따르면 그 중 가장 큰 장애물은 컴퓨터 구성요소를 더욱 전력효율적(power efficeient)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더라도 필요한 전기량은 막대할 것이다.파슨은 "약 60㎽의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연간 9360만 달러(약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측정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엑사스케일급 슈퍼컴퓨터 개발을 착수한 것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다. IBM과 네덜란드 라디오천문학연구소(ASTRON), 흐로닝겐 대학교도 각각 엑사스케일급 슈퍼컴퓨터를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8.txt

제목: "붉은 고기 속 색소가 대장암 유발"  
날짜: 2015072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71752770  
ID: 01100701.20160515071752770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의 붉은 색을 내는 색소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인 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붉은 고기에 포함된 환원 헤마틴을 투여한 쥐에서 장 내벽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r/> <br/>헤모글로빈 색소 성분을 뜻하는 환원 헤마틴은 장 속 박테리아에 의해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로 바뀐다. 이에 우리 몸은 치유를 위해 빠르게 세포를 재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종양 생성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장 속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붉은 고기에 따른 암 유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대장암은 육식이 주를 이루는 서구권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br/> <br/>지난 4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45명이다. 이는 조사대상 18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돈다. 2위는 슬로바키아(42.7명), 3위는 헝가리(42.3명)였다. <br/> <br/>붉은 고기는 대장암 외에 심장마비,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과도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건강보험(NHS)은 하루 적정 붉은 고기 섭취량으로 70g을 권장하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19.txt

제목: "붉은 고기 속 색소가 대장암 유발"  
날짜: 20150728  
기자: kimcharr@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1072  
ID: 01100701.2015072810000107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한국인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의 붉은 색을 내는 색소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인 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붉은 고기에 포함된 환원 헤마틴을 투여한 쥐에서 장 내벽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헤모글로빈 색소 성분을 뜻하는 환원 헤마틴은 장 속 박테리아에 의해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로 바뀐다. 이에 우리 몸은 치유를 위해 빠르게 세포를 재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종양 생성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장 속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붉은 고기에 따른 암 유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장암은 육식이 주를 이루는 서구권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다.지난 4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45명이다. 이는 조사대상 18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돈다. 2위는 슬로바키아(42.7명), 3위는 헝가리(42.3명)였다.붉은 고기는 대장암 외에 심장마비,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과도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건강보험(NHS)은 하루 적정 붉은 고기 섭취량으로 70g을 권장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0.txt

제목: "붉은 고기가 대장암 유발하는 건 색소 때문"  
날짜: 2015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0346  
ID: 01100701.20150728100000346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쇠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은 고기에 붉은 색을 내는 색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인 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붉은 고기에 많은 환원 헤마틴(헤모글로빈의 색소 성분)을 투여한 쥐에서 장 내벽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장 속 박테리아가 환원 헤마틴을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로 바꾸었기 때문이다.이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몸은 빠르게 세포를 재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빠른 세포 재생이 악성 종양의 생성도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장 속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이러한 붉은 고기의 암 유발 효과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대장암은 고기를 많이 먹는 서구 국가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발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최근의 다른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붉은 고기는 대장암 외에도 심장마비, 유방암, 2형 당뇨병, 전립선암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은 붉은 고기를 하루에 70ｇ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1.txt

제목: "수면부족, 흡연만큼 건강에 나쁘다"  
날짜: 2015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000342  
ID: 01100701.2015072810000034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면부족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에 쉽게 걸리게 하기 때문에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신경과학 부문의 러셀 포스터 교수는 수면부족이 의료나 운송부문 종사자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5시간밖에 안 잤다고 뻐기는 사람을 흡연자 피하듯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옥스퍼드대 '수면과 생체리듬 신경과학원' 원장이기도 한 포스터 교수는 수면 부족 때문에 감정 이입이나 정보 가공,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충동적이고도 불완전한 사고를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예컨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뇌의 정보 가공 능력은 마치 위스키 몇 잔이나 맥주를 마신 것처럼 좋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또 야간 근무로 생체 시계가 적응하지 못해 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포스터 교수는 강조했다.특히 지난해 프랑스의 한 연구 결과 야근을 10년간 하면 뇌는 6년반 더 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0년 연구에서는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6∼8시간 잔 이들보다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12%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충분한 수면은 뇌 속에 저장된 정보 덩어리를 쉽게 찾아내도록 돕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확인됐다.하지만 유명인들의 수면 시간과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종종 낮잠을 자긴 했어도 주중 하루 수면시간을 4시간으로 유지했고, 나폴레옹은 적당한 수면시간을 두고 "남성은 6시간, 여성은 7시간, 바보는 8시간"이라고 답한 바 있다.처칠은 2차대전 중 밤잠은 4시간, 낮잠은 2시간씩 잤고, 아인슈타인은 밤에 10시간 넘게 자면서도 수시로 낮잠을 잤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민첩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2.txt

제목: [이코노 브리핑] 한화생명 '변액유니버셜CI보험' 시판 外  
날짜: 20150728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810018064136  
ID: 01100701.2015072810018064136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한화생명 '변액유니버셜CI보험' 시판 <br/>한화생명은 암과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13가지 치명적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CI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주식·채권 등에 간접 투자해 기본 보장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유방암과 특정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에 대한 특약도 적용했다. 암 보장도 강화해 특약 하나로 전이암, 재발암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약 가입 시 중증 치매나 일상생활 장해 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 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br/> <br/>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폴더' 출시 <br/>삼성전자가 폴더와 스마트폰의 강점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 ‘갤럭시 폴더(사진)’를 28일 출시했다. 갤럭시 폴더는 피처폰의 쉬운 사용성과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키패드와 터치스크린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후면 카메라는 800만화소다. LTE와 3G 모델 2종이며, 출고가는 29만7000원이다. <br/> <br/>쏘나타 출시 30돌 맞아 모터쇼 개최 <br/>현대자동차는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맞아 8월12일부터 9월6일까지 서울·부산·대구·충남 보령 등 4개 지역에서 ‘쏘나타 모터쇼’를 순회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30년 전 첫선을 보인 1세대 모델에서 현재의 7세대까지 쏘나타의 역사와 현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터쇼 개최 일정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8월12∼16일)▲부산 해운대해수욕장(20∼24일)▲서울 제2롯데월드몰(28일∼9월1일)▲대구 달서구 이월드(5∼6일) 순이다. <br/> <br/>LG, 국내 첫 인버터 광파오븐 내놔 <br/>LG전자가 전기료를 절감하고 소음을 줄인 고급 ‘디오스’(DIOS) 인버터 광파 오븐을 이번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인버터(변환장치) 기술을 적용한 이 제품은 마이크로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음식이 덜 익거나 더 익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조리에 꼭 필요한 화력만 써 에너지 효율을 약 4%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87만9000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3.txt

제목: 비오듯 쏟아지는 땀, 뇌질환이 원인일 수도  
날짜: 20150727  
기자: 양지병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7100000822  
ID: 01100701.2015072710000082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중학교 때 뇌수막염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대학생 장수목 씨(23세, 남)는 시도 때도 없이 땀이 흐르고, 땀의 양도 무척 많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흐른 땀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작동키가 눌러지고, 물건을 집어올리다 미끄러트려 털어뜨리기도 일쑤다. 장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톡스나 약물 등으로 손쉽게 다한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하지만 장 씨의 주치의인 흉부외과 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다한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장 씨와 같이 뇌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된 바가 있다면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유증으로 다한증이 발생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 기저질환이 원인인 이차성 다한증다한증은 체온조절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땀이 흐르는 증상이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증세가 드러나는 양상이나 심각도가 제각각 다르나, 환자 본인이 불편감을 느낀다면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주먹을 꼭 쥐고 30초에서 1분 사이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흐른다면 다한증을 의심해보아야 한다.한정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땀이 나는 국소다한증은 물론 음식을 먹을 때 땀을 흘리는 미각형 다한증이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땀을 흘리는 후각성 다한증도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지난 2014년 1만 2542명이 병원을 찾아 다한증 치료를 받았다.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으로 분류됐으나 일부의 경우 기저질환이 원인인 이차성 다한증으로 나타났다. 사례자 역시 질환 발병 이후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으므로 이차성 다한증을 짐작해볼 수 있다.다한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으로는 ▷ 결핵, 브루셀라 등의 감염성 질환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뇌하수체항진증, 폐경 등 내분비질환 ▷ 갈색세포종, 유암종 등 신경내분비암 ▷ 백혈병, 림프종, 신장암 등 암 ▷ 파킨슨병, 척수손상, 뇌혈관질환 등 신경계질환 ▷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등 독성질환 등이 있다. 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이차성 다한증은 원인질환의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나면 손 쓰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다한증 치료 ••• 정확한 접근이 선행해야 다한증 치료는 일시적 효과가 있는 치료와 영구적 효과가 있는 치료로 나뉜다. 땀이 나는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먹는 양을 처방 받는 치료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전류를 흘려 보내 땀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온영동법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치료법은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 흉부외과에서 행해지는 다한증 치료는 땀이 나는 원인 부위를 직접 치료해 기대효과가 영구적이다. 하지만 땀샘을 직접 제거하거나 교감신경을 제거하는 수술법은 부위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김정태 과장은 “<span class='quot0'>여러 가지 다한증 치료법이 보급돼 있어 예전보다 쉽고 간편한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원인 질환이 따로 있거나, 치료법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통해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어릴 때는 보상성 다한증을 감안해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별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 단계에서 시술을 적용할 때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한방에서는 오미자를 다한증에 좋은 음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직 식품 섭취만으로 다한증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 알려진 다한증에 좋은 음식들 역시 다한증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수분 음식들일 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반면, 다한증에 좋지 않은 음식은 있다. 카페인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다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역시 땀에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으므로 다한증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다한증으로 발전할 수 있거나 이미 원인질환이 된 기저질환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도움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정태 과장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4.txt

제목: 뼈암 환자에 3D프린팅 골반뼈 이식  
날짜: 2015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4100000096  
ID: 01100701.201507241000000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이 3D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천추)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첫 사례다. 여학생은 골반뼈에 생긴 암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보행이 가능해지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의 동그라미 안이 천추다. 세브란스병원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5.txt

제목: 전이성 유방암 유발 후성유전자 발견  
날짜: 20150723  
기자: futurnalis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3100000192  
ID: 01100701.201507231000001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하는 후성유전자가 발견됨에 따라 치료제 개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한양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병리과 공구(51·사진) 교수 연구팀이 후성유전자 ‘DOT1L’이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쥐의 정상 유방 세포에 DOT1L 유전자를 더하자 정상 세포가 유방암 세포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유방암 환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이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환자들은 그러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의 전이 빈도가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연구 결과는 과학 온라인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될 예정이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6.txt

제목: 전이성 유방암 유발 후성유전자 발견  
날짜: 20150722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210018004163  
ID: 01100701.20150722100180041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하는 후성유전자가 발견됨에 따라 치료제 개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한양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병리과 공구(51·사진) 교수 연구팀이 후성유전자 ‘DOT1L’이 전이성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r/> <br/>연구팀은 쥐의 정상 유방 세포에 DOT1L 유전자를 더하자 정상 세포가 유방암 세포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유방암 환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이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환자들은 그러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암의 전이 빈도가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 결과는 과학 온라인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7.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민감하고 손쉽게 사용 가능한 ‘현장용 진단 키트’ 만든다  
날짜: 201507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3345799  
ID: 01100701.2016051506334579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임신테스트기와 같은 간단한 키트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빠르고 손쉽게 스스로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포스텍은 기계공학과·시스템생명공학부 도준상 교수팀과 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팀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검출감도도 수십배 향상시킨 새로운 진단기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소재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스’지 표지로 선정된 이 기술은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쓰이는 기기를 이용해 고감도의 검출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활용도를 높여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연구팀이 이용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신 테스트기’로 불리는 임신진단키트로, 이 키트는 통상적으로 임신 여부를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 금 나노입자를 사용해 왔다.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 대신 효소 모방 나노물질인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임신진단키트를 만들었다. <br/> <br/>안정성이 뛰어난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이 새로운 키트는 기존보다 20분의 1 이상 낮은 농도에도 반응, 임신여부를 진단해냈다. 또 발색 정도를 스마트폰 카메라으로 촬영하면 이 사진을 영상 분석해 정량화할 수 있어 특별한 장치가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검체 양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이러한 기술은 노로바이러스, 에이즈, 독감, 심근경색, 암 등과 같은 질병뿐 아니라 생화학전용 병원균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도준상 교수는 “<span class='quot0'>효소모방 나노입자를 휴대용 진단칩에서 활용한 것은 처음</span>”이며 “<span class='quot0'>백금나노입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변화가 적고, 이를 통한 스마트폰의 분석도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어 현장 진단을 위한 휴대용 체외진단기기 상용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8.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민감하고 손쉽게 사용 가능한 ‘현장용 진단 키트’ 만든다  
날짜: 201507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20100000880  
ID: 01100701.2015072010000088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임신테스트기와 같은 간단한 키트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빠르고 손쉽게 스스로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포스텍은 기계공학과·시스템생명공학부 도준상 교수팀과 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팀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검출감도도 수십배 향상시킨 새로운 진단기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소재분야 권위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스’지 표지로 선정된 이 기술은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쓰이는 기기를 이용해 고감도의 검출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활용도를 높여 주목을 받고 있다.연구팀이 이용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신 테스트기’로 불리는 임신진단키트로, 이 키트는 통상적으로 임신 여부를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 금 나노입자를 사용해 왔다. 연구팀은 금 나노입자 대신 효소 모방 나노물질인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임신진단키트를 만들었다.안정성이 뛰어난 백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이 새로운 키트는 기존보다 20분의 1 이상 낮은 농도에도 반응, 임신여부를 진단해냈다. 또 발색 정도를 스마트폰 카메라으로 촬영하면 이 사진을 영상 분석해 정량화할 수 있어 특별한 장치가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검체 양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이러한 기술은 노로바이러스, 에이즈, 독감, 심근경색, 암 등과 같은 질병뿐 아니라 생화학전용 병원균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준상 교수는 “<span class='quot0'>효소모방 나노입자를 휴대용 진단칩에서 활용한 것은 처음</span>”이며 “<span class='quot0'>백금나노입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변화가 적고, 이를 통한 스마트폰의 분석도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어 현장 진단을 위한 휴대용 체외진단기기 상용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29.txt

제목: 계피, 백혈병·피부암에도 효능 있다  
날짜: 20150718  
기자: futurnalis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8100000077  
ID: 01100701.2015071810000007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의보감’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된 계피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17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공동으로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계피알데히드(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동안 계피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 구체적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된 것은 처음이다.연구팀은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개 효소에서 계피에 함유된 2’-HCA의 효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2’-HCA가 효소 Pim-1과 결합하면 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효소 Pim-1과 가장 연관이 깊은 암은 백혈병이고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종 동물 간 이식모델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성과는 미국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암 연구(Cancer Research)’ 7월호에 게재됐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0.txt

제목: 오래 앉아있는 여성일수록 암 발병위험 높아  
날짜: 2015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8100000018  
ID: 01100701.20150718100000018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성이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유방암, 난소암, 골수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암학회 연구진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4만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이 장시간 앉아서 여가를 보내면 암 발병률이 10% 높아진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이 최근 보도했다.연구진은 "전체 신체활동, 체질량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오랜 시간 앉아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전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골수암, 유방암, 난소암의 경우 위험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그러나 여성과 달리 남성은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암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메모리얼케어센터병원의 호마윤 사나티 종양학자는 그 이유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이라고 추정했다.그는 야후 헬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 습관은 여분의 지방세포를 발달시켜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생성한다고 말했다.과도한 에스트로겐이 유방과 난소의 세포 성장과 활동을 촉진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에도 나온 적 있다.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다니엘라 슈미트 박사는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늘어나면 대장암과 자궁내막암의 발병위험이 각각 8%, 10% 증가한다고 발표했다.박사는 앉아서 TV를 시청할 때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햇빛으로부터 생성되는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미국암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능하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라고 권고했다.지난 2월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쿡은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암"이라며 자신은 알람을 맞춰놓고 매시간 10분씩 일어나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1.txt

제목: 계피, 백혈병·피부암에도 효능 있다  
날짜: 20150717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17951848  
ID: 01100701.201507171001795184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의보감’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된 계피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br/> <br/>17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이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공동으로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계피알데히드(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동안 계피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 구체적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된 것은 처음이다. <br/> <br/>연구팀은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개 효소에서 계피에 함유된 2’-HCA의 효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2’-HCA가 효소 Pim-1과 결합하면 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효소 Pim-1과 가장 연관이 깊은 암은 백혈병이고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종 동물 간 이식모델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성과는 미국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암 연구(Cancer Research)’ 7월호에 게재됐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2.txt

제목: 서울대 연구팀 "계피에 백혈병·피부암 항암물질 들었다"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7100000850  
ID: 01100701.2015071710000085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계피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됐다.17일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식의약센터 이기원 교수와 김종은 박사 연구팀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강동 교수와 공동으로 계피에 많이 함유된 물질인 2'-cinnamicaldehyde (2'-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규명했다.향신료로 주로 쓰이는 계피는 동의보감에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됐다.지금까지의 연구결과도 계피가 항암·항균 효능을 갖고 당뇨병을 예방하며 관절염 증상을 완화한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 구체적 활성물질과 분자표적이 규명된 적은 없었다.연구팀은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77개 효소에서 계피에 함유된 2'-HCA의 효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2'-HCA가 효소 Pim-1과 결합하면,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규명했다.효소 Pim-1와 가장 연관이 깊은 암은 백혈병(leukemia)이고,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2'-HCA가 백혈병과 피부암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뜻이다.이 결과는 이종 동물간 이식모델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됐다.이번 연구성과는 미국 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암 연구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암 연구 (Cancer Research)' 7월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3.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외  
날짜: 20150715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1008607  
ID: 01100701.20160515061008607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br/> <br/>신한생명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과 4대 질병을 비롯해 중대한 수술과 질병치료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 ‘(무)신한아이사랑보험FirstClass(사진)’를 출시했다. 백혈병 또는 골수암 진단시 1억원, 일반암의 경우 5000만원(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하고 4대 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만기환급형과 중도급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급부형은 15세 영어캠프자금 100만원, 20세 배낭여행자금 300만원, 25세 취업준비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br/> <br/>미리 쓴 사망보험료 복원 기능 더해 <br/> <br/>KDB생명은 보험금을 생활비나 의료비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종신보험에 ‘보험금 복원’ 기능을 더한 ‘무배당 U-Choice 종신보험(사진)’을 판매 중이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85세 이전에 ‘리본(Re-Born) 서비스’ 신청 시 1회에 한해 복원할 수 있다. KDB생명은 “<span class='quot0'>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종신보험 가입이 힘든 고령 시기에 별도 가입심사 없이 종신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셈</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국제체크카드 발급때 환전 수수료 할인 <br/> <br/>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으로 ‘씨티 사전신청 서비스(사진)’를 이용해 국제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9월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씨티은행은 사전신청 서비스로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미 달러·엔·유로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1회에 한해 미화 200달러 상당액까지 환전 수수료를 80% 할인해준다. 씨티은행의 사전신청 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편리한 시간에 영업점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br/> <br/>은행서 증권사로 자동이체한도 폐지 <br/> <br/>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의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000만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span class='quot1'>이번 한도 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 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돼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4.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외  
날짜: 2015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5100000436  
ID: 01100701.20150715100000436  
카테고리: 경제  
본문: 고액 암 등 집중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신한생명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과 4대 질병을 비롯해 중대한 수술과 질병치료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 ‘(무)신한아이사랑보험FirstClass(사진)’를 출시했다. 백혈병 또는 골수암 진단시 1억원, 일반암의 경우 5000만원(소액암 300만원)을 보장하고 4대 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만기환급형과 중도급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급부형은 15세 영어캠프자금 100만원, 20세 배낭여행자금 300만원, 25세 취업준비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미리 쓴 사망보험료 복원 기능 더해KDB생명은 보험금을 생활비나 의료비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종신보험에 ‘보험금 복원’ 기능을 더한 ‘무배당 U-Choice 종신보험(사진)’을 판매 중이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85세 이전에 ‘리본(Re-Born) 서비스’ 신청 시 1회에 한해 복원할 수 있다. KDB생명은 “<span class='quot0'>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종신보험 가입이 힘든 고령 시기에 별도 가입심사 없이 종신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셈</span>”이라고 설명했다.국제체크카드 발급때 환전 수수료 할인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으로 ‘씨티 사전신청 서비스(사진)’를 이용해 국제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9월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씨티은행은 사전신청 서비스로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미 달러·엔·유로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1회에 한해 미화 200달러 상당액까지 환전 수수료를 80% 할인해준다. 씨티은행의 사전신청 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편리한 시간에 영업점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은행서 증권사로 자동이체한도 폐지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의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000만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span class='quot1'>이번 한도 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 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돼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5.txt

제목: "개방ㆍ융합ㆍ혁신을 통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지향”에서 창조의료의 메카로 도약  
날짜: 2015071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814983  
ID: 01100701.201605150608149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전경 <br/> <br/>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신 개념 의학연구의 플랫폼이 될 ‘의학연구혁신센터’를 16일 개소한다. <br/> <br/>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는 개방과 융합,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계, 대학, 연구소와 병원이 R&D 전 과정을 초기단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br/> <br/>2012년 5월 착공한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에 연면적 31,261 m2 규모로 6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br/> <br/>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후, 임상연구 및 중개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중개의학연구소의 주요 부서가 자리잡고 있다. <br/> <br/>산학연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해 신설된 중개의학연구소 융합연구협력부 산하에는 중개의학연구의 핵심인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DNA, RNA(리복핵산),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센터가 있으며, 고가 장비인 3D 프린터를 도입, 의료기기의 아이디어 구현 및 디자인/개발을 자문하고 신속한 시제품을 구현 가능케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기계공작실이 있다.  <br/> <br/>또한, 인체자원은행, 암조직은행, 뇌은행(신설 예정)으로 구성된 SNUH 바이오뱅크가 중개의학연구소장 산하 독립기구로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내 의료정보와 의과학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저장해 연구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의과학정보실이 지난해 신설됐다.  <br/> <br/>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총 2백명의 교수가 벤치를 분양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백여 명의 상주 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이 있다. <br/> <br/>의학연구혁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산(産)•학(學)•연(硏)•병(病) 간의 혁신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들의 탐색, 연구, 위탁, 임상, 제품화 등이 단계적이고 개별적이었다.  <br/> <br/>그러나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는 ‘환자치료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제약산업계-학교-연구소-병원 등이 개방과 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br/> <br/>이를테면, 연구소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찾아내 제약 스폰서를 거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임상연구였다면, 앞으로는 질병을 기반으로 임상의료 기술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통합적 연구개발을 하는 중개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br/> <br/>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span class='quot0'>의학연구혁신센터는 개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과 HT(health technology)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계 유수 병원 사례와 같이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span>”으로 기대했다. <br/> <br/>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1'>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연구혁신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HT의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할 것</span>” 이라고 말했다. <br/> <br/>서울대병원은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 누적 승인 건수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400여 편 이상의 SCI 논문 게재 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6.txt

제목: "개방ㆍ융합ㆍ혁신을 통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지향”에서 창조의료의 메카로 도약  
날짜: 20150714  
기자: admin369@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4100000290  
ID: 01100701.2015071410000029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전경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신 개념 의학연구의 플랫폼이 될 ‘의학연구혁신센터’를 16일 개소한다.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는 개방과 융합,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계, 대학, 연구소와 병원이 R&D 전 과정을 초기단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2012년 5월 착공한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에 연면적 31,261 m2 규모로 6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후, 임상연구 및 중개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중개의학연구소의 주요 부서가 자리잡고 있다.산학연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해 신설된 중개의학연구소 융합연구협력부 산하에는 중개의학연구의 핵심인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DNA, RNA(리복핵산),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 센터가 있으며, 고가 장비인 3D 프린터를 도입, 의료기기의 아이디어 구현 및 디자인/개발을 자문하고 신속한 시제품을 구현 가능케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기계공작실이 있다. 또한, 인체자원은행, 암조직은행, 뇌은행(신설 예정)으로 구성된 SNUH 바이오뱅크가 중개의학연구소장 산하 독립기구로 있다.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내 의료정보와 의과학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저장해 연구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의과학정보실이 지난해 신설됐다.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총 2백명의 교수가 벤치를 분양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백여 명의 상주 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이 있다.의학연구혁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산(産)•학(學)•연(硏)•병(病) 간의 혁신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들의 탐색, 연구, 위탁, 임상, 제품화 등이 단계적이고 개별적이었다. 그러나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는 ‘환자치료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제약산업계-학교-연구소-병원 등이 개방과 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이를테면, 연구소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찾아내 제약 스폰서를 거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임상연구였다면, 앞으로는 질병을 기반으로 임상의료 기술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통합적 연구개발을 하는 중개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span class='quot0'>의학연구혁신센터는 개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과 HT(health technology)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계 유수 병원 사례와 같이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span>”으로 기대했다.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연구혁신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HT의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 누적 승인 건수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400여 편 이상의 SCI 논문 게재 등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7.txt

제목: 차의과학대학교 백광현 교수팀'2015대한암학회 우수연제상'수상  
날짜: 20150713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60144576  
ID: 01100701.2016051506014457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 <br/> <br/>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은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br/> <br/>이번 논문은 암유발단백질 중의 하나인 ‘14-3-3 감마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분자학적 수준에서 밝힌 것으로 백광현 교수팀 소속의 김진옥 석사과정 대학원생이(공동발표 대학원생: 김소라, 임기환)발표함으로써 수상을 하게 되었다. <br/> <br/>‘14-3-3 감마 단백질’은 세포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보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 암이 유발된다.이번 연구내용은 암유발단백질인 14-3-3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분해조절 효소를 발굴하여 이들의 조절을 규명한 것이다. 또한 14-3-3 감마 단백질은 혈액암과도 관련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토대로 이번 연구는 향후 혈액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br/> <br/>한편 백광현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국외에서 수상함으로써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8.txt

제목: 차의과학대학교 백광현 교수팀'2015대한암학회 우수연제상'수상  
날짜: 2015071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3100000320  
ID: 01100701.201507131000003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차의과학대학교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백광현 교수팀은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문은 암유발단백질 중의 하나인 ‘14-3-3 감마 단백질’의 분해조절 기전을 분자학적 수준에서 밝힌 것으로 백광현 교수팀 소속의 김진옥 석사과정 대학원생이(공동발표 대학원생: 김소라, 임기환)발표함으로써 수상을 하게 되었다.‘14-3-3 감마 단백질’은 세포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보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 암이 유발된다.이번 연구내용은 암유발단백질인 14-3-3 감마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분해조절 효소를 발굴하여 이들의 조절을 규명한 것이다. 또한 14-3-3 감마 단백질은 혈액암과도 관련 있는 연구결과가 있어 토대로 이번 연구는 향후 혈액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한편 백광현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국외에서 수상함으로써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39.txt

제목: 그라비올라, '항암효과 탁월' 신비의 약초  
날짜: 20150712  
기자: 이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1210017879838  
ID: 01100701.2015071210017879838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그라비올라가 항암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최근 한 방송에서는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약초 그라비올라, 명월초, 스태비아가 소개됐다. <br/> <br/>인디언들의 천연 약초인 신비의 나무 그라비올라는 남미, 동남아가 주산지이며 원주민들의 만병통치약으로서 주산지의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해 왔다고 알려진다. <br/> <br/>특히 그라비올라 아노나신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영양공급 통로를 차단,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해 각종 용종을 비롯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효능이 현존 항암제보다 1만배 이상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또 그라비올라는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라비올라 잎을 빻아 생즙을 만들어 피부질환이 있는 곳에 바르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br/> <br/>하지만 그라비올라를 대량으로 복용할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0.txt

제목: [이응수의 해외로talk] 캐나다 취업 시 캐나다 칼리지 사용법  
날짜: 20150708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4146167  
ID: 01100701.20160515054146167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사진=머피컨텐츠 제공"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방죽을 파야 개구리가 뛰어든다", "솥 속의 콩도 쪄야 익는다" <br/> <br/>이 속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해도 노력을 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미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이미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에 있을 뿐이다. <br/> <br/>캐나다 칼리지로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취업 잘 되나요?"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칼리지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br/> <br/>캐나다 칼리지를 졸업 한 후 원하는 곳에 취업을 잘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본인이 재학 중인 칼리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하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br/> <br/>◆ 캐나다 칼리지 시스템 적극 활용하기 <br/> <br/>캐나다 칼리지들은 대부분 커리어 센터(Career Center·학교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음)를 제공하고 있다. 커리어 센터란 그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구직을 원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동시에 구인을 원하는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br/> <br/>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커리어 어드바이저(Career Advisor)와의 상담 ▲이력서 작성 ▲구직 지원 ▲워크샵 개최 ▲실전 인터뷰 연습 ▲고용주 미팅 ▲구인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좋은 인재를 구인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에게는 ▲학교에 구인 광고 ▲학내 리크루트먼트 ▲구인박람회 ▲회사 설명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r/> <br/>칼리지 목적 자체가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커리어 센터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각 칼리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돼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을 찾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코네스토가 칼리지의 커리어 센터 / 사진=머피컨텐츠 제공▲커리어 어드바이저(Career Advisor)=칼리지의 커리어 어드바이저들은 그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커리어 평가 방식들을 통해 학생들의 기술력과 전반적인 능력, 학생 개인의 성향과 관심사,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파악해서 교육이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한다. <br/> <br/>현재 학생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무료 영어 회화(Peer Tutoring)을 소개하기도 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자원봉사단체를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커리어 어드바이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br/> <br/>▲이력서 작성=학생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가 캐나다의 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적합한지 궁금할 때에도 커리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커리어 센터의 어드바이저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이력서의 형식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해당 학생의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단, 충분한 상담을 위해 어드바이저와의 예약은 필수다. <br/> <br/>▲인터뷰 연습=유학생들에게 고용주와의 인터뷰는 늘 긴장이 되는 일이다. 언어, 지식, 그리고 복장과 자세까지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반복되는 연습과 자신감 형성이다. 커리어 어드바이저들은 오랜 경력을 통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구인 인터뷰에서 주어지는 질문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 학생들이 어떠한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br/> <br/>▲구직 기회 제공="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고용주를 만나야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력서도 준비가 됐고, 인터뷰 훈련도 마쳤다면 고용주를 만나러 가야하고, 이런 기회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만들 수 있는지가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이다. 때문에 캐나다 각 칼리지의 커리어 서비스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이 업무다. <br/> <br/>수많은 고용주들에게 각자의 칼리지를 홍보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고용주들은 그들이 인정하는 칼리지에 직원 채용이 필요할 때마다 구인광고를 올리거나, 잡 페어(job fair-취업박람회)에 참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br/> <br/>이런 모든 정보는 각 칼리지들마다 칼리지 자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고, 각종 책자와 잡지, 캠퍼스 곳곳의 벽보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br/> <br/>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풀타임 직업(full-time job)부터, 인턴쉽(internship), 코업(co-op), 써머잡(summer job),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 service)까지 수많은 커리어 기회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칼리지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가지, 적극적 참여다.  <br/>캐나다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Job postings / 사진=머피컨텐츠 제공◆ 두 말하면 잔소리, 네트워크 형성에 최선을 다하라 <br/> <br/>비단 캐나다에서만 통하는 논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하는 환경이 아닌 캐나다에서는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말인 것은 사실이다.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에도 네트워크의 힘은 빛을 발한다. <br/> <br/>한국인 유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다른 문화에서 자라고 생활을 한 까닭인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캐나다의 칼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GP라고 하는 그룹 프로젝트다. 임의로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과 담당 교수가 그룹을 정해주기도 한다. 그룹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족한 팀원들을 도와주면서 본인의 인맥관리를 해야 한다. <br/> <br/>캐나다인 친구들이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한 학업에 있어서도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식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룹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과제만을 수행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맥을 쌓고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수확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br/> <br/>캐나다인 친구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 공유에 훨씬 개방적이다. 그리고 오래 사귀어 볼수록 친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도 이들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유용한 구인정보를 찾고 소개하는 수고를 할 준비가 돼있다. <br/> <br/>남들보다 칼리지의 시스템과 인맥을 잘 활용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br/> <br/>"2년의 칼리지 과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지만 늘 영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카운셀러와 상담을 했는데, Peer tutoring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저희 칼리지에 재학 중인 캐네디언 친구를 연결해 주어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튜터가 되어주는 캐네디언 학생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룹 프로젝트가 있어서 캐네디언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지만 이렇게 저만을 위한 영어개인과외를 무료로 해 보니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부쩍 늘더군요. 이렇게 영어공부를 하면서, 저희 학교 Career Center에서 주최하는 취업 워크샵도 참여하고, 이력서 수정도 받아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공부하던 캐네디언 친구가 제게 잘 맞아 보이는 포지션에 사람을 구하는 곳이 있다고 연락을 해 줘서 결국 취업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br/> <br/>불과 일주일 전, 캐나다 칼리지에 진학했던 사람으로부터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약사 보조사)으로 토론토 대학 암 센터에 취업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학과 일 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방학 때는 커뮤니티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했지만, 목표는 병원에 취업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커리어센터 어드바이저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님과도 자주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졸업 후 3차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 어느 날 학교에서 추천인지 단순 권유인지 알 수 없게 토론토 대학 병원 오픈 하우스가 있다고 참가 신청을 해 보라는 말을 듣고, 왠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장을 입고 이력서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고 한다. <br/> <br/>그런데 정말로 그 곳이 인터뷰 자리였고 준비가 안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게 돼 즉석에서 인터뷰를 하고 준비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2주 후부터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꾸준히 커리어 센터나 지도교수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의 취업소식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br/> <br/>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이고,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 칼리지의 다양한 시스템을 먼저 찾아보고 활용하기를 유학 준비생들에게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고 싶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1.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교수팀, 폐암 재발률 예측 앱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3059550  
ID: 01100701.2016051505305955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6일 흉부외과 전상훈(사진) 교수 연구팀이 폐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앱 ‘Lung CALC’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폐선암은 국내 폐암의 3분의 2에 달하며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1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10∼20%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2000∼2009년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선암 환자 1700여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60여명의 재발 요인을 추가로 분석해 총 2160여명의 폐선암 의료데이터를 수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재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종양 크기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의 ‘SUV값(표준흡수값) 3가지를 가중치에 따라 적용했다. <br/> <br/>폐암 재발률 예측 어플리케이션 'Lung CALC' 구동 화면. 분당서울대병원 제공이렇게 만들어진 앱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인지 ‘재발 저위험군’인지 표시된다. 또 1년, 3년, 5년 후의 재발 확률이 각각 백분율로 나타난다. <br/> <br/>그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해 국내 폐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연구를 주도한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빅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앱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span>”라며 “<span class='quot0'>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암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될 예정이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2.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재발가능성 계산 어플리케이션 최초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3120238  
ID: 01100701.201605150531202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정확히는 '폐 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빅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률이 상당히 정확해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br/> <br/>그 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r/> <br/>즉 담당 의사의 개인 견해나 경험 차이 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것이다. <br/> <br/>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의료진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조합해주기 때문에, 의료진이 보다 객관적인 진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상훈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IT 역량을 보유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연구기법을 적용,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암 환자 1700여 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해 이를 수식으로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또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 받은 460여 명의 재발 요인 분석을 추가로 시행했기에, 전체 2160명의 1기 폐 선암 의료데이터가 수식 하나로 집약된 것이다. <br/> <br/>다양한 조건 중에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인 '병리학적 종양 크기'와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그리고 PET 검사의 'SUV값(Standardized Uptake Value : 표준 흡수값)'이 가중치에 따라 수식에 적용됐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폐암 재발확률 계산 어플리케이션이 발표됐다. <br/> <br/>지금까지의 연구가 '특정 지표와 암 재발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한 '1차 함수'였다면, 이번 연구는 다중 지표와 가중치까지 적용된 'N차 함수'로 관련 연구의 차원을 크게 높였다. <br/> <br/>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은 매우 단순하다.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High Risk Group : YES)'인지 '재발 저위험군(High Risk Group : NO)' 인지를 알려주고, 1년 후와 3년 후, 그리고 5년 후 재발 확률을 각각 백분율로 보여준다. <br/> <br/>또한 기존 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값을 수식화해 더욱 높은 적합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br/> <br/>이번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는 "빅 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라며 "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r/> <br/>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기존 데이터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어지는 후속 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로 미래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며 "일본과 중국 등 외국 병원 다수에서 후속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역시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br/> <br/>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암 수술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3.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재발가능성 계산 어플리케이션 최초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000449  
ID: 01100701.201507061000004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확히는 '폐 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빅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률이 상당히 정확해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그 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즉 담당 의사의 개인 견해나 경험 차이 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것이다.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의료진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를 조합해주기 때문에, 의료진이 보다 객관적인 진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상훈 교수 연구팀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IT 역량을 보유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연구기법을 적용,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암 환자 1700여 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해 이를 수식으로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또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 받은 460여 명의 재발 요인 분석을 추가로 시행했기에, 전체 2160명의 1기 폐 선암 의료데이터가 수식 하나로 집약된 것이다.다양한 조건 중에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인 '병리학적 종양 크기'와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그리고 PET 검사의 'SUV값(Standardized Uptake Value : 표준 흡수값)'이 가중치에 따라 수식에 적용됐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폐암 재발확률 계산 어플리케이션이 발표됐다.지금까지의 연구가 '특정 지표와 암 재발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한 '1차 함수'였다면, 이번 연구는 다중 지표와 가중치까지 적용된 'N차 함수'로 관련 연구의 차원을 크게 높였다.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은 매우 단순하다.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High Risk Group : YES)'인지 '재발 저위험군(High Risk Group : NO)' 인지를 알려주고, 1년 후와 3년 후, 그리고 5년 후 재발 확률을 각각 백분율로 보여준다.또한 기존 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값을 수식화해 더욱 높은 적합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는 "빅 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라며 "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기존 데이터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어지는 후속 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로 미래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며 "일본과 중국 등 외국 병원 다수에서 후속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역시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암 수술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도 등록될 예정이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4.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교수팀, 폐암 재발률 예측 앱 개발  
날짜: 20150706  
기자: azahoi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6100000129  
ID: 01100701.2015070610000012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분당서울대병원은 6일 흉부외과 전상훈(사진) 교수 연구팀이 폐선암 1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앱 ‘Lung CALC’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폐선암은 국내 폐암의 3분의 2에 달하며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1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10∼20%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팀은 2000∼2009년 국내 유명 대학병원 4곳에서 수술을 받은 1기 폐선암 환자 1700여명의 재발 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유효성 검증을 위해 다른 대학병원 2곳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60여명의 재발 요인을 추가로 분석해 총 2160여명의 폐선암 의료데이터를 수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재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종양 크기 ▲폐조직내 림프계 침윤 여부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의 ‘SUV값(표준흡수값) 3가지를 가중치에 따라 적용했다.폐암 재발률 예측 어플리케이션 'Lung CALC' 구동 화면. 분당서울대병원 제공이렇게 만들어진 앱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변수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재발 고위험군’인지 ‘재발 저위험군’인지 표시된다. 또 1년, 3년, 5년 후의 재발 확률이 각각 백분율로 나타난다.그동안 1기 폐암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해 국내 폐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연구를 주도한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빅데이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개발하고 앱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 IT에 있어서도 큰 성과</span>”라며 “<span class='quot0'>1기 폐암 수술 후 보조항암약물치료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span>”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와 암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암 전문 의학지인 ‘외과임상종양학회연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어플리케이션 ‘Lung CALC’는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거쳐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될 예정이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5.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 하루 3잔은 되고 4잔은 안된다?  
날짜: 2015070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310017793596  
ID: 01100701.201507031001779359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커피는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지만, 카페인 성분 때문에 마실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음료이기도 하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 ▲피로 감소 ▲빠른 두뇌 회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잉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심혈관계 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에는 약 70~150㎎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커피를 하루 3잔 정도 마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한 카페인 하루 권장량 400㎎을 훌쩍 넘기게 된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초콜릿·홍차에도 함유돼 있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커피를 즐기려면 하루 두 잔 이내가 적당하다. 커피,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하루에 에스프레소 4잔 함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최근 밝혔다. <br/> <br/>EFSA는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해롭다고 밝히고,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 미만이라고 전했다. <br/> <br/>이 성명은 모든 음식물을 통해 카페인을 하루에 400㎎보다 적게 섭취하면,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br/> <br/>EFSA는 모든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섭취의 위해성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카페인 섭취 권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성인 카페인 권장량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자기 몸무게 기준, ㎏당 3㎎ 미만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 <br/> <br/>또 EFSA는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이외에 에너지 음료 등을 통해 섭취한 카페인 양에도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br/> <br/>이와 함께 커피 등의 카페인이 치매 등 인지장애의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국립암센터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팀은 1990~2014년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신경역학(Neuroepidemiology)'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br/> <br/>메타분석은 수십편의 논문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통계적 분석 대상의 관찰치로 전환해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 방식이다. <br/> <br/>연구진은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엠베이스(EMBASE)를 이용한 문헌검색에서 나온 20편의 관찰 역학 연구결과를 통합해 연구 대상자인 3만1479명을 분석했다. <br/> <br/>이를 통해 커피나 차를 통한 카페인 섭취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장애 ▲인지력 감소 등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br/> <br/>음료 종류에 따른 세부그룹 메타분석 결과 커피를 통해 카페인 섭취가 17% 인지장애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보다 근거 수준이 높은 환자-대조군 연구나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명 교수는 "카페인 섭취가 전반적으로 인지장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 만큼 치매를 예방할 목적으로 커피나 차를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의 생활습관병과 흡연·음주·운동부족·영양부족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 <br/>그렇다면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 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력과 민첩성, 정밀성을 높이고 공격성은 약화한다는 것이다. <br/> <br/>그러나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 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2~3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br/> <br/>커피에는 심장 질환이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겐산이 있다. 클로로겐산은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좋다. <br/> <br/>또한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 환자는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커피를 내릴 때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원두의 지방 성분을 95% 가까이 걸러낼 수 있다. <br/> <br/>커피의 보관도 로스팅만큼이나 중요하다.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된다. 또한 커피에 설탕 등 당 성분을 과도하게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br/> <br/>이밖에 커피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지난해 스위스의 커피과학정보연구소의 연구가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연구팀은 환자의 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과 타우 단백질 엉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br/> <br/>또한 2013년 스웨덴의 룬드대학 연구팀은 광범하게 사용하는 약품인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매일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경우, 매일 1잔 이하를 마시는 환자들에 비해 유방암 재발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커피, 하루 3잔은 되고 4잔은 안된다?  
날짜: 20150702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2100001028  
ID: 01100701.2015070210000102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커피는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지만, 카페인 성분 때문에 마실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음료이기도 하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 ▲피로 감소 ▲빠른 두뇌 회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잉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심혈관계 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에는 약 70~150㎎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커피를 하루 3잔 정도 마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한 카페인 하루 권장량 400㎎을 훌쩍 넘기게 된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초콜릿·홍차에도 함유돼 있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커피를 즐기려면 하루 두 잔 이내가 적당하다. 커피,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하루에 에스프레소 4잔 함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최근 밝혔다.EFSA는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해롭다고 밝히고,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 미만이라고 전했다.이 성명은 모든 음식물을 통해 카페인을 하루에 400㎎보다 적게 섭취하면,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EFSA는 모든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섭취의 위해성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카페인 섭취 권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성인 카페인 권장량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자기 몸무게 기준, ㎏당 3㎎ 미만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또 EFSA는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이외에 에너지 음료 등을 통해 섭취한 카페인 양에도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커피 등의 카페인이 치매 등 인지장애의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립암센터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팀은 1990~2014년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신경역학(Neuroepidemiology)' 온라인판에 게재했다.메타분석은 수십편의 논문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통계적 분석 대상의 관찰치로 전환해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 방식이다.연구진은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엠베이스(EMBASE)를 이용한 문헌검색에서 나온 20편의 관찰 역학 연구결과를 통합해 연구 대상자인 3만1479명을 분석했다.이를 통해 커피나 차를 통한 카페인 섭취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장애 ▲인지력 감소 등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음료 종류에 따른 세부그룹 메타분석 결과 커피를 통해 카페인 섭취가 17% 인지장애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보다 근거 수준이 높은 환자-대조군 연구나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명 교수는 "카페인 섭취가 전반적으로 인지장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 만큼 치매를 예방할 목적으로 커피나 차를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의 생활습관병과 흡연·음주·운동부족·영양부족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커피는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 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력과 민첩성, 정밀성을 높이고 공격성은 약화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 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2~3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커피에는 심장 질환이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겐산이 있다. 클로로겐산은 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좋다.또한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 환자는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커피를 내릴 때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원두의 지방 성분을 95% 가까이 걸러낼 수 있다.커피의 보관도 로스팅만큼이나 중요하다.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된다. 또한 커피에 설탕 등 당 성분을 과도하게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이밖에 커피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지난해 스위스의 커피과학정보연구소의 연구가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연구팀은 환자의 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과 타우 단백질 엉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또한 2013년 스웨덴의 룬드대학 연구팀은 광범하게 사용하는 약품인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매일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경우, 매일 1잔 이하를 마시는 환자들에 비해 유방암 재발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7.txt

제목: 알리안츠 생명, 핀테크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 확대  
날짜: 20150701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835422  
ID: 01100701.2016051505083542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알리안츠생명이 핀테크(기술+금융­)와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을 확대한다. <br/> <br/>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span class='quot0'>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을 제공해 국내 외국계 생명보험사 중 고객 중심, 질적인 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br/> <br/>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태블릿 PC로 보험 가입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서명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험 조회, 지급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모바일센터를 구축하는 등 핀테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br/> <br/>또 알리안츠생명은 인터넷 보험 브랜드인 ‘올라잇’(AllRight)도 공개했다. 올라잇은 저렴한 암보험, 정기보험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건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브랜드다. 이를 위해 알리안츠생명은 글로벌 모바일 건강관리 기술회사인 ‘눔’(Noom)과 제휴를 맺고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올라잇 코치’를 출시했다. 이 사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건강에 관한 지표를 모니터링해 고객이 운동을 자주 하고 금주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기업 시민의 역할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8.txt

제목: 알리안츠 생명, 핀테크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 확대  
날짜: 20150701  
기자: frei5922@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745  
ID: 01100701.20150701100000745  
카테고리: 경제  
본문: 알리안츠생명이 핀테크(기술+금융­)와 연계된 인터넷 보험 영업을 확대한다.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span class='quot0'>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을 제공해 국내 외국계 생명보험사 중 고객 중심, 질적인 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태블릿 PC로 보험 가입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서명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험 조회, 지급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모바일센터를 구축하는 등 핀테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또 알리안츠생명은 인터넷 보험 브랜드인 ‘올라잇’(AllRight)도 공개했다. 올라잇은 저렴한 암보험, 정기보험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건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브랜드다. 이를 위해 알리안츠생명은 글로벌 모바일 건강관리 기술회사인 ‘눔’(Noom)과 제휴를 맺고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올라잇 코치’를 출시했다. 이 사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건강에 관한 지표를 모니터링해 고객이 운동을 자주 하고 금주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기업 시민의 역할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49.txt

제목: 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토달토달 레시피 화제…간단한 조리법 ‘토마토+달걀’  
날짜: 2015070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17764850  
ID: 01100701.2015070110017764850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토달토달 레시피 화제…간단한 조리법 ‘토마토+달걀’냉장고를 부탁해 김풍, 토달토달 레시피 화제…간단한 조리법 ‘토마토+달걀’ <br/> <br/>김풍 토달토달 레시피가 화제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성규의 냉장고 속 재료로 '시원한 해장요리'를 주제로 이원일과 김풍이 대결을 벌였다. <br/> <br/>김풍은 토마토와 달걀, 토스트를 이용해 토달토달을 만들었다. 프라이팬에 재료를 넣고 끓인 뒤 간장으로 간을 맞춰 중국의 서민 음식을 탕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br/> <br/>김풍은 토마토와 계란, 곰탕 라면 스프, 식빵을 이용한 ‘토달토달’ 요리를 선보였다. <br/> <br/>토달토달은 으깬 마늘을 식용유와 참기름을 두른 팬에 볶고, 방울 토마토를 으깨 넣는다. 이후 간장, 식초, 맛술을 넣고 끓인 뒤 곰탕라면 스프와 전분, 계란을 넣으면 완성된다. <br/> <br/>김풍이 토달토달의 재료로 쓴 토마토에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풍부하다. 이는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흡연과 자외선으로 인한 암, 전립선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한다. <br/> <br/>김풍은 토달토달에 방울토마토를 사용했는데, 방울토마토의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다. 크기가 작은 방울 토마토는 껍질의 비율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으므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할 수 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균·항암·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의 효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br/> <br/>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열을 가해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토마토 속 베타카로틴, 리코펜 등 항산화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br/> <br/>한편, 맛있는 토마토는 색깔이 고르고 모양이 반듯해야 한다.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노란색 별 모양이 크면 당도가 높다. 갈라짐이 있는 과일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광택이 나고 단단하고 무거운 것일수록 맛있다. 덜 익은 푸른 토마토는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빨리 숙성시킬 수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0.txt

제목: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 악성 뇌종양 치료에 효과  
날짜: 2015070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701100000674  
ID: 01100701.20150701100000674  
카테고리: 사회  
본문: (사진 - 좌측부터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최승아, 김승기교수)알코올 의존증 치료제인 다이설피람(disulfiram)이 소아 뇌종양 중 가장 악성인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ATRT, Atypical teratoid/rhabdoid tumor)'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최승아 교수팀이 이 같은 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인 미국신경종양학회지 'Neuro-Oncology' 2015년 6월호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은 소아 뇌종양 중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이 종양은 3세 이하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방사선 치료나 고용량 항암치료에도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다.연구팀은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비교군에는 다이설피람을, 대조군에는 위약을 투약한 후,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의 크기를 관찰했다.그 결과 비교군의 종양이 대조군에 비해 1/4로 감소했고, 비교군의 생존기간(105일)도 대조군(91일)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연구팀은 다이설피람이 알데히드탈수소효소 (ALDH, aldehyde dehydroge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ALDH 억제가 뇌종양줄기세포의 활동과 대사를 억제하여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ALDH는 뇌종양줄기세포 (brain tumor initiating cell)의 표지자다.뇌종양줄기세포란 뇌종양 내에 소수로 존재하는 미분화 세포로, 뇌종양의 발생, 재발, 전이에 관여한다. 암줄기세포표지자를 이용하면 암세포 내의 줄기세포를 분리해 낼 수 있다.특히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은 다른 뇌종양에 비해 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뇌종양줄기세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다이설피람의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기 교수는 "비정형 기형종/간상 종양은 어린 나이에 발생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 연구로 이 약제를 실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자의 생존율 향상 뿐 아니라, 항암 방사선 치료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여 환자의 삶의 질 증가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한편 다이설피람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로 ALDH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약제는 경구복용이 가능하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된 약물로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1.txt

제목: 국립암센터, 재능기부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상 제작 참여  
날짜: 20150630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50104098  
ID: 01100701.201605150501040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재능기부를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은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br/>  <br/>이번 영상 제작은 '하얀거탑'과 '제중원'을 집필한 메디컬 전문작가인 이기원과, KBS드라마 '락 ROCK 樂'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前 KBS 이원익 연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배우 안석환과 서이숙 외 다수의 배우 및 촬영 스탭의 재능기부로 완성됐다. <br/> <br/>총 제작 책임은 안석환 배우와 이기원 작가가 맡았고,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장윤정 과장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연출, 촬영, 배우출연 등 전 제작과정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됐다.  <br/>  <br/>이번 영상의 극본을 집필한 이기원 작가는 "올해 이모님을 호스피스병동에서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 호스피스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스피스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r/> <br/>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이 같은 재능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호스피스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2.txt

제목: DGIST, 빅데이터 분석 기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50629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5355247  
ID: 01100701.2016051504535524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DGIST(총장 신성철)는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민수 교수와 뇌·인지과학전공의 구재형 교수 공동연구팀이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MRPrimer)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이 개발한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Primer) 디자인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전체 유전자 데이터에 대해 맵리듀스(MapReduce)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프라이머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고성능 기술이다. <br/> <br/>기존의 유전자 진단을 위한 대표적 프라이머 디자인 기술인 Primer3은 개별 목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후보 프라이머들을 찾은 후, 사람이 각 프라이머를 검색 알고리즘에 하나씩 입력하며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하는 프라이머들을 제거하는 두 단계를 거쳤다. <br/> <br/>하지만, 이 방법은 검출이 까다로운 목표 유전자에 대해 프라이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람이 직접 일일이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br/> <br/>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병원 및 실험실에서 Primer3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어려워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다. <br/> <br/>DGIST 연구팀은 개별 목표 유전자가 아닌 종(種) 전체의 수 만 개 유전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그들 사이의 모든 유전자 조합에 대해 목표 유전자 및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 이를 맵리듀스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br/> <br/>4년여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MRPrimer 기술은 유전자가 알려진 생물 종에 대해 프라이머들을 빠짐없이 모두 찾아줌과 동시에 진단율이 우수한 순서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뛰어난 성능을 갖춰 유전자 기반의 신종 바이러스 진단, 암 진단,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탐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특히,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와 함께 MRPrimer에 입력하면 현재 보건업계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머보다 잠재적으로 진단율이 더 우수한 프라이머들을 수 만 개 이상 찾을 수 있다. <br/> <br/>김민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오늘날 유전체 해독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종류의 빅데이터가 되고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빅데이터 기반의 유전자 진단용 MRPrimer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생명정보 SW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24일자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 생명공학 및 보건위생 분야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MRPrimer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http://MRPrim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로 공개했다. <br/> <br/>대구= 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3.txt

제목: DGIST, 빅데이터 분석 기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50629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9100000902  
ID: 01100701.201506291000009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DGIST(총장 신성철)는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민수 교수와 뇌·인지과학전공의 구재형 교수 공동연구팀이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초고성능 유전자 진단 기술(MRPrimer) 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연구팀이 개발한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Primer) 디자인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전체 유전자 데이터에 대해 맵리듀스(MapReduce)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프라이머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초고성능 기술이다.기존의 유전자 진단을 위한 대표적 프라이머 디자인 기술인 Primer3은 개별 목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후보 프라이머들을 찾은 후, 사람이 각 프라이머를 검색 알고리즘에 하나씩 입력하며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하는 프라이머들을 제거하는 두 단계를 거쳤다.하지만, 이 방법은 검출이 까다로운 목표 유전자에 대해 프라이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람이 직접 일일이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병원 및 실험실에서 Primer3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어려워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다.DGIST 연구팀은 개별 목표 유전자가 아닌 종(種) 전체의 수 만 개 유전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그들 사이의 모든 유전자 조합에 대해 목표 유전자 및 비목표 유전자들을 검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 이를 맵리듀스 기반의 복잡 알고리즘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4년여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MRPrimer 기술은 유전자가 알려진 생물 종에 대해 프라이머들을 빠짐없이 모두 찾아줌과 동시에 진단율이 우수한 순서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뛰어난 성능을 갖춰 유전자 기반의 신종 바이러스 진단, 암 진단,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탐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와 함께 MRPrimer에 입력하면 현재 보건업계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머보다 잠재적으로 진단율이 더 우수한 프라이머들을 수 만 개 이상 찾을 수 있다.김민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오늘날 유전체 해독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종류의 빅데이터가 되고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빅데이터 기반의 유전자 진단용 MRPrimer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생명정보 SW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24일자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 생명공학 및 보건위생 분야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MRPrimer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http://MRPrim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로 공개했다.대구= 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4.txt

제목: 한미약품,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인 당뇨 신약 가치 입증  
날짜: 20150626  
기자: 김승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4141353  
ID: 01100701.201605150441413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75회 미국 당뇨병 학회(이하 ADA)에서 현재 개발 중인 4개의 당뇨 신약 가치를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br/> <br/>ADA는 약 130여 개국에서 1만80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당뇨병 학회로, 세계적 명성에 힘입어 이번 75회 ADA 역시 화이자, 사노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 제약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당뇨 관련 최신 임상 결과들을 쏟아냈다. <br/> <br/>한미약품도 이번 학회에서 총 4개의 당뇨신약과 11건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당뇨 치료의 새로운 비전 제시에 동참했다. <br/> <br/>한미약품이 발표한 11건 과제 중 4건은 구연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국내 제약기업 중 유일한 사례이자 한미약품 R&D 성과에 대한 글로벌 연구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br/> <br/>특히, 이번에 발표된 신약 중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최대 월 1회 투여 가능한 약물, 비만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 등을 입증한 후기 2상 과제 3건으로 주목받았다. <br/> <br/>3건의 연구과제 중 구연 발표된 HM-EXC-203은주 1회 용법으로서의 혈당조절 능력은 물론, 체중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경쟁 약물인 Liraglutide(제품명 빅토자)와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br/> <br/>에페글레나타이드와 주 1회 제형 인슐린을 결합한 LAPSInsulin Combo의 연구결과 역시, 당뇨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br/> <br/>인슐린 단일요법 시 수반되는 저혈당 쇼크 및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두 약제의 결합에 따른 치료적 장점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확인한 것이다. <br/> <br/>실제로 당뇨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 LAPSInsulin Combo 관련 연구는 단일용법과 비교해 혈당감소 및 체중감소 효과 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특히, 주 1회 제형으로서의 인슐린과 GLP-1 계열의 콤보제형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개발이란 점에서 LAPSInsulin Combo가 상용화될 경우, 향후 세계 당뇨 치료제 시장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다. <br/> <br/>이 외에도 한미약품은 GLP-1 계열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Glucagon 결합체인LAPSGLP/GCG의 연구결과도 발표했는데, 이는 당뇨와 비만에 각각 적용한 신개념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br/> <br/>한편 한미약품은 과감한 R&D 투자에 따른 결실을 올해 초부터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br/> <br/>지난 3월 한미약품이 미국 일라이릴리에 면역질환치료제(HM71224)를 6억8000만 달러(계약금 및 마일스톤 포함, 로열티 별도) 규모로 기술수출한 사례는 국내 최대의 R&D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br/> <br/>또한 다중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Poziotonib)을 미국 스펙트럼사와 중국 루예제약그룹에 기술수출함으로써 당뇨와 항암제 분야에서의 글로벌신약 개발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br/> <br/>이번 ADA 직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암 학회인 ASCO에서 발표한 HM61713의 임상 1/2상 중간결과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항암신약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br/> <br/>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들이 글로벌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신약 창출을 통해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물론,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5.txt

제목: 한미약품,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인 당뇨 신약 가치 입증  
날짜: 2015062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6100001139  
ID: 01100701.201506261000011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75회 미국 당뇨병 학회(이하 ADA)에서 현재 개발 중인 4개의 당뇨 신약 가치를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ADA는 약 130여 개국에서 1만80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당뇨병 학회로, 세계적 명성에 힘입어 이번 75회 ADA 역시 화이자, 사노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 제약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당뇨 관련 최신 임상 결과들을 쏟아냈다.한미약품도 이번 학회에서 총 4개의 당뇨신약과 11건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당뇨 치료의 새로운 비전 제시에 동참했다.한미약품이 발표한 11건 과제 중 4건은 구연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국내 제약기업 중 유일한 사례이자 한미약품 R&D 성과에 대한 글로벌 연구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신약 중 GLP-1 계열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최대 월 1회 투여 가능한 약물, 비만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 등을 입증한 후기 2상 과제 3건으로 주목받았다.3건의 연구과제 중 구연 발표된 HM-EXC-203은주 1회 용법으로서의 혈당조절 능력은 물론, 체중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경쟁 약물인 Liraglutide(제품명 빅토자)와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에페글레나타이드와 주 1회 제형 인슐린을 결합한 LAPSInsulin Combo의 연구결과 역시, 당뇨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았다.인슐린 단일요법 시 수반되는 저혈당 쇼크 및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두 약제의 결합에 따른 치료적 장점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확인한 것이다.실제로 당뇨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 LAPSInsulin Combo 관련 연구는 단일용법과 비교해 혈당감소 및 체중감소 효과 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주 1회 제형으로서의 인슐린과 GLP-1 계열의 콤보제형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개발이란 점에서 LAPSInsulin Combo가 상용화될 경우, 향후 세계 당뇨 치료제 시장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다.이 외에도 한미약품은 GLP-1 계열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Glucagon 결합체인LAPSGLP/GCG의 연구결과도 발표했는데, 이는 당뇨와 비만에 각각 적용한 신개념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한편 한미약품은 과감한 R&D 투자에 따른 결실을 올해 초부터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지난 3월 한미약품이 미국 일라이릴리에 면역질환치료제(HM71224)를 6억8000만 달러(계약금 및 마일스톤 포함, 로열티 별도) 규모로 기술수출한 사례는 국내 최대의 R&D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다중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Poziotonib)을 미국 스펙트럼사와 중국 루예제약그룹에 기술수출함으로써 당뇨와 항암제 분야에서의 글로벌신약 개발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이번 ADA 직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암 학회인 ASCO에서 발표한 HM61713의 임상 1/2상 중간결과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항암신약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들이 글로벌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신약 창출을 통해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물론,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6.txt

제목: 녹십자엠에스,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 식약처 허가  
날짜: 20150624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42832097  
ID: 01100701.20160515042832097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녹십자엠에스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제품인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는 갑상선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BRAF 돌연변이 유전자만을 증폭시켜 종양조직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제품이다. <br/> <br/>기존 염기서열분석법에 비해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110분 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디. <br/>  <br/>녹십자엠에스는 이 제품에 적용된 'MEMO-PCR 기술' (돌연변이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이용해 KRAS(대장암), EGFR(폐암) 돌연변이 검출 키트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br/>  <br/>'MEMO-PCR 기술'은 지난 2011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이 개발해 녹십자엠에스가 지난해 기술 이전 받았다. <br/>  <br/>길원섭 녹십자엠에스 대표는 "이 제품은 기존 검사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이 적용돼 맞춤형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국내 병원과 검사기관에 공급하고 해외 인증 절차를 거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시장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7.txt

제목: 녹십자엠에스,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 식약처 허가  
날짜: 201506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310  
ID: 01100701.201506241000003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십자엠에스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제품인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는 갑상선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BRAF 돌연변이 유전자만을 증폭시켜 종양조직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제품이다.기존 염기서열분석법에 비해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110분 내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디.  녹십자엠에스는 이 제품에 적용된 'MEMO-PCR 기술' (돌연변이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이용해 KRAS(대장암), EGFR(폐암) 돌연변이 검출 키트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MEMO-PCR 기술'은 지난 2011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이 개발해 녹십자엠에스가 지난해 기술 이전 받았다.  길원섭 녹십자엠에스 대표는 "이 제품은 기존 검사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이 적용돼 맞춤형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국내 병원과 검사기관에 공급하고 해외 인증 절차를 거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시장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8.txt

제목: “매일 자몽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날짜: 20150624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1169  
ID: 01100701.2015062410000116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웰빙(Well-being)’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건강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슈퍼푸드로 선정된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일부러 찾아 먹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건강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변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의외로 애써 구매한 건강 식품의 섭취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특히 간편하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의 경우 효능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영양 성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감귤류 과일은 속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풍부해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블루베리는 익히는 것보다 생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과일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과일의 영양 성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감귤이나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과일에는 과육뿐만 아니라 속껍질에도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 바로 비타민P인 ‘헤스페리딘(Hesperidin)’이란 성분으로 이는 모세혈관을 강화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게 과일 속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감귤류 과일은 속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 최근 시중에는 과즙과 과일 속껍질을 함께 담은 주스도 출시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코카-콜라사 미닛메이드의 신제품 ‘미닛메이드 홈스타일’은 진한 과즙과 과일 속살을 잘 짜낸 후 남은 부드러운 섬유질인 과일 속껍질(펄프)이 들어 있어 과즙과 과일 속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주스이다. 자몽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자몽’과 오렌지 과즙을 담은 상콤달콤한 맛의 ‘미닛메이드 홈스타일 오렌지100’ 두 가지 맛으로 구성되며, 입안 가득히 자몽 및 오렌지 속껍질의 부드러운 식감과 진하고 풍부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힌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풍부해 암 예방과 노화 방지, 기억력 증진은 물론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적어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으로 먹거나 냉동으로 보관해 먹는 것이 좋지만 본래의 영양과 질감을 잘살려 블루베리와 함께 몸에 좋은 다른 식품들과 곁들이면 각각의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던 효능이 배가 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요거트와 곁들이거나 샐러드, 빙수로 먹어도 좋다.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여름을 맞아 '솜사탕' 눈꽃빙수를 출시했다. 눈꽃빙삭기로 부드럽게 갈아낸 우유 얼음을 사용해 솜사탕처럼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솜사탕블루베리요거, 솜사탕애플망고유자, 솜사탕쿠키앤크림, 솜사탕흑모찌팥 총 4종으로 선보인다. 특히 '솜사탕블루베리요거' 빙수는 블루베리와 요거트아이스크림, 치즈케이크 등의 토핑을 고루 올려 상큼한 맛이 일품이다.'매일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비타민C등을 함유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진 ‘사과’. 심지어 피부 건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 건강 식품으로 꼽힌다. 이같이 몸에 좋은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소화와 배변을 촉진해주지만 밤에 먹으면 사과산으로 충치, 위액 분비로 자칫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사과는 그대로 섭취하거나 주스로 갈아 마실 때 껍질째 먹으면 더욱 좋다. 껍질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하다.생활가전 전문업체 리큅의 고성능 블렌더 'RPM 프로페셔널 블렌더'는 기존에 즙에서 짜내는 원액기나 주서기의 장점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최대 3.2마력의 강력한 모터의 힘으로 채소류나 과일 껍질의 섬유질을 균일하게 분쇄해준다. 간편하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껍질과 함께 부드럽게 갈아 마실 수 있어 더욱 좋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59.txt

제목: 상락수차가버섯, 좋은 차가버섯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날짜: 201506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24100000872  
ID: 01100701.2015062410000087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러시아산 차가버섯이 국산 상황버섯이나 영지 버섯 등과 비교해서도 그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으로 차가버섯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차가버섯의 효능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폴리페놀과 SOD 항산화 효소가 풍부해 대장암, 폐암,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런데 차가버섯의 효능을 보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려는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차가버섯 선별방법, 차가버섯 끓이는 방법 등이다. 본디 좋은 차가버섯은 북위 45도 이상의 극냉지역에서 채취된 것, 수령이 15년 이상인 것, 크로모겐 콤플렉스가 10% 이상, 속살의 두께가 10cm 이상, 수분이 14%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개인 소비자가 차가버섯 덩어리를 보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차가버섯 덩어리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끓여 먹게 되면 그 효능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 차가버섯은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끓였다 식힌 물에 48시간을 우려 내어 먹어야 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실제 차가버섯 전문가들은 차가버섯 덩어리는 고온에 약하고 수분에 쉽게 산화되는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해 음용법이나 보관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48시간을 올바르게 우려냈다고 해도 유효성분의 추출률이 낮다고 지적한다.이에 좋은 차가버섯의 효과적인 성분을 가격 걱정 없이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차가버섯 추출 분말이다. 차가버섯 추출분말은 차가버섯 덩어리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베타글루칸, 폴리페놀 및 크로모겐콤플렉스를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을 추출, 농축, 필터링, 건조과정을 거쳐 고농축으로 생산한 제품이다.특히 국내에서는 상락수 차가버섯의 추출 분말이 국내 우수 연구진과의 다년간 연구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추출노하우 공정을 거쳐 유효성분 함유량을 높인 제품으로 항암효과가 뛰어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상락수차가버섯 추출분말은 러시아산 1등급 차가버섯의 추출액을 전문추출회사인러시아 알타이 비스테라에서, 국내에서 개발되어 특허를 받은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차가버섯 추출물의 제조방법’으로 추출하고, 추출액을 영하 5도 상태로 한국에 가져와 한국 기술로 분말화 시켜 보다 안전하면서도 유효함량을 높인 제품이다.이렇게 만들어진 상락수차가버섯 추출분말은 유효성분 섭취 면에서 차가버섯 추출분말 100g 섭취 시 차가버섯 덩어리는 약 3kg를 섭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락수차가버섯 추출 분말은 진공건조, 분무건조 및 동결건조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동결건조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이 높다.한편, 상락수차가버섯 추출 분말 섭취 방법은 60도 이하의 따뜻한 물 약 150cc에 1g씩 타서 하루 세 번 식전 30분에 먹으면 된다. 이때 루치 로얄(FD)와 진공건조스타(VD)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의 경우 물에 잘 용해될 수 있도록 잘 저어 먹으면 되고, 상락수 루치 스페셜(SD) 차가버섯 추출분말은 물에 넣은 뒤 젓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용해된다.헬스팀 김봉수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0.txt

제목: 태닝하다 생긴 습진? 광선각화증, 음식만으로 피부암 '고민 탈출'  
날짜: 20150618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8100000218  
ID: 01100701.201506181000002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건강미’의 대표적 상징이다. 이 때문에 여름이면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야외 혹은 실내에서 태닝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구릿빛 피부의 욕망에 태닝을 하는 것은 암을 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붉게 변하면서 각질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면 단순 그을림이 아닌 광선각화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광선각화증 원인으로는 태양광선, 장기이식 및 면역결핍, 주위 환경의 발암물질 접촉 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 원인은 자외선(UV)의 노출이다. 얼굴과 두피, 손, 팔, 종아리 등 만성적으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위에 광선각화증 증상이 나타난다. 하얀 각질 때문에 만졌을 때 까칠까칠하며, 각질을 제거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광선각화증 증상으로는 가벼운 자극감, 가려움증, 소량의 출혈 등이 있지만 대부분 초기증상이 거의 없고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습진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습진 연고만 바르거나 내버려두기 쉽다. 하지만 피부암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광선각화증은 쉽게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미국 베텐코트 스킨센터 원장이자 네바다주립대 임상 조교수인 미리암 베텐코트 박사는 “<span class='quot0'>광선각화증은 피부암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육안으로 안 보이는 잠재적 병변과 함께 다발성 병변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치료법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span>”고 했다.광선각화증 증상은 주로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자주 발병해 노인각화증이라고도 불리지만, 최근 야외 레저 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젊은 연령에서도 퍼지고 있다.최근 자외선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실내에서 인위적인 태닝이나 선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하지만 UVA를 발산하는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UVA는 피부의 면역반응을 억제해 피부의 1차 방어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광선각화증이 발병했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광선각화증 치료를 위해선 냉동요법, 레이저, 소파술, 외과적 절제 및 생검과 같은 병변 직접적 치료방법이나 국소치료, 광역동 요법과 같은 필드치료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요법들은 일정 수준의 불편함이나 통증, 고통 등으로 삶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광선각화증 예방을 위해선 평소에 자외선차단제, 양산, 모자, 의복 등을 이용해 자외선 차단을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출 부위에는 2시간 이내 간격으로 방수가 되는 자외선차단제를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부에 좋은 음식, 암에 좋은 음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음식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의료계에서 광선각화증의 예방 및 치료에 좋은 음식으로 홍삼을 꼽는다. 국내외에서 각종 임상시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각종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받은 홍삼은, 최근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임상시험을 통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시험은 성인 69명에게 3g의 홍삼을 8주간 꾸준하게 복용하게 한 후 체내 항산화 효소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실험참가자들의 DNA 손상이 17%나 감소했으며, 체내 항산화 효소는 무려 56%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즉, 홍삼이 활성산소를 생성해 피부 DNA 손상에 따른 피부암 발병률을 저하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윤택구 前 원자력병원장의 실험을 통해서는 홍삼이 ‘천연 항암제’임을 알 수 있다. 실험은 500마리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발암물질만 투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발암물질과 홍삼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후 9주 동안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홍삼 성분이 함께 투여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폐암 전 단계인 폐선종 발생률이 25%나 낮았으며, 간암 발생률은 무려 75%나 낮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처럼 각종 피부암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홍삼은 관련 제품들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중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으면서 유명해진 흑홍삼은 그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몇몇 업체들의 독주체제 속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우리는 보통 ‘홍삼=붉은색’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이 포함돼있는 홍삼진액이 외부로 유실되며 색이 변한 결과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홍삼농축액 제작 방식은 거의 모든 홍삼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삼 고유의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흑홍삼은 다중제어기술로 홍삼진액 유출을 막아 다양한 약리성분이 함유된 홍삼 엑기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재춘 통합의학대학원 교수는 “홍삼 영양분 중 물에 녹는 성분은 47.8%,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52.2%다”라며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홍삼제품은 물에 녹지 않는 52.2%의 성분을 섭취할 수 없다. 하지만 홍삼을 갈아 넣을 경우, 90% 이상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윤택준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역시 “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당체까지 흡수하기 위해선 (홍삼을) 갈아먹는 것이 좋다”며 “채소나 과일을 우려낸 물을 아무리 마셔도 통째로 갈아 먹는 것과 그 효과가 같은 순 없다”고 추천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1.txt

제목: '보양식' 장어·매실에 부작용이? 부작용 없는 완전체 건강식품은  
날짜: 20150617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000721  
ID: 01100701.2015061710000072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어느덧 여름이 왔다.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땀이 맺히고, 약간의 야외활동에도 기진맥진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운을 차리기 위한 보양식의 소비가 많다. 대표적으로 장어, 매실 등이 있다.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고단백 식품인 장어의 효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생선보다 150배 함량의 비타민A가 함유돼있어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을 돕는 기능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특히 장어에는 오메가3 계열 지방산 함량이 높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 B군이 많아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도 또 다른 장어의 효능으로 꼽는다.그러나 장어도 부작용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성질이기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는 궁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지질함량이 높아 고지혈증, 통풍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주 섭취할 경우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매실은 매실 안의 ‘피크르산’ 성분이 간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 해독과 배설을 돕는 것으로 유명하다. 식이섬유가 많고 저열량·저지방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알려진 매실은 항균 성분이 있어 식중독이나 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능력이 뛰어나 숙취 해소에도 좋다는 것이다.그러나 매실도 부작용이 있는데,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 날로 먹거나 덜 익은 것을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뼈와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는 절대적으로 금기하는 식품 중 하나다.그렇다면 장어와 매실의 효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홍삼이다. 홍삼은 국내 및 해외 의학계에서 다수의 임상시험과 연구논문 등을 통해 면역력 높이는 음식,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염증에 좋은 음식,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 혈관에 좋은 음식,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등으로 입증된 ‘천연 영양제’다.이미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강화 효능을 인증받은 홍삼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성인 69명을 대상으로 3g의 홍삼을 8주간 꾸준하게 복용하게 한 뒤, 체내 항산화 효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DNA 손상은 17%나 감소했으며, 체내의 항산화효소는 무려 56%나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홍삼은 혈류개선에도 특효를 보인다. 정익모 이화여대 교수는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삼을 하루 3g씩 10주간 투여한 후 그 경과를 지켜본 결과, 중심동맥의 혈압은 무려 29%나 감소했고, 말초혈관의 혈압 역시 25%나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홍삼이 혈관의 수축이완 작용에 도움을 줘 혈류량과 혈류 속도까지 정상화 시켰기 때문이다.김성수 고려대학교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홍삼이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의 기능을 해 간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발표했다. 김 박사는 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일반 소주 한 병을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10ml의 홍삼 엑기스를 섞은 소주 한 병을 마시게 한 후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다.알콜 분해효소인 ADH의 활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30분 후 홍삼 미복용 그룹의 ADH는 1.18mg/dl에 불과했지만 홍삼 복용 그룹은 1.63mg/dl로 나타나 알콜분해효소가 무려 38%나 더 많았다. 혈중알콜농도 역시 소주만 마신 그룹은 123.57mg/dl로 나타났지만, 홍삼을 함께 먹은 그룹은 109.54mg/dl로 12%(14.03mg/dl)나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나타냈다.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는 홍삼은 다양한 관련상품들이 출시되며 시장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그중에서도 흑홍삼은 엄청난 매출 상승폭을 보이며 정관장을 비롯한 몇몇 업체들의 독주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연예인, 운동선수들의 건강식품으로 화제가 되며 출시부터 인기를 얻었던 흑홍삼은 이름 그대로 검은색을 띠고 있다.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이 포함돼있는 홍삼 진액이 외부로 빠져나가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 일반홍삼과 달리 다중제어기술로 진액유출을 막아 홍삼 엑기스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최근엔 물에 우려내는 일반적인 홍삼 제작방식이 아닌, 흑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재춘 통합의학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홍삼의 영양분은 47.8%의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과 52.2%의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성분으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물에 달여 내는 기존 홍삼농축액 제작 방식의 경우, 물에 녹지 않는 52.2%의 성분은 버려지게 된다.김 교수는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을 경우, 90%이상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해진다. 채소나 과일을 우려낸 물과 통째로 갈은 것의 차이를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윤택준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0'>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당체까지 흡수하기 위해선 (홍삼을) 갈아먹는 것이 좋다</span>”고 추천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2.txt

제목: 버섯의 효능, 면역력 강화에 고단백 저칼로리로 과식 억제해 ‘다이어트에 적합’  
날짜: 201506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710017629752  
ID: 01100701.201506171001762975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버섯의 효능 <br/>버섯의 효능, 면역력 강화에 고단백 저칼로리로 과식 억제해 ‘다이어트에 적합’ 버섯의 효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저 버서의 효능을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작용을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막는다고 전해진다. 또한 버섯은 고단백에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은 높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뛰어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하다. 특히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40%나 들어 있어 장내의 유해물, 노폐물, 발암 물질을 배설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로 바뀌어 장내의 칼슘 흡수를 돕는다고 전해진다. 한편 버섯의 효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버섯의 효능, 암에 좋다고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자주 먹어야겠다” “버섯의 효능, 면역력에 좋구나 메르스 예방에도 좋겠네” “버섯의 효능, 버섯 맛 없는데 다이어트에 좋다니 억지로라도 먹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버섯의 효능 버섯의 효능 버섯의 효능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3.txt

제목: ‘메르스 공포’ 면역 관리 어떻게?  
날짜: 2015061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5002406  
ID: 01100701.20160515035002406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며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강기능 식품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br/> <br/>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감기는 일상에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만 별 것 아닌 흔한 질병 정도로 생각했지만,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치명성을 갖는 질환이 됐다. 특히 4~5년 전 발생한 신종플루부터 조류독감, 메르스까지 각종 질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br/> <br/>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면역 기능에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다. 선천면역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같이 작동되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우리 몸 자체가 선천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피부에 상처가 나도 고름이 생겨 빠르게 아물고 회복하는 것은 선천면역의 기능의 특징 중 하나다. <br/> <br/>후천면역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 특정 바이러스라는 항원에 대한 면역 기억 능력을 사람의 림프구에 심어주고, 기억 현상에 의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간염, 결핵 등 수많은 질병이 이와 같은 예방주사로써 보호되는 것이다. <br/> <br/>실제로 일상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과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면역관리를 통해 어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면역력 저하의 주범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현대인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 <br/> <br/>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토대로 한 영양 공급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은 면역 기능 증진의 필수 요소인데, 면역 기능에 사용되는 항체,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등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선과 살코기, 콩과 달걀을 비롯해 한국의 고유음식인 김치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br/> <br/>마지막으로 주목 해야 할 것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흔히 ‘알로에’로 알려진 ‘알로에베라’의 효능이다. 1994년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앤더슨 암 연구소에서는 자외선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 피부에 알로에를 바르면 피부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외선에 심각하게 노출되면 면역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때 알로에를 바르면 수일 내로 면역 세포가 80%이상 복구된다는 내용이다. <br/> <br/>흔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알로에 겔은 알로에베라의 잎 중 먹을 수 없는 부분과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하거나 분쇄, 농축하여 식용에 적합한 원료를 의미한다. 알로에 겔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과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있다. <br/> <br/>A사의 대표제품인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는 주원료인 알로에베라겔분말과 함께 부원료인 아라비노갈락탄, 가티검, 트라가칸스검, 글로코사민염 등 다양한 식물유래 당류 성분의 복합물로 인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A사만의 독자적 배합으로 탄생된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 제품은 ‘매나폴’을 추가로 함유 한 것이 특징이다. <br/> <br/>돌(Dole) 코리아는 알로에 슬라이스(알로에 100%)를 출시했다. 가정에서 손질하기 불편한 알로에를 얇게 잘라 간편하게 포장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돌(Dole) 코리아의 알로에 슬라이스는 냉동실에 살짝 얼린 후 껍질을 잘라내면 더욱 쉽게 먹을 수 있다. 식초에 절여 각종 재료와 함께 밥을 싸서 먹거나,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주스를 만들어 맛있고 간편한 영양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br/> <br/>알로에의 효능이 알려지며 바르는 알로에도 인기다. ‘홀리카 홀리카’의 알로에 99% 수딩젤은 청정 제주산 알로에의 싱그러운 수분감으로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고 산뜻하게 가꿔주며 알로에베라잎즙 성분이 99% 함유되어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4.txt

제목: ‘메르스 공포’ 면역 관리 어떻게?  
날짜: 20150616  
기자: hjk@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6100000687  
ID: 01100701.20150616100000687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며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강기능 식품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감기는 일상에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만 별 것 아닌 흔한 질병 정도로 생각했지만,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치명성을 갖는 질환이 됐다. 특히 4~5년 전 발생한 신종플루부터 조류독감, 메르스까지 각종 질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면역 기능에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다. 선천면역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같이 작동되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우리 몸 자체가 선천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피부에 상처가 나도 고름이 생겨 빠르게 아물고 회복하는 것은 선천면역의 기능의 특징 중 하나다.후천면역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통해 특정 바이러스라는 항원에 대한 면역 기억 능력을 사람의 림프구에 심어주고, 기억 현상에 의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간염, 결핵 등 수많은 질병이 이와 같은 예방주사로써 보호되는 것이다.실제로 일상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과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면역관리를 통해 어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면역력 저하의 주범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현대인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토대로 한 영양 공급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은 면역 기능 증진의 필수 요소인데, 면역 기능에 사용되는 항체,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등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선과 살코기, 콩과 달걀을 비롯해 한국의 고유음식인 김치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다.마지막으로 주목 해야 할 것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흔히 ‘알로에’로 알려진 ‘알로에베라’의 효능이다. 1994년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앤더슨 암 연구소에서는 자외선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 피부에 알로에를 바르면 피부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외선에 심각하게 노출되면 면역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때 알로에를 바르면 수일 내로 면역 세포가 80%이상 복구된다는 내용이다.매나테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알로에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생초를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가공된 제품을 먹는 것이 면역력 증진과 위생면에서 안전하다</span>”고 전했다.흔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알로에 겔은 알로에베라의 잎 중 먹을 수 없는 부분과 외피를 제거한 후 겔 부분을 분리하여 건조하거나 분쇄, 농축하여 식용에 적합한 원료를 의미한다. 알로에 겔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과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있다.매나테크의 대표제품인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는 주원료인 알로에베라겔분말과 함께 부원료인 아라비노갈락탄, 가티검, 트라가칸스검, 글로코사민염 등 다양한 식물유래 당류 성분의 복합물로 인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매나테크만의 독자적 배합으로 탄생된 어드밴스드 앰브로토스 제품은 ‘매나폴’을 추가로 함유 한 것이 특징이다.돌(Dole) 코리아는 알로에 슬라이스(알로에 100%)를 출시했다. 가정에서 손질하기 불편한 알로에를 얇게 잘라 간편하게 포장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돌(Dole) 코리아의 알로에 슬라이스는 냉동실에 살짝 얼린 후 껍질을 잘라내면 더욱 쉽게 먹을 수 있다. 식초에 절여 각종 재료와 함께 밥을 싸서 먹거나,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주스를 만들어 맛있고 간편한 영양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알로에의 효능이 알려지며 바르는 알로에도 인기다. ‘홀리카 홀리카’의 알로에 99% 수딩젤은 청정 제주산 알로에의 싱그러운 수분감으로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고 산뜻하게 가꿔주며 알로에베라잎즙 성분이 99% 함유되어 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5.txt

제목: 보령제약, 한국릴리와 '젬자' 코프로모션 진행  
날짜: 20150615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4315315  
ID: 01100701.20160515034315315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젬자 코프로모션 파트너 조인식을 마치고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오른쪽)과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br/>보령제약과 한국릴리가 췌장암, 폐암 치료제 '젬자' 코프로모션에 나선다. <br/>  <br/>보령제약(대표 최태홍)과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젬자 (성분명 젬시타빈염산염)' 코프로모션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br/>  <br/>'젬자'는 췌장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등에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또는 2차 치료에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br/> <br/>보령제약은 젬자의 적응증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 질환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젬자의 국내 매출은 123억원(IMS기준)이었다. <br/>  <br/>보령제약은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 제네릭인 옥살리틴, 탁솔, 젤로다 등을 통해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으며, 항암제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 및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br/>  <br/>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 넓은 시장 커버리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항암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온 보령제약과 새로운 파트너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트너쉽을 통해 보령제약과 한국릴리의 강점을 서로 보완해 암 환자들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6.txt

제목: 보령제약, 한국릴리와 '젬자' 코프로모션 진행  
날짜: 2015061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15100000440  
ID: 01100701.20150615100000440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젬자 코프로모션 파트너 조인식을 마치고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오른쪽)과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보령제약과 한국릴리가 췌장암, 폐암 치료제 '젬자' 코프로모션에 나선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과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15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젬자 (성분명 젬시타빈염산염)' 코프로모션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젬자'는 췌장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등에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또는 2차 치료에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보령제약은 젬자의 적응증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 질환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젬자의 국내 매출은 123억원(IMS기준)이었다.  보령제약은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 제네릭인 옥살리틴, 탁솔, 젤로다 등을 통해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으며, 항암제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 및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 넓은 시장 커버리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항암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온 보령제약과 새로운 파트너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트너쉽을 통해 보령제약과 한국릴리의 강점을 서로 보완해 암 환자들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7.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 치즈 샐러드  
날짜: 20150611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32750469  
ID: 01100701.20160515032750469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레드 푸드의 선두주자 토마토. 토마토 같이 붉은색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 예방에 탁월한 항암 기능이 있다. 또 시력보호, 야맹증 치료, 혈관 개선, 피로회복, 칼슘 흡수율 증가를 통한 골다공증 개선,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맛도 좋고 건강한 토마토와 고소한 치즈를 이용해 맛있는 토마토 치즈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br/> <br/>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 <br/>재료 ▲모짜렐라 치즈 200g ▲토마토 2개 ▲올리브오일 4큰술 ▲체리토마토 5개 ▲소금 1/2작은술 ▲후추 약간 ▲바질 1/2큰술 <br/> <br/>만드는 법 <br/> <br/>1. 모짜렐라 치즈는 0.5cm 크기로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 <br/>2. 체리토마토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 <br/>3. 토마토는 윗부분을 0.5cm 크기로 썰어서 속을 파낸다. <br/>4. 3의 토마토속에 모짜렐라 치즈와 체리토마토를 담는다. <br/>5. 올리브유, 소금, 후추, 바질을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준다. <br/>6. 4에 5의 소스를 뿌려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8.txt

제목: 미국임상종양학회, 암종별 펨브롤리주맙 임상 데이터 발표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157  
ID: 01100701.201506091000001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윤정한 기자〕 흑색종 등 새로운 5개 종류의 암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임상 연구 데이터가 발표됐다.최근 제 51회 미국임상종양학회 (ASCO)에서는 13개 종류의 다양한 암 종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최신 연구 데이터가 발표됐다. 암 치료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인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흑색종 두경부암, 위암에서는 ‘RNA 시그니처’가, 대장암과 기타 암에서 DNA 복제 시 생기는 오류의 복구를 저해하는 ‘DNA 오류 복원력 부족’이 펨브롤리주맙 임상 결과 발표에서 최초로 새로운 바이오마커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이다. 한편, 암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신약 임상 데이터를 논의하는 ASCO는 매년 시카고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ASCO 에서는 다양한 암 종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효과를 보여주는 41개의 초록과 11개의 구두 발표가 진행됐다.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69.txt

제목: 레저 활동 후 생긴 ‘검은 점’, 효과적인 피부암 예방·치료법이 ‘필수’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9100000517  
ID: 01100701.2015060910000051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스포츠월드=이광준 기자〕질병에 국가와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암의 경우엔 멜라닌 색소가 적은 백인들이 주로 앓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피부암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피부에 생긴 점 등 피부암 전조증상을 방치하면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등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발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체 피부암 환자의 약 65%를 차지하는 기저세포암 증상은 머리와 얼굴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특히 눈꺼풀, 코 둘레에 잘 생긴다. 보통 표면이 매끈하고 반투명한 결절로 시작해 병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궤양이 생성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림프절·폐·간·뼈 등으로 전이돼 10개월 내외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에서 유래한 악성종양인 편평세포암 증상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큰 질병이다. 얼굴 상부, 손등, 팔등, 아랫입술, 귓바퀴 등에서 결절판모양, 사마귀모양, 궤양 등 다양한 형태의 병변이 진행되며, 만지면 딱딱한 것이 특징이다.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긴 종양인 흑색종은 멜라닌세포가 존재하는 부위에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흑색종 중에서도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 증상은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고 평범한 검은 반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악성흑색종은 20대부터 조금씩 증가해 40대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한다. 검은 점이 새로 나타나거나, 이미 있었던 검은 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변하면 악성흑색종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반 점과 달리 �팁쩔� 비대칭 �튼÷揚美�가 울퉁불퉁 �틉� 가지 이상의 색조 �팁耽堧� 6mm 이상일 경우 악성흑색종으로 진단한다.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등 피부암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피부의 자외선 과다노출이다. 최근 등산, 낚시, 골프, 스키 등 여가활동을 비롯해 일광욕을 즐기는 등 잦은 야외 활동으로 피부암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는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을 증가시켜 피부암 발병률을 더 높이고 있다.피부암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치료,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부암 치료법들은 수술 후 후유증이나 각종 항암제로 인한 후유증, 흉터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피부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피부암 예방법으로는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외출 시 양산·모자·선글라스 등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부에 좋은 음식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됐다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피부에 좋은 음식으로는 홍삼이 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항산화 작용은 물론 �틘涌し� 높이는 음식 �판퓐洸맏뮈� 좋은 음식 �판態硫廢�에 좋은 음식 �튿蓚切쩔� 좋은 음식 �튼뺙瘦藪� 좋은 음식으로 인증 받은 홍삼은 각종 임상실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피부에 좋음은 물론, 탁월한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홍삼이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세포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성인 69명에게 3g의 홍삼을 8주간 꾸준하게 복용하게 한 후 체내 항산화 효소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험 결과, 실험참가자들의 DNA 손상이 17%나 감소했으며, 체내 항산화효소는 무려 56%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활성산소를 생성해 간접적으로 DNA 손상에 따른 발암 위험을 높이는 자외선A에 대해 홍삼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홍삼이 ‘천연 항암제’임을 보여주는 실험도 있다. 윤연숙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암연구부 박사는 인위적으로 흑생종을 발생시킨 실험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홍삼 다당체를 투여한 후 경과를 지켜본 결과, 홍삼 다당체를 투여한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암 전이 정도가 무려 60%이상 줄어들며 홍삼이 암에 좋은 음식임을 입증했다.이처럼 각종 피부암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홍삼은 관련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중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즐겨먹으면서 유명해진 흑홍삼은 그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몇 몇 업체들의 독주체제 속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붉은빛의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등이 포함돼있는 홍삼진액이 외부로 유실되며 색이 변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홍삼농축액 제작 방식은 거의 모든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삼 고유의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흑홍삼은 다중제어기술로 홍삼진액 유출을 막아 다양한 약리성분이 함유된 홍삼 엑기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재춘 통합의학대학원 교수는 한 건강 관련 TV프로그램에서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을 경우, 전체식(매크로바이오틱)처럼 영양분 흡수율을 90~95%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또한 홍삼 속의 다양한 성분까지 추출된다”며 “채소나 과일을 우려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해도 통째로 갈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윤택준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역시 “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당체까지 흡수하기 위해선 (홍삼을) 갈아먹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kjcoo5004@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0.txt

제목: 美 세계 첫 두개골·두피 이식 성공  
날짜: 20150606  
기자: 국기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6100000492  
ID: 01100701.2015060610000049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와 휴스턴 감리교병원 의료진은 암 치료 중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두개골 일부와 두피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의료진은 지난달 2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에서 기증받은 두피 조직과 모발을 남성 짐 보이슨(55)에게 이식했다. AP통신은 사람에게서 두개골과 두피 등을 기증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5살 때부터 당뇨와 싸워온 보이슨은 1992년 신장·췌장 이식 수술을 하고 거부 반응을 없애고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그런 가운데 면역 억제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였고, 그는 평활근 육종이라는 희소병에 걸렸다. 내장의 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두피 아래 조직이 약화한 탓에 보이슨의 모발은 곧게 서지 못했다. 게다가 계속된 방사선 치료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신체 회복 기능도 약해졌다.최악의 상황에서 MD 앤더슨 암센터의 성형 복원 전문의인 제시 셀버 박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돕도록 신장·췌장도 한꺼번에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12명의 의사와 40명의 수술 지원 인력은 15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에서 가로와 세로 각각 25㎝ 규격의 이식 두개골과 38㎝ 너비의 이식 두피를 보이슨의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옮겨 심었다. 뇌 수술이 끝난 뒤 신장과 췌장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수술 후 뜨거운 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보이슨의 새로 이식받은 두피는 일반인의 그것처럼 똑같이 땀에 젖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했다. 보이슨은 “의료진이 두피 조직과 모발 색깔 등이 내게 잘 어울리도록 수술을 잘해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21살 시절보다 더 많은 머리털을 기르게 될 것 같다”고 농담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1.txt

제목: 美 세계 첫 두개골·두피 이식 성공  
날짜: 20150605  
기자: 국기연 특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510017485655  
ID: 01100701.20150605100174856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br/> <br/>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와 휴스턴 감리교병원 의료진은 암 치료 중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두개골 일부와 두피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br/> <br/>의료진은 지난달 2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에서 기증받은 두피 조직과 모발을 남성 짐 보이슨(55)에게 이식했다. AP통신은 사람에게서 두개골과 두피 등을 기증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br/> <br/>5살 때부터 당뇨와 싸워온 보이슨은 1992년 신장·췌장 이식 수술을 하고 거부 반응을 없애고자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그런 가운데 면역 억제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였고, 그는 평활근 육종이라는 희소병에 걸렸다. 내장의 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두피 아래 조직이 약화한 탓에 보이슨의 모발은 곧게 서지 못했다. 게다가 계속된 방사선 치료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신체 회복 기능도 약해졌다. <br/> <br/>최악의 상황에서 MD 앤더슨 암센터의 성형 복원 전문의인 제시 셀버 박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돕도록 신장·췌장도 한꺼번에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br/> <br/>12명의 의사와 40명의 수술 지원 인력은 15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에서 가로와 세로 각각 25㎝ 규격의 이식 두개골과 38㎝ 너비의 이식 두피를 보이슨의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옮겨 심었다. 뇌 수술이 끝난 뒤 신장과 췌장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 <br/> <br/>수술 후 뜨거운 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보이슨의 새로 이식받은 두피는 일반인의 그것처럼 똑같이 땀에 젖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했다. 보이슨은 “의료진이 두피 조직과 모발 색깔 등이 내게 잘 어울리도록 수술을 잘해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21살 시절보다 더 많은 머리털을 기르게 될 것 같다”고 농담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2.txt

제목: 이화여대, 美 잭슨랩과 유전체 의학 국제 심포지움 개최  
날짜: 20150604  
기자: 이승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354880  
ID: 01100701.2016051502535488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적 유전체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과 공동으로 유전체 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오는 8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br/> <br/>잭슨랩은 지난 1929년 미국에 설립된 세계 최대 동물 질병모델 연구소로,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방대한 의료분야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br/> <br/>약 1700명의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 질병모델 생산과 개인별 맞춤 치료 연구를 통해 암, 노화, 당뇨, 심장병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br/> <br/>지난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주정부는 잭슨랩 산하에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데 총 1조원(한화)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소장으로 찰스 리 박사를 임명한 바 있다. <br/> <br/>이화여대와 잭슨랩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전세계적으로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전체 의학 현황과 발전방향을 조망, 국제적 협력을 통한 미래 맞춤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특히 이화여대가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를 대학원 생명과학과 초빙석좌교수로 지난 3월 임용하고 잭슨랩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등 교류관계를 맺은 뒤 처음 열리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br/> <br/>심포지움을 위해 한국인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선정된 찰스 리 교수와 암 유전체학 연구의 세계적 리더인 에디슨 리우(Edison Liu) 박사를 비롯, 잭슨랩 핵심 과학자 6명이 내한하고 국내 최고의 유전체 연구진이 함께 할 예정이다. <br/> <br/>우선 잭슨랩의 회장 겸 CEO인 에디슨 리우 박사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싱가포르 게놈연구소(GIS)의 소장으로 GIS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워냈으며, 2007년부터 5년간 인간게놈위원회(HUGO) 회장으로서 세계 게놈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br/> <br/>2009년에는 한국ㆍ싱가포르ㆍ중국 등 11개국 40개 연구기관 93명의 과학자와 함께 '아시아 민족 이동 연구'를 진행해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br/> <br/>찰스 리 교수는 2013년 설립된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으로, 2004년 사람과 사람 사이 유전체에 '단위반복변이'라는 구조적 유전체변이가 존재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의과학자다. <br/> <br/>140여 편의 논문을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세계 유명 과학 학술지에 발표하고,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진단법과 유전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해 유전체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을 얻고 있다. <br/> <br/>미국 한림원 정회원으로 2008년 호암상을 수상했고, 2014년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br/> <br/>이 밖에 미생물 유전체 연구(Microbiome)의 선구자로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별 맞춤치료(precision medicine)에 관한 기자회견 시 대표 과학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조지 와인스탁(George Weinstock) 박사, 면역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쟈크 반슈로우(Jacques Banchereau) 박사, 유전체 3차원 구조 분석의 대가 이준 루안(Yijun Ruan) 박사, 줄기세포 및 생식유전학 분야 대가인 로버트 브라운(Robert Braun) 박사도 참여한다. <br/> <br/>이들 잭슨랩의 과학자들 외에도 국내 유전체학 연구를 선도하는 이화여대 오구택·이상혁·강덕희 교수, 서울대 김종일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황대희 교수의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br/> <br/>이화여대는 심포지움 외에도 잭슨랩과의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오는 7월에는 미래 유전체 의학자를 꿈꾸는 본교 대학원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미국 잭슨랩으로 파견, '의학 및 실험 포유류 유전학'을 주제로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2주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br/> <br/>한편 잭슨랩 관계자들은 오는 9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이화여대 의료원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대 의료원이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질병 진단 및 치료 노하우와 잭슨랩의 유전체 관련 탁월한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양 기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치암, 대사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새로운 진단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폭 넓은 미래 발전 방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3.txt

제목: 아베 박사,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이 중요  
날짜: 20150604  
기자: 최종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5141046  
ID: 01100701.20160515025141046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br/> <br/>일본 학회에서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지난 5월 24일 일본 도쿄 이이노 컨퍼런스홀에서는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학술발표에 나선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지속적으로 임상연구 중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br/> <br/>아베 박사에 따르면 89세의 고령 여성 폐암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현저히 축소, 감소됐음이 발견됐다. 2주에 1번씩 총 6회를 1싸이클로 치료한 결과다. 고령으로 체력이 저하돼 수술과 항암제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물론 전이-재발 암 환자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통해 70%, 하이브리드 치료(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New NK세포치료 병행)로 74.4%의 유효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br/> <br/>아베 박사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암 환자 별로 다양한 항원 개발에 힘썼으며, 암 환자 개인에 특성화된 개별화치료를 시행해 왔다. 인체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br/> <br/>약 10여 종의 암항원을 보유한 아베종양내과가 사용하고 있는 암항원 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 <br/>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9월에 췌장암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항원이기도 하다. 이 암항원은 췌장암 외에 전립선암-폐암-위암-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베종양내과는 추가 연구 중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공동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br/> <br/>아베 박사의 유전자 분석법에 근거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수지상세포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지상세포란 면역세포의 사령관과 같은데, 암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항원을 기억해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T세포'에 항원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br/> <br/>즉,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와 수지상세포가 아베 박사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핵심 키워드며, 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킬러T세포,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암항원(단백질)을 모두 사용된다.  <br/> <br/>암 환자로부터 약 25ml 정도의 소량의 채혈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 방법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 수지상세포와 개인별 유전자검사-항원검사 후 허가된 개인별 암항원을 4~5종 정도 추가해 치료한다. 이 암 항원이 킬러T세로를 도와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치료는 2주간 배양 과정을 거쳐 수지상세포와 킬러T세포가 암 정보를 교환하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치료법으로 아베종양내과는 2014년 7월 일본에서 특허(제5577472호)를 획득했다.  <br/> <br/>아베 박사의 발표에 이어, 스즈키 요시유키 교수(후쿠시마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가 방사선 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즈키 교수는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조사(照射)는 'HLA클래스-1'의 발현을 증가시켜 숨어 있던 암세포를 드러나게 한다. 드러난 암세포를 수지상세포가 정확히 인식해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킬러T세포에 명령을 내리며, 또한 세포상해성T림프구(CTL)가 증가해 T림프구가 암세포 속으로 정확히 들어감으로써 항암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br/> <br/>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최근 일본의 재생의료법에 근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료진, 제약시설, 치료과정, 치료결과관리, 검진시스템, 수지상세포배양 및 치료법,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받은 결과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4.txt

제목: 아베 박사,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이 중요  
날짜: 2015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0661  
ID: 01100701.2015060410000066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학회에서 암백신 치료도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5월 24일 일본 도쿄 이이노 컨퍼런스홀에서는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학술발표에 나선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지속적으로 임상연구 중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아베 박사에 따르면 89세의 고령 여성 폐암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현저히 축소, 감소됐음이 발견됐다. 2주에 1번씩 총 6회를 1싸이클로 치료한 결과다. 고령으로 체력이 저하돼 수술과 항암제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물론 전이-재발 암 환자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통해 70%, 하이브리드 치료(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New NK세포치료 병행)로 74.4%의 유효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아베 박사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암 환자 별로 다양한 항원 개발에 힘썼으며, 암 환자 개인에 특성화된 개별화치료를 시행해 왔다. 인체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약 10여 종의 암항원을 보유한 아베종양내과가 사용하고 있는 암항원 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9월에 췌장암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항원이기도 하다. 이 암항원은 췌장암 외에 전립선암-폐암-위암-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베종양내과는 추가 연구 중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공동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아베 박사의 유전자 분석법에 근거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수지상세포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지상세포란 면역세포의 사령관과 같은데, 암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항원을 기억해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T세포'에 항원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치료와 수지상세포가 아베 박사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핵심 키워드며, 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킬러T세포,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암항원(단백질)을 모두 사용된다. 암 환자로부터 약 25ml 정도의 소량의 채혈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 방법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 수지상세포와 개인별 유전자검사-항원검사 후 허가된 개인별 암항원을 4~5종 정도 추가해 치료한다. 이 암 항원이 킬러T세로를 도와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치료는 2주간 배양 과정을 거쳐 수지상세포와 킬러T세포가 암 정보를 교환하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치료법으로 아베종양내과는 2014년 7월 일본에서 특허(제5577472호)를 획득했다. 아베 박사의 발표에 이어, 스즈키 요시유키 교수(후쿠시마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가 방사선 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즈키 교수는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조사(照射)는 'HLA클래스-1'의 발현을 증가시켜 숨어 있던 암세포를 드러나게 한다. 드러난 암세포를 수지상세포가 정확히 인식해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킬러T세포에 명령을 내리며, 또한 세포상해성T림프구(CTL)가 증가해 T림프구가 암세포 속으로 정확히 들어감으로써 항암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최근 일본의 재생의료법에 근거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료진, 제약시설, 치료과정, 치료결과관리, 검진시스템, 수지상세포배양 및 치료법,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받은 결과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5.txt

제목: 이화여대, 美 잭슨랩과 유전체 의학 국제 심포지움 개최  
날짜: 201506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4100001236  
ID: 01100701.201506041000012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적 유전체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과 공동으로 유전체 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오는 8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잭슨랩은 지난 1929년 미국에 설립된 세계 최대 동물 질병모델 연구소로,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방대한 의료분야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약 1700명의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 질병모델 생산과 개인별 맞춤 치료 연구를 통해 암, 노화, 당뇨, 심장병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지난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주정부는 잭슨랩 산하에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데 총 1조원(한화)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소장으로 찰스 리 박사를 임명한 바 있다.이화여대와 잭슨랩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전세계적으로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전체 의학 현황과 발전방향을 조망, 국제적 협력을 통한 미래 맞춤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화여대가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를 대학원 생명과학과 초빙석좌교수로 지난 3월 임용하고 잭슨랩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등 교류관계를 맺은 뒤 처음 열리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의미를 갖는다.심포지움을 위해 한국인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선정된 찰스 리 교수와 암 유전체학 연구의 세계적 리더인 에디슨 리우(Edison Liu) 박사를 비롯, 잭슨랩 핵심 과학자 6명이 내한하고 국내 최고의 유전체 연구진이 함께 할 예정이다.우선 잭슨랩의 회장 겸 CEO인 에디슨 리우 박사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싱가포르 게놈연구소(GIS)의 소장으로 GIS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워냈으며, 2007년부터 5년간 인간게놈위원회(HUGO) 회장으로서 세계 게놈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2009년에는 한국ㆍ싱가포르ㆍ중국 등 11개국 40개 연구기관 93명의 과학자와 함께 '아시아 민족 이동 연구'를 진행해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찰스 리 교수는 2013년 설립된 잭슨랩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으로, 2004년 사람과 사람 사이 유전체에 '단위반복변이'라는 구조적 유전체변이가 존재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의과학자다.140여 편의 논문을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세계 유명 과학 학술지에 발표하고,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진단법과 유전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해 유전체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을 얻고 있다.미국 한림원 정회원으로 2008년 호암상을 수상했고, 2014년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 밖에 미생물 유전체 연구(Microbiome)의 선구자로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별 맞춤치료(precision medicine)에 관한 기자회견 시 대표 과학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조지 와인스탁(George Weinstock) 박사, 면역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쟈크 반슈로우(Jacques Banchereau) 박사, 유전체 3차원 구조 분석의 대가 이준 루안(Yijun Ruan) 박사, 줄기세포 및 생식유전학 분야 대가인 로버트 브라운(Robert Braun) 박사도 참여한다.이들 잭슨랩의 과학자들 외에도 국내 유전체학 연구를 선도하는 이화여대 오구택·이상혁·강덕희 교수, 서울대 김종일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황대희 교수의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이화여대는 심포지움 외에도 잭슨랩과의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오는 7월에는 미래 유전체 의학자를 꿈꾸는 본교 대학원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미국 잭슨랩으로 파견, '의학 및 실험 포유류 유전학'을 주제로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2주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정이다.한편 잭슨랩 관계자들은 오는 9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이화여대 의료원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대 의료원이 그동안 구축한 다양한 질병 진단 및 치료 노하우와 잭슨랩의 유전체 관련 탁월한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치암, 대사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새로운 진단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폭 넓은 미래 발전 방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6.txt

제목: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개인 재산 10억 쾌척  
날짜: 20150603  
기자: 최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4504550  
ID: 01100701.2016051502450455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차병원그룹은 차광렬 회장이 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가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인 '난치병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난치병 극복 지원금 10억원을 쾌척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이번 기부는 지난 1998년 IMF시절 320억원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과 2011년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한 것에 이은 것으로 평소 난치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얘기한 차회장의 소신과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  <br/>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 등 3자간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차광렬 회장은 현재 차병원그룹의 77개의 난치병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직접 소개하고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br/> <br/>또 이 자리에는 현재 임상 중인 난치병 치료제로 상당히 호전된 뇌성마비, 파킨병 의 환자들이 참석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br/> <br/>또한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자들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석 기부를 결정해 25억원 가량의 연구 지원금이 걷히는 등 난치병 극복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br/>  <br/>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은 "병원과 학교 바이오벤처와 제약사 등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난치병 극복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과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재산을 비롯해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차광렬 회장은 IMF 시절 개인 재산 320억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2011년에는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했으며 모교인 연세대학교 20억원 규모의 암 연구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br/> <br/>지난 1997년 개교한 차의과학대학교의 전학생, 전액, 전원 장학금 지급으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난치병 극복과 후학 양성에 큰 힘을 쏟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7.txt

제목: EU연구팀 "여성에게만 생기는 4대 암 단일검사로 확인하는 시대 곧 도래"  
날짜: 20150603  
기자: 불과하다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0648  
ID: 01100701.20150603100000648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여성에게만 생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4대 암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단일 검사법이 유럽연합(EU) 연구팀에 의해 개발 중이다.EU 1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주도 아래 4년전부터 개발되고 있는 이 획기적인 진단법은 곧 완성돼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단일 검사법은 자궁경부암 진단에 사용되는 세포진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추출해 DNA변이, 후성유전학적 변화, 특정 박테리아 존재를 일시에 검사하는 것이라고 연구를 총지휘하고 있는 UCL의 마틴 위드슈벤터 박사는 밝혔다.이를 통해 여성에게는 4대 암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 평가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4대 여성암은 비정상적인 여성호르몬 분비, 자궁경부의 비정상 상피세포 등 동일한 조건에 의해 촉발된다고 그는 밝혔다.특히 자궁경부 내막 세포의 분석은 신체 다른 부위에 있는 유사한 세포들이 정상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이 4대 암은 전체 여성 암의 47%를 차지하며 5년 생존율은 40%에 불과하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8.txt

제목: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개인 재산 10억 쾌척  
날짜: 2015060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1291  
ID: 01100701.2015060310000129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차병원그룹은 차광렬 회장이 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가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인 '난치병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난치병 극복 지원금 10억원을 쾌척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1998년 IMF시절 320억원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과 2011년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한 것에 이은 것으로 평소 난치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얘기한 차회장의 소신과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와 환자, 치료제 개발 회사 등 3자간 난치병 극복을 위한 공동 모색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차광렬 회장은 현재 차병원그룹의 77개의 난치병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직접 소개하고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또 이 자리에는 현재 임상 중인 난치병 치료제로 상당히 호전된 뇌성마비, 파킨병 의 환자들이 참석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또한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자들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석 기부를 결정해 25억원 가량의 연구 지원금이 걷히는 등 난치병 극복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은 "병원과 학교 바이오벤처와 제약사 등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난치병 극복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과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재산을 비롯해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광렬 회장은 IMF 시절 개인 재산 320억원을 기부한 것에 이어 2011년에는 줄기세포 연구 기금으로 100억원을 쾌척했으며 모교인 연세대학교 20억원 규모의 암 연구상을 제정하기도 했다.지난 1997년 개교한 차의과학대학교의 전학생, 전액, 전원 장학금 지급으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난치병 극복과 후학 양성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헬스팀 김봉수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79.txt

제목: 이훈, 간 질환에 대한 속 시원한 처방전과 운동법 공개  
날짜: 20150603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3100000034  
ID: 01100701.20150603100000034  
카테고리: 문화  
본문: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오는 4일 방송예정인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의 ‘기찬 처방전 100세 푸드’ 에서는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이훈과 제시카가 각 분야 전문의, 패널들과 함께 간 건강을 주제로 간 질환 별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가정의학과 김세완 원장은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암은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간암의 생존율은 다른 암에 비해 50%나 떨어진다</span>” 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이훈이 이유를 묻자 내과 김성훈 원장은 “<span class='quot1'>간에서 암이 발생했을 경우 전신으로 전이될 우려가 크며 간암의 존재를 깨달았을 시점엔 이미 전이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span>”이라 답했다.두 원장의 설명을 들은 이훈은 “오늘은 정말 무섭다”며 녹화 시작부터 두려움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병리과 양석우 원장은 간 건강 지키기 처방으로 와인 석 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span class='quot1'>와인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 이왕 술을 마신다면 와인을 선택하라는 의미</span>”라고 설명하며 “일주일에 석 잔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간 건강을 주제로 술과 함께 해장법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이훈은 “시원한 물냉면”을 자신만의 해장법으로 꼽았고 제시카는 “따뜻한 쌀국수로 해장한다”고 밝혔다고. 이에 유영기 원장은 “<span class='quot2'>어떤 것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너무 자극적으로 먹는 것은 위장을 상하게 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간 질환에 대한 처방전부터 레시피, 운동법까지 소개하는 ‘기찬 처방전 100세 푸드’ 5회는 오는 4일 밤 11시 건강의학 정보채널 헬스메디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찬 처방전! 100세푸드'는 최신 업데이트 된 건강 및 의학정보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맞춤 식단까지 제안하는 프로그램. 건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몸짱 배우 이훈과 미녀 요가 강사 제시카가 MC로 호흡을 맞춘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본 방송.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0.txt

제목: 英암연구소 "새 항암제 '이브랜스' 진행성 유방암 억제에 탁월한 효과 있다" 입증  
날짜: 20150601  
기자: yjchoo@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601100000916  
ID: 01100701.201506011000009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진행성 유방암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암제가 주목받고 있다.화이자 제약회사가 개발한 새 항암제 이브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는 진행성 유방암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영국 암연구소의 니컬러스 터너 박사는 암세포가 전이된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 항에스트로겐제제 풀베스트란트와 함께 이브랜스를 병행 투여하면 풀베스트란트 단독 투여보다 유방암의 진행을 2배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30일 보도했다.가장 흔한 형태의 진행성 유방암인 호르몬수용체 양성 유방암과 인간표피성장인자2(HER2)음성 유방암 환자로 풀베스트란트가 투여되고 있는 521명(평균연령 57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이브랜스를 추가 투여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터너 박사는 밝혔다.병행 투여 그룹은 유방암의 진행이 9.2개월이나 억제됐다. 이는 풀베스트란트 단독 투여 그룹의 3.8개월에 비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그러나 이브랜스가 실제로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티 오브 호프 암센터(City of Hope Cancer Center) 여성암  프로그램실장 조앤 모티머 박사는 암의 진행이 5개월 더 억제됐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라고논평했다.지난 2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이브랜스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유방암을 촉진하는 두 가지 단백질을 억제한다.이 임상시험 결과는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되는 동시에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1.txt

제목: ‘세포 내 경찰’ miRNA 탄생의 비밀 풀었다  
날짜: 20150529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1635713  
ID: 01100701.2016051502163571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빛내리 교수·우재성 연구위원마이크로(mi)RNA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분화와 성장, 사멸 활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 내 경찰’이라 불린다. 인체에는 2000여개 miRNA가 있는데, 종류마다 역할이 다르다. 이들 miRNA의 생성과 작동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유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br/> <br/>국내 연구진이 miRNA를 만드는 물질인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의 구성과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br/> <br/>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단장으로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은 이 같은 성과를 담은 논문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셀’의 이날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에는 김 단장과 우재성 RNA연구단 연구위원(서울대 연구교수)이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miRNA의 존재는 1993년 미국의 빅터 앰브로스 박사에 의해 발견됐지만, 김 단장이 2002년 miRNA 생성과정에 이어 2003년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까지 처음 발견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br/> <br/>IBS 연구진은 후속 연구에 착수해 이번에 처음으로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의 대량 정제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각 부위의 기능을 명확히 밝혀냈다. 이 복합체가 1개의 드로셔와 2개의 DGCR8 분자로 구성돼 있음을 최초로 규명하고, 그 기능까지 파악하는 데 이르렀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2.txt

제목: ‘세포 내 경찰’ miRNA 탄생의 비밀 풀었다  
날짜: 20150529  
기자: cult@segye.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9100000431  
ID: 01100701.2015052910000043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빛내리 교수·우재성 연구위원마이크로(mi)RNA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분화와 성장, 사멸 활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 내 경찰’이라 불린다. 인체에는 2000여개 miRNA가 있는데, 종류마다 역할이 다르다. 이들 miRNA의 생성과 작동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유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국내 연구진이 miRNA를 만드는 물질인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의 구성과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단장으로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은 이 같은 성과를 담은 논문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셀’의 이날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에는 김 단장과 우재성 RNA연구단 연구위원(서울대 연구교수)이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miRNA의 존재는 1993년 미국의 빅터 앰브로스 박사에 의해 발견됐지만, 김 단장이 2002년 miRNA 생성과정에 이어 2003년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까지 처음 발견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IBS 연구진은 후속 연구에 착수해 이번에 처음으로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의 대량 정제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각 부위의 기능을 명확히 밝혀냈다. 이 복합체가 1개의 드로셔와 2개의 DGCR8 분자로 구성돼 있음을 최초로 규명하고, 그 기능까지 파악하는 데 이르렀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3.txt

제목: 2015세계과학기자대회 다음달 8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려  
날짜: 20150528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21511935  
ID: 01100701.20160515021511935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심재억)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br/> <br/>학술 프로그램은 17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1년여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대회기간 중 동시 세션으로 운영되는 총 40개 학술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과학 언론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br/> <br/>학술 프로그램의 큰 주제로는 ▲이머징 아시아: 가능성과 갈등 ▲과학 스토리 전하기 △기술, 사회, 그리고 언론 ▲과학언론의 다양성과 협력 ▲과학·과학언론의 윤리와 진실성 등을 선정했다. <br/> <br/>기조 강연자로는 2012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교토대 교수)와 BBC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 코니 세인트루이스(런던 시티대 교수), 그리고 2014 퓰리처상 수상자 댄 페이긴(뉴욕대 교수)이 참여한다. <br/> <br/>대회 첫날인 6월 8일에는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경(캠브리지대 명예교수)과 1992년 퓰리처상 집중보도 부문을 수상한 데보라 블럼(위스콘신대 교수)이 참여해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세계 보건 이슈와 트렌드를 담은 의학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혁명으로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서울대 김진수 교수(기초3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가 발표한다.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를 비롯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사례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의 바이러스 사낭꾼’이란 주제로 데니스 노마일(사이언스지 특파원)이,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는 암환자에 대한 통합 치료 개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신개념의 암 환자 지지 의료’에 대해서, ‘암과 심혈관계 및 간질환 등의 비전염성 질환과 싸우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윌스트리트저널 과학담당 론 윈슬로 부국장이 각각 발표한다. <br/> <br/>대회 셋째 날인 6월10일(수)에는 ‘이슈 속으로: 에볼라 보도의 교훈’ 세션을 통해 위기 보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례 및 통찰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 세션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 에디터인 마틴 엔서링크(Martin Enserink)의 기획 아래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취재한 3명의 기자와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윤주웅 홍보이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 주제로는 에볼라 취재시 현지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비롯해 리스크 보도시에 의과학 전문기자들이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br/> <br/>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과학 언론에 입문하기 희망하는 예비 언론인과 프리랜서 언론인들에게 세계적인 언론사 편집인들과의 대면 기회를 제공하는 ‘편집자와의 만남’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신의 기사 기획 방향을 이메일(editors@wcsj2015.or.kr)을 통해 6월 5일까지 영문 1문단 분량으로 접수하면 된다. <br/> <br/>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조직위원장인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span class='quot0'>세계적인 의과학 연구자 및 언론인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과학 언론 행사의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www.wcsj2015.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4.txt

제목: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암 세포만 골라 사멸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000337  
ID: 01100701.2015052810000033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20회를 맞이하는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환자 개인에 특성화된 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결과를 발표해 또 한번 이목을 끌었다. 그는 16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개별화치료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span class='quot0'>현재 활용되고 있는 암치료법 중 천차만별인 암의 성질을 고려한 치료법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실험에 근거한 대규모 집단조사의 평균 결과에 기반한 치료법만을 사용하며 개인마다 다른 증상과 원인은 무시돼온 현실을 개선하려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인체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60조의 세포 구성되어 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이 유전자의 개수와 유전자를 구성하는 세포는 너무나 다양하며 암에 관한 유전자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를 파악해 개인에 특성화된 개별화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히로유키 박사의 주장이다. 일본 도쿄에서 지난 24일 개최된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이룬 성과를 치하하는 인사말을 남긴 후,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암백신 치료 결과를 발표했다. 수지상세포란 면역세포의 사령관과 같은데, 암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항원을 기억해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T세포’에 항원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박사가 발표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란 환자의 수지상세포, 킬러T세포, 헬퍼T세포, 메모리T세포, 암항원(단백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암 환자로부터 약 25ml 정도의 소량의 채혈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 방법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 수지상세포와 개인별 유전자검사·항원검사 후 개인별 맞춤형 암항원을 4~5종 정도 추가해 치료한다. 이 암 항원이 킬러T세로를 도와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치료는 2주간 배양 과정을 거쳐 수지상세포와 킬러T세포가 암 정보를 교환하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치료법은 2014년 7월 일본에서 특허(제5577472호)를 획득했다. 아베 박사는 제20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고령의 폐암환자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의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89세 여성 환자에게 이 치료법을 2주에 1번씩 총 6회를 1싸이클로 치료한 결과, 종양과 종양수치가 현저히 축소·감소했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아베 박사는 고령으로 체력이 저하돼 수술과 항암제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물론 전이·재발 암 환자도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통해 70%, 하이브리드 치료(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New NK세포치료 병행)로 74.4%의 유효 치료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는 스즈키 요시유키 교수(후쿠시마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가 방사선 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조사(照射)는 ‘HLA클래스-1’의 발현을 증가시켜 숨어 있던 암세포를 드러나게 한다</span>”고 설명하면서 “<span class='quot0'>드러난 암세포를 수지상세포가 정확히 인식해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킬러T세포에 명령을 내린다</span>”고 발표했다. 더불어 세포상해성T림프구(CTL)가 증가해 T림프구가 암세포 속으로 정확히 들어감으로써 항암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인류의 오랜 숙원 암 정복도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아베종양내과는 약 10여 종의 암항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암항원 중 GV1001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항원이다. 이 암항원은 췌장암 외에 전립선암·폐암·위암·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구 중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공동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아베종양내과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재생의료법에 근거해 치료의사, 제약시설, 치료과정, 치료결과관리, 검진시스템, 수지상세포배양 및 치료법,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받은 결과 수지상세포치료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재생의료법은 PS(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황반변성, 파킨슨병) 개발과 표준화된 면역세포치료를 위한 규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5.txt

제목: 2015세계과학기자대회 다음달 8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려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000101  
ID: 01100701.201505281000001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심재억)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술 프로그램은 17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1년여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대회기간 중 동시 세션으로 운영되는 총 40개 학술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과학 언론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술 프로그램의 큰 주제로는 ▲이머징 아시아: 가능성과 갈등 ▲과학 스토리 전하기 △기술, 사회, 그리고 언론 ▲과학언론의 다양성과 협력 ▲과학·과학언론의 윤리와 진실성 등을 선정했다. 기조 강연자로는 2012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교토대 교수)와 BBC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 코니 세인트루이스(런던 시티대 교수), 그리고 2014 퓰리처상 수상자 댄 페이긴(뉴욕대 교수)이 참여한다. 대회 첫날인 6월 8일에는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경(캠브리지대 명예교수)과 1992년 퓰리처상 집중보도 부문을 수상한 데보라 블럼(위스콘신대 교수)이 참여해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세계 보건 이슈와 트렌드를 담은 의학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혁명으로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서울대 김진수 교수(기초3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가 발표한다.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를 비롯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사례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의 바이러스 사낭꾼’이란 주제로 데니스 노마일(사이언스지 특파원)이,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는 암환자에 대한 통합 치료 개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신개념의 암 환자 지지 의료’에 대해서, ‘암과 심혈관계 및 간질환 등의 비전염성 질환과 싸우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윌스트리트저널 과학담당 론 윈슬로 부국장이 각각 발표한다. 대회 셋째 날인 6월10일(수)에는 ‘이슈 속으로: 에볼라 보도의 교훈’ 세션을 통해 위기 보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례 및 통찰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 세션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 에디터인 마틴 엔서링크(Martin Enserink)의 기획 아래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취재한 3명의 기자와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윤주웅 홍보이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주요 주제로는 에볼라 취재시 현지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비롯해 리스크 보도시에 의과학 전문기자들이 갖춰야 할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과학 언론에 입문하기 희망하는 예비 언론인과 프리랜서 언론인들에게 세계적인 언론사 편집인들과의 대면 기회를 제공하는 ‘편집자와의 만남’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신의 기사 기획 방향을 이메일(editors@wcsj2015.or.kr)을 통해 6월 5일까지 영문 1문단 분량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조직위원장인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span class='quot0'>세계적인 의과학 연구자 및 언론인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과학 언론 행사의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www.wcsj2015.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6.txt

제목: 대한부인종양학회, 인유두종바이러스 캠페인 성황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8100000399  
ID: 01100701.20150528100000399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진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관한 캠페인을 통해 질병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학회의 ‘STOP HPV’ 캠페인은 지난 2012년부터 HPV 인식 향상 및 유발 질환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 및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3월~5월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전국 10개 대학교의 총 100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암과 생식기질환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캠페인은 ‘사랑도 공부가 필요해’ 라는 주제로 ▲ 건강한 남녀 관계와 HPV예방법에 대해 배우는 ´러브 라이센스 강좌´ ▲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상담부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러브 라이센스 강좌를 들은 6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강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남녀대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강좌 내용 중 가장 유익한 내용으로 ‘남녀의 피임법과 그 종류(52%)와 ‘HPV 예방백신 정보’(40%)를 각각 1위, 2위로 꼽았다. 이어 ‘HPV가 유발하는 질환 정보‘가 3위를, ‘HPV관련 질환 예방법’과 ‘올바른 대학생 성관계에 대한 전문의의 조언’이 뒤를 이었다.캠퍼스 내 설치된 상담 부스를 방문한 대학생 김지현(26)은 “어릴 때부터 자궁경부암 등 부인과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산부인과 방문이 꺼려져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에 의존했어야 했다”며, “캠퍼스 내에서 진행된 상담부스를 통해 평소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문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배덕수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은 “성 관계를 시작하는 젊은 여성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HPV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심각한 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며“이에 젊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HPV인식 및 사전 예방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STOP HPV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yun0086@sp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7.txt

제목: 한림대학교의료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 'Mighty Global Player' 발돋움  
날짜: 2015052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6100000937  
ID: 01100701.2015052610000093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4월 18일과 5월 16일에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각각 ‘한림중개의학연구소’를 개소했다.한림대학교의료원은 2010년 3월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ht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제3기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 ? 2015’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2012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개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개의학연구소 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우수 진료?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한림중개의학연구소는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연구 인프라를 집약적?효율적으로 배치해 운영한다. 또 진료과 간 연구네트워트를 구축하고, 질병 중심의 임상중개 연구를 활성화해 ‘최우수 진료?연구기관’이라는 한림대학교의료원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한림중개의학연구소(한림대학교성심병원)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Water Purification System 외 20여종의 첨단연구장비와 Specific Pathogene Free(SPF)급의 동물연구실을 포함하여 중동물 및 대동물을 이용한 수술 술기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본관 5층에 한림중개의학연구소(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를 개설하였으며 교수들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을 포함하여 공동기기실, 세포배양실, 멸균실 및 인체유래물은행등을 갖추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중개의학연구소는 이런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동물실험뿐만 아니라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혜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2003년부터 시작된 'Mighty Hallym' 비전 구현을 위해 의료질과 고객만족도를 향상해왔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강화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이번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학의 확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연구중심의 세계 100대 의료기관으로 진입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또,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영등포구 대림동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인근에 지상 5층, 지하 6층 규모로 연구동을 신축 중이며 2017년 7월 완공예정이다. 연구동이 완공되면 중개의학연구소를 개소해, 암, 노화, 퇴행성 신경계질환 및 국가재난형 신종 전염병을 연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8.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 유타주립대와 국제 공동연구협약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1100000032  
ID: 01100701.201505211000000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스포츠월드=윤정한 기자〕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가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 생명공학부 바이오혁신센터와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유타 주립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 ▲산양산삼에서의 항암물질 추출기술 개발 ▲한약재에서 항암지표물질 분리, 정제 및 새로운 제형개발 ▲한방과 양방의 병행치료에서 항암의 시너지 효과를 규명하고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조원준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은 미국 유타주립대와 항암물질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중국 허난농업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미·중 3개 기관이 협업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의 한방 면역암치료에 대한 특성분석을 동시에 하는 다국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우리 한방과 한약재(천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통합면역 암치료 특화 소람한방병원(병원장 성 신)은 지난 3월 대전대학교 LINC 사업단의 협력기관과 국내 한방바이오사업의 산업화를 위한 표준화 개발과 한약재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양한방의 "연구와 근거중심의 병원"과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소람한방병원은 양방과 한방의 전문 의료진 협진시스템을 구축 환자 맞춤 통합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람한방병원 의학연구소를 설립해 면역증진을 통한 환자 만족도 향상과 통합암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yun0086@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89.txt

제목: 포스텍 차형준교수팀, 홍합 접착 메커니즘 이용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 개발  
날짜: 201505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12911287  
ID: 01100701.2016051501291128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 홍합 접착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특정 pH에서 물질을 방출하는 단백질 나노입자가 개발됐다. <br/> <br/>지금까지 홍합접착 단백질 자체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홍합접착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새로운 기술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br/> <br/>20일 포스텍에 따르면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이 홍합의 접착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인 금속-카테콜(알코올, 에테르에 녹는 무색 결정) 결합을 활용해 약물전달체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br/> <br/>연구성과는 화학 분야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br/> <br/>금속-카테콜 결합은 홍합이 바위에 붙어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특히 결합력과 자가복원성이 강해 생체접착제나 의료용 소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연구팀은 이번에 금속-카테콜 결합이 금속 분자 주변의 pH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 특정 pH 이하에서만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나노입자를 만들어 냈다. <br/> <br/>이 입자는 자체로도 접착력이 있어 생체조직 표면에서 효과적으로 접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r/> <br/>생체조직 표면에 접착한 뒤 세포 안에 들어가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pH 반응성 약물전달 제재로 의료분야나 화장품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차 교수는 “<span class='quot0'>홍합접착 메커니즘에 의한 화학결합을 약물전달체 등 새로운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반기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이용한 국소적 약물전달 접착성 물질로 암치료에 응용하는 동물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0.txt

제목: 포스텍 차형준교수팀, 홍합 접착 메커니즘 이용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 개발  
날짜: 20150520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20100000597  
ID: 01100701.2015052010000059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 홍합 접착단백질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특정 pH에서 물질을 방출하는 단백질 나노입자가 개발됐다.지금까지 홍합접착 단백질 자체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홍합접착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새로운 기술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20일 포스텍에 따르면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이 홍합의 접착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인 금속-카테콜(알코올, 에테르에 녹는 무색 결정) 결합을 활용해 약물전달체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착성 단백질 나노입자를 개발했다.연구성과는 화학 분야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금속-카테콜 결합은 홍합이 바위에 붙어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특히 결합력과 자가복원성이 강해 생체접착제나 의료용 소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연구팀은 이번에 금속-카테콜 결합이 금속 분자 주변의 pH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 특정 pH 이하에서만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나노입자를 만들어 냈다.이 입자는 자체로도 접착력이 있어 생체조직 표면에서 효과적으로 접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생체조직 표면에 접착한 뒤 세포 안에 들어가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pH 반응성 약물전달 제재로 의료분야나 화장품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차 교수는 “<span class='quot0'>홍합접착 메커니즘에 의한 화학결합을 약물전달체 등 새로운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반기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이용한 국소적 약물전달 접착성 물질로 암치료에 응용하는 동물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1.txt

제목: 홍삼, 항암제 부작용 줄여준다  
날짜: 20150519  
기자: 선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9100000090  
ID: 01100701.2015051910000009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홍삼이 항암제의 부작용인 급성신부전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정주영(사진) 교수팀은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치유 및 보호 효능 평가’란 논문에서 홍삼이 시스플라틴 투여로 발생한 급성신부전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논문은 국제의학학술지인 ‘플란타 메디카(Planta Medica)’에 게재됐다.시스플라틴은 암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다. 구토와 오심, 무기력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신장 독성을 지녀 급성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신장기능 보호효과를 관찰한 결과, 홍삼 투여군에서 시스플라틴만 투여한 집단보다 체중감소 정도가 경감됐고, 신장 내 조직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세포산화물 형성, 세포단백질(p53) 유도 정도, 세뇨관 괴사 정도도 홍삼 투여군에서 감소했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암 치료에 쓰이는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신장기능 감퇴가 홍삼 투여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종류의 신장병 치료에도 홍삼의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박태해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2.txt

제목: 홍삼, 항암제 부작용 줄여준다  
날짜: 20150518  
기자: 박태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810017320463  
ID: 01100701.20150518100173204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홍삼이 항암제의 부작용인 급성신부전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충남대 정주영(사진) 교수팀은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치유 및 보호 효능 평가’란 논문에서 홍삼이 시스플라틴 투여로 발생한 급성신부전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논문은 국제의학학술지인 ‘플란타 메디카(Planta Medica)’에 게재됐다. <br/> <br/>시스플라틴은 암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다. 구토와 오심, 무기력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신장 독성을 지녀 급성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신장기능 보호효과를 관찰한 결과, 홍삼 투여군에서 시스플라틴만 투여한 집단보다 체중감소 정도가 경감됐고, 신장 내 조직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세포산화물 형성, 세포단백질(p53) 유도 정도, 세뇨관 괴사 정도도 홍삼 투여군에서 감소했다. <br/> <br/>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암 치료에 쓰이는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신장기능 감퇴가 홍삼 투여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종류의 신장병 치료에도 홍삼의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박태해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3.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가톨릭 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0515  
기자: 헬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5100000669  
ID: 01100701.2015051510000066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가톨릭 암 심포지엄 2015(Catholic Cancer Symposium 201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암 표적 치료법 개발(Development of New Cancer Targets)을 주제로 암 줄기세포와 항암 면역요법 등 공동연구개발의 접점을 찾기 위해 열린다.국내외 제약사와 임상연구기관(CRO) 등 17개 기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부속병원의 암 임상연구자 외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암 연구개발 및 진료 현황과 인프라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 항암치료분야의 주요 이슈인 'CAR Modified T-세포 면역요법'은 세계적인 개발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의 연구책임자 마이클 골드브루너(Michael Goldbrunner)가, 'Checkpoint Inhibitors를 이용한 면역요법'은 미국 BMS 연구책임자 청신타(Shinta Cheng) 박사가 각각 소개해 기존 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면역요법과 접근법을 공유한다.또한 암 줄기세포 분야의 대가인 일본 카나자와대학교 치아키 다카하시(Chiaki Takahashi) 교수가 암 줄기세포의 대사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전후근 암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연구진이 암 줄기세포와 면역요법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암 표적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4.txt

제목: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  
날짜: 20150513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746108  
ID: 01100701.2016051500574610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 <br/> <br/>원두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며 원두커피 찌꺼기 활용법이 화제이다. <br/> <br/>커피의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커피의 클로로겐 산이라는 성분은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 열에 쉽게 손상되기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낫다. 클로로겐 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r/> <br/>또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br/> <br/>원두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탈취제나 화분용 거름 대용이 된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머릿결을 윤기나게 하고 손에 남아있는 마늘향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br/> <br/>인터넷팀 박효진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5.txt

제목: 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  
날짜: 20150513  
기자: 박효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1094  
ID: 01100701.201505131000010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 원두커피 찌꺼기원두커피 찌꺼기 쓰임새, 하지만 알고 써야 약이다원두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며 원두커피 찌꺼기 활용법이 화제이다.커피의 카페인은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 신경과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3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커피의 클로로겐 산이라는 성분은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는데 열에 쉽게 손상되기에 원두를 진하게 볶기보다는 가볍게 로스팅하는 것이 낫다. 클로로겐 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한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원두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탈취제나 화분용 거름 대용이 된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머릿결을 윤기나게 하고 손에 남아있는 마늘향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인터넷팀 박효진 기자 ph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6.txt

제목: 나쁜 피 해독, 어혈 제거에 셀라케어 ‘M3시리즈’… 가정의 달 영양제 추천  
날짜: 2015051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0449  
ID: 01100701.201505131000004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사망원인 중 2~3위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다. 혈액은 산소의 운반, 영양분의 공급, 대사과정에서 생긴 노폐물 제거, 체온 유지, 호르몬 운반 등을 역할을 통해 우리 몸을 지킨다. 혈액이 혈관을 통해 원활하게 순환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뇌를 비롯한 체내 장기는 혈액공급이 몇 분만 중단되어도 기능을 잃는다.현대인은 잘못된 먹거리 선택, 스트레스, 화학물질 남용, 환경오염 등으로 체내 나쁜 피와 혈액내 노폐물로 취급되는 어혈이 쌓이게 된다. 6년 경작 후 1년 휴지기를 지킨 흙에서 재배한 농작물에서 추출한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셀라케어 M3시리즈’(문의 1661-9575)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셀라케어(http://www.sellacare.net)가 내놓은 M3시리즈는 ‘M3’, ‘VC2000‘, ’골든워터(Golden Water)’, ‘메가(Mega) CMZ’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을 이용한 4중요법은 혈액을 최적의 상태인 약알칼리 상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혈액 및 체액이 과도하게 산성화될 경우 세포 재생이 더뎌지고 영양분 섭취 및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연치유력이 떨어진다.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M3는 아미노산 무기질 결합 복합체로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약 7배 높은 통쌀 농축물을 사용했다. 복합체는 멀티미네랄, 셀레늄 등을 둘러싸고 있으며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동시에 세포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킬레이트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 방식은 체내 흡수 이용률을 크게 높여 즉각적인 효능을 볼 수 있다.VC2000은 지구상 존재하는 식물 중 두 번째로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아세롤라와 로즈힙에서 추출물을 함유했다. 이들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고 동맥 및 정맥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을 한다. 골든워터는 비타민E, 레스틴, 셀레늄 등을 함유한 영양제로 세포내 불포화지방산의 과산화를 억제해 세포막 및 조직의 손상을 막는다.메가 CMZ는 인체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보충해주는 제품이다. 칼슘은 혈액 응고,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심장 박동,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등에도 관여해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다.이들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생산됐다. 제품 내 원료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청결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높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준수해 ‘코셔’인증을 획득했다. 코셔는 식품 위생을 까다롭게 여기는 유태인들의 정신이 녹아 있는 것으로 순수하고 청결하며 0.1%의 독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비유전자조작(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Non-GMO)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제품은 세밀한 시험 과정을 통해 중요 미네랄, 비타민, 미생물학적 특성(Microbiological specifications)을 정확히 담고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7.txt

제목: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날짜: 2015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0513100001087  
ID: 01100701.20150513100001087  
카테고리: 사회  
본문: 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담배소송' 4차 심리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에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두 학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소세포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21.7배 이상 발생 많이 발생했다"며 "마찬가지로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후두암 역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발생 위험이 11.7배, 5.4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의 '기여위험분율'이 각각 95.4%, 91.5%, 8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암의 기여위험분율이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 발생·사망한 암 환자 중 그 요인이 직접 작용했다고 간주되는 비율이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성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5일 4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두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토론, 학회 이사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친 후 이날 의견서를 발표했다.이들 학회의 의견 표명은 담배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역학(疫學) 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두 학회 모두 역학 연구를 각자 분야의 핵심 기반으로 두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개인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는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의 연구 뿐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게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8.txt

제목: 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5017207  
ID: 01100701.20160515005017207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행복감 주는 식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행복감 주는 식품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 '눈길'...몸 속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 <br/> <br/>행복감 주는 식품 모닝커피가 에너지 생성과 친절함, 즐거움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br/> <br/>이에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가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br/> <br/>최근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필립스 세코’가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노하우에 대해 알렸다. <br/> <br/>필립스 세코에 따르면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 <br/> <br/>또한 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민첩성, 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공격 성향을 약화시킨다. <br/> <br/>이외에도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몸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등 심장 박동 횟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br/> <br/>하 지만,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면 철분 보충제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 방해와 신경과민,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인 400mg 하루 2~3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br/> <br/>한편 커피는 산소 수분 온도의 변화에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로스팅한 원두는 최대 2주 이내 소비해야하며,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2-399.txt

제목: PTSD 노화 촉진, 노화방지에 건강까지 좋은 식품은? "젊어지는 보약 여기 있었네"  
날짜: 201505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004922500  
ID: 01100701.20160515004922500  
카테고리: 사회  
본문: 사진= 박주미/ 미샤 광고 캡처 <br/> <br/>충격적인 일을 당한 후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정신과전문의 제임스 로어 박사가 PTSD의 영향을 다룬 64편의 연구논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론났다고 전했다. <br/>  <br/>로어 박사는 "PTSD는 염색체의 말단부인 텔로미어가 세포가 노화되면서 점점 짧아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덧붙였다. <br/> <br/>이러한 가운데 노화방지에 좋은 식품이 화제다. <br/> <br/>최근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서는 외모를 어려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다. <br/> <br/>첫 번째 식품은 메이플시럽으로 캐나다 퀘벡주에 주로 분포하는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농축한 것으로 항산화물질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이 들어 있고 소염 기능도 있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춰준다. <br/> <br/>하지만 설탕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한 숟가락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두 번째 식품은 오이로 딱딱한 껍질에 주로 함유된 실리카 성분은 신체를 연결하는 조직 형성에 기여하고 근육과 관절은 물론 연골 등에도 좋으며 비타민C와 카페인산이 풍부해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br/> <br/>또한 오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은 기억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기억 장애의 촉진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br/> <br/>세 번째 음식은 코코넛 오일로 SCI저널인 국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유(코코넛오일)을 7주간 매일 사용하면 피부 보습 효과가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네 번째 음식은 식용 꽃잎 또는 잎채소로 식용 꽃은 페놀산은 물론 갈릭산, 클로로겐산, 루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또한 장미 꽃잎과 같은 식용 꽃은 항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